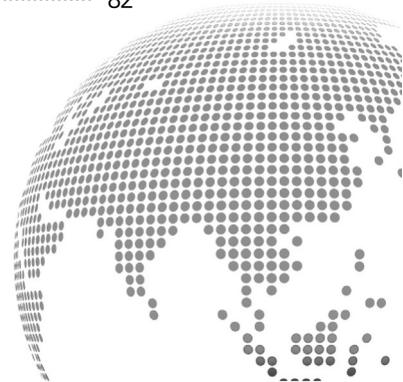

2018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Contents

2018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일본	3
일·가정 양립	4
양육지원	7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9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21
유아교육·보육 교사	22
기타	23
미국	25
일·가정 양립	26
양육지원	27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29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관리	32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34
유아교육·보육 교사	38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등)	42
캐나다	48
일·가정 양립	49
양육지원	50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52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60
유아교육·보육 교사	65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등)	65
프랑스	70
일·가정 양립	71
양육지원	75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77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79
유아교육·보육 교사	81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보고서 등)	82



Contents

독일	86
일·가정 양립	87
양육지원	88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93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94
유아교육·보육 교사	98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등)	102
스웨덴	117
양육지원	118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19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19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21
유아교육·보육 교사	125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논문 등)	129
영국	142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43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관리	146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49
유아교육·보육 교사	152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논문 등)	155



| 2018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



2018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일본

일·가정양립		
1	교토, 독특한 설계로 자녀 동반 근무 가능, 이용자 폭 넓혀	4p
2	연중무휴 공항 직원 보육시설, 황금연휴에도 일할 수 있게 채비	5p
3	아마나시 현 고슈 시, 새로운 근무방식 도입으로 육아 여성 근무환경 배려	5p
4	오츠시, 교육회의, 자녀 동반 참석 OK, '시대 변화에 발맞춘다.'	6p
양육지원		
1	육아 복지 정보 학교에 제공, 교육과 복지의 '종합적' 연계... 3월 내 책자 배포	7p
2	오사가 시, 육아 중인 엄마를 위한 아담 도서관 오픈	8p
3	가나가와 현 아마토 시, 학습과 육아 지원 위한 새로운 시민 교류의 장 마련	8p
4	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 올해도 한부모 가정 거주와 취업 지원	9p
5	시즈오카 시마다 취업 상담 창구 '마마헬로' 개설, 아이 동행도 OK	10p
6	나가노 시, 조부모 세대 위한 '나가노 두근두근 손자 양육 응원 북' 발행	10p
7	도쿠시마·미마 시 육아지원센터, 다채로운 행사 개최에 이용 호조	11p
8	유아 가정 전세대 방문 사업 1(사업 개요)	11p
9	유아 가정 전세대 방문 사업 2(가이드라인)	12p
10	육아 원조활동 지원 사업(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실시 요강	16p
11	육아 원조활동 지원 사업(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보충 자료	18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일본 정부 유보 무상화 내년 10월로 앞당겨, 소비세 인상에 맞춰 전면 실시	19p
2	오키나와현 나고시, 9월 1일부터 보육 무상화, 보육환경 정비 과제 남아	19p
3	후쿠이 자녀 응원 급부금	20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후쿠시마현, '육아맨' 늘리기 위한 세미나 개최	21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오카야마, 잔업 감소, 임금 상승, 보육사의 근무 방식 개혁은?	22p
기타		
1	'자, 당신도 임산부' 체험 재킷 대여	23p
2	시즈오카 현 아이즈 시, 육아 상담 시로 대응 목표	23p
3	도치기 현 육아정책 중 의료 지원 관련 제도	24p

❖ 일·가정 양립

1. 교토, 독특한 설계로 자녀 동반 근무 가능, 이용자 폭 넓혀

교토 시내에 ‘자녀 동반 근무’가 가능한 시설이 생긴. 교마치야(교토의 전통 상가 가옥)를 개조해서 편안한 구조에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등 독특한 사양이 눈길을 끌고 있음. 프리랜서와 창업가 등 폭넓은 이용자를 구상한다는 점도 특징임. 3평 정도의 다다미방에서 아이가 놀고 어머니들은 옆방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 형태임.

근처에 오픈 예정인 ‘오토나라라보’(시모교 구/下京区)는 자녀 동반 전용인 코워킹 스페이스(공용 근무장)임. 교토 시의 한 디자인 회사가 육아 중인 직원을 위해 교마치야를 개조한 것으로 향후 보육 직원을 배치할 예정임.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요시노 나오코 씨(39)는 ‘많은 부모들은 육아 휴직이 끝나면 직장에 복귀함과 동시에 자녀와 떨어지게 된다.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양자택일이 아닌 중간 선택지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함. 프리랜서 및 창업가로서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경험과 기술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함.

이러한 자녀 동반 근무 서비스의 주인공은 어머니뿐만이 아님. 이달 말에 영업을 시작하는 셰어 오피스 ‘GROVING(그로빙) BASE(베이스)’가 주요 이용자가 될 것이라 예상하는 대상은 아버지들임. 5층 건물 중 3~5층에 개인룸과 반 개인룸 총 24개를 설치하고 3층에는 어린이 놀이 공간을 정비. ‘가족을 부를 수 있는 오피스’를 지향하며 향후에는 자녀를 위한 이벤트도 기획할 예정이라 함. 시설 설계에는 운영 회사 대표이자 본인도 육아에 참여 중인 시노다 타쿠야 씨(30)의 교훈이 활용됨. 회사원이었을 시절에 본인은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음. 창업 후에는 아내를 더 돕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도했으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함. 시노다 씨는 시설에 대해 ‘일과 가정은 구분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서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함.

2018년 1월 18일

출처 : <http://www.kyoto-np.co.jp/local/article/20180118000112>

2. 연중무휴 공항 직원 보육시설, 황금연휴에도 일할 수 있게 채비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하늘의 현관인 공항.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일본 각지의 공항에서 보육 정원을 늘리거나 새 단장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이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공항 근무 직원들 중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희망하는 육아 세대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치바현 나리타공항 회사(NAA)가 2004년 4월에 일본 최초로 공항 내에 오픈한 보육시설 ‘보육룸 민들레’에는 이번 달 정원이 59명 증가해 총 105명이 재원 중임. ‘보육룸 민들레’는 공항과 마찬가지로 연중무휴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음.

‘이제는 골든 위크와 연말연시에도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항 내 면세점 화장품 코너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32세)은 이달부터 이 보육원에 큰 아이(4세)를 맡기고 있음. 이전에 딸이 다녔던 보육원은 일요일과 공휴일, 연말연시 등은 휴원 하였기 때문에 연휴 기간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의 경우 근무를 줄여 달라고는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함.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맞벌이인 남편과 부모님이 딸을 돌봤었음.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기도 했지만, 하루 약 1만 엔이나 하는 비용은 부담이 컸음.

동료 중에는 일요일 등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함. 따라서 연중무휴 공항 보육시설은 육아 세대의 짐을 덜어줄 것으로 보임.

2018년 4월 24일

출처 : <https://www.asahi.com/articles/ASL4R5RZPL4RUTIL032.html>

3. 야마나시 현 고슈 시, 새로운 근무방식 도입으로 육아 여성 근무환경 배려

고슈 시(甲州市)가 5월 28일, 임대 사무실 ‘쉐어 오피스 고슈’를 야마나시 시 카츠누마초의 카츠 누마 지소(支所) 별관에 오픈함. ‘쉐어 오피스 고슈’ 1층은 지역에서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지범 위성 오피스’(사용료: 1~2일에 5천 엔, 15~30일에 2만 엔)이며, 2층은 1인용으로 나뉜 ‘코워킹 스페이스’(사용료: 1일 200 엔, 1개월 3천 엔)로 구성됨. 한 번에 40명이 사용가능하며, 24시간 운영하고, 1천 엔이면 발행할 수 있는 카드로 입·퇴실을 하며 Wi-Fi 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함.

이는 기업 등의 발주를 받고 일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클라우드 소싱’ 등 새로운 업무 방식을 하는 청년층이나 육아 중인 여성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함.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IT 기업 ‘자연파 WEB’의 노구치 마사미씨(43)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써 활용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냄. ‘고슈 KULAS’의 회원인 아메미야 미와 씨(39)도 “농촌 지역에서는 집에서 컴퓨터로 근무를 해도 ‘일을 안 한다’고 주변의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런 쉼어 공간이 생겨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힘.

2018년 5월 29일

출처 : <https://www.sankei.com/smp/region/news/180529/rgn1805290022-s1.html>

4. 오츠시 교육회의, 자녀 동반 참석 OK, ‘시대 변화에 발맞춘다.’

6월 28일, 오츠시 종합교육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자녀 동반 출석과 화상 회의 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이렇듯 회의에 자녀를 데려와 동반 출석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결정은 최초이며, 이로 인해 육아 중인 위원들이 회의에 더욱 참석하기 쉬운 환경이 마련 됨.

시장과 교육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종합교육회의에 자녀 동반 출석에 대한 내용이 올 초 의제로 올라, 4월 20일 회의에서 가결되었음. 또한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거나 회의 시 먼 곳에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PC 등을 사용하여 음성과 영상을 주고받는 ‘화상 회의’ 형태의 참석도 인정하기로 함.

자녀 동반 출석에 대해 ‘이번 결정은 시대에 맞는 대응책으로, 더 일찍 있었어도 좋았을 것’, ‘다른 회의에서도 채택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음. 세 아이를 키우는 한 위원은 ‘아이 가 회의에 있으면 종합교육회의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제도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말함.

2018년 6월 28일

출처 : www.kyoto-np.co.jp/politics/article/20180628000168

☞ 양육지원

1. 육아 복지 정보 학교에 제공, 교육과 복지의 '종합적' 연계... 3월 내 책자 배포

도쿄도가 3월말까지 육아에 관한 복지 시책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책자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공립 초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초수급대상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등 복지 창구로 이어지는 정보를 담은 책자로, 복지 행정과 교육 현장이 '수직적 행정'의 벽을 넘어 연계하는 참신한 시도로써 향후 추이가 주목됨.

도쿄도에 따르면, 2016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 한부모 가정의 학부모 중 6.4%가 신청만하면 받을 수 있는 '아동 육성 수당'을 '모른다'고 대답.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 학원비 및 수업료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가구의 31.1%만 알고 있다고 응답, 도가 마련한 다양한 복지 시책의 낮은 인지도 문제가 드러남. 한편, 초중고 학부모의 80% 이상이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자녀에 관한 시책 정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짐. 학교가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써, 필요한 계층에 확실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긴급한 학대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도쿄도 복지보건국의 한 간부는 그 이유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는 복지 행정과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학교 현장 간에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 가정 등으로 대상을 한정시킨 정보 제공은 교육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책자에서는 모든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학습 지원 활동과 자녀 식당과 같은 시책을 소개함.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다', '일을 찾고 싶다' 등 경제적 지원 테마도 포함시켜, 부담 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고안함.

책자는 3월부터 도쿄도 복지보건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시정촌에서 모자 수첩 교부 시에도 배포할 예정. 한 관계자는 '정보를 알림으로써 상담 장벽도 낮춰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힘.

2018년 2월 23일

출처 :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80223/pl1802230022-n1.html>

2. 오사카 시, 육아 중인 엄마를 위한 아담 도서관 오픈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부담 없이 그림책을 접할 수 있는 아담한 규모의 그림책 도서관 'Ciccio Books(미니 북스)'가 26일, 오사카시 히가시 요도카와 구(東淀川区)에 오픈함.

이는 육아 환경을 더 좋게 개선하고자하는 오사카 시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의 운영은 히가시 요도카와 구에 본사를 둔 오사카 시의 인가 보육 시설이 담당함. 스스로 그림책을 찾아 읽는 사람보다는, 전혀 그림책에 관심 없는 사람, 그림책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람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 그 자녀가 그림책을 쉽게 접하게 하려는 시도임.

따라서 시설 내부는 나뭇결을 살린 인테리어로 꾸며지고 수유 공간과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도 완비되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기 쉽게 만들어짐.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커뮤니티 공간처럼 안락함이 주된 테마임. 도서관 대표 이즈미 마코토씨도 두 자녀를 키운 아빠로, '이곳에는 보육과 육아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상주하여 육아 고민도 상담을 해줍니다. 그림책뿐만 아니라 육아 중인 분들이 자녀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림책을 접해 육아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함.

물론 육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회원 등록을 하면 그림책을 빌릴 수 있음. 기존 도서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귀여운 느낌의 도서관에 많은 이들이 방문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함.

2018년 4월 28일

출처 : <https://www.lmaga.jp/news/2018/04/40108/>

3. 가나가와 현 야마토 시, 학습과 육아 지원 위한 새로운 시민 교류의 장 마련

야마토 시는 학습과 육아를 지원하고 실내 구기 활동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북부 문화 스포츠 육아 센터(별칭 '시민 교류 거점 플라리스')를 8월 1일, 추오린칸 1번가에 개소함. 이는 건강과 다세대 교류를 기본 취지로 하며, 야마토 시 북부 지역 시민 교류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임.

플라리스는 시유지에 건립하였고, 총 사업비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총 약 27억 9,600만 엔임. 부지 면적은 약 5,560평, 실내 면적은 약 3,940평, 3층 건물임. 1층에는 독서나 자습을 할 수 있는 시민 교류 공간, 회의실, 다목적실, 그림책이 구비된 육아 세대의 교류 공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 공간, 수유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풋살, 핸드볼, 탁구

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됨. 야외 공원 ‘별님 아이 광장’을 정비하여, 미끄럼틀이나 네트로 올라가 놀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대형 복합 놀이기구를 배치함.

또한, 야마토 시는 재해 발생 시 귀가가 어려운 시민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시설 내 방재 비축 창고도 구비함. 비상식량, 보온 기자재를 상비할 계획이며, 최대 7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해짐. 이곳은 추오린칸 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회의실, 다목적실, 아레나 이용은 유료이며 개관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9시 30분까지임.

2018년 7월 22일

출처 : www.kanaloco.jp/article/347794

4. 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 올해도 한부모 가정 거주와 취업 지원

기노완 시가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 생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음. 이혼 등의 이유로 주거지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 세대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주거 환경의 종합 지원을 Lequios社에 운영 위탁할 예정임. 이용자는 당분간 Lequios社가 임대 계약을 맺은 방에 살면서, 취업 활동이나 자격증 취득 등 수입 증가를 목표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게 됨.

지원 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로 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가계와 육아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음. 기노완 시 아동가정과 야마시로 씨는 ‘직장과 주거는 안정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2대 요소이다. 빨리 상담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독려함.

이용 대상은 기노완 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로, 스스로 주거 확보가 어려우며 취업 의지가 있는 육아 세대임. 18세 미만 아동이 3명 이상 있거나 1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육아 중인 가구를 우선시 할 계획임. 지원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부담은 없지만, 사업 종료 후에는 자가 부담으로 전환됨.

기노완 시는 2016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2년 동안 9개 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임대료 채무 보증과 함께 입주자의 생활 재건 사업도 진행하는 Lequios社를 공모를 통해 위탁 업체로 선정함.

2018년 7월 21일

출처 : <https://ryukyushimpo.jp/news/entry-765897.html>

5. 시즈오카 시마다 취업 상담 창구 ‘마마헬로’ 개설, 아이 동행도 OK

육아 중인 부모들의 취업을 지원을 위해 아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취업 상담실 ‘마마헬로’를 시마다시 시청 내에 개설함. 이는 시마다시와 시즈오카 노동국이 2017년에 맺은 고용 대책 협정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청 내에 헬로 워크가 설치되는 것은 현 내 최초 사례임.

시청 1층 보육지원과와 육아응원과 사이에 창구를 마련, 직장과 육아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윈스톱 시스템을 구축함. 헬로우 워크 시마다 지점에는 상담사 2명이 상주하며 육아 중인 부모의 상담요청에 대응함. 구인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단말기 이용도 가능하며, 창구 근처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함.

개관식에서는 소메야 시마다 시장은 “‘마마’라는 단어는 지역의 모든 어머니를, ‘헬로’라는 단어는 일하고 싶은 마음을 응원하는 단체인 헬로우 워크와 안녕이란 뜻으로 친근감을 표현했다.”며 명칭의 유래를 설명함. 7개월 된 아들과 육아 휴직 후 취업 상담을 받으려 방문한 한 여성은 ‘이동이 힘든 편인데, 한 번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함.

2018년 8월 7일

출처 : <http://www.at-s.com/news/article/local/central/524816.html>

6. 나가노 시, 조부모 세대 위한 ‘나가노 두근두근 손자 양육 응원 북’ 발행

손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가노 현 나가노 시는 이런 조부모들도 육아를 즐길 수 있도록 ‘손자 양육’ 방법을 담은 책자 ‘나가노 두근두근 손자 양육 응원 북’을 발행함.

책자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육아 방법의 차이 등을 설명함. 예를 들어 목욕 마무리 시 수분 보충에 대해, “옛날이라면 ‘백탕’을 주었겠지만 지금은 영양이 없는 백탕보다 모유나 우유가 좋다.” 등이 쓰여 있음. 또한, 육아 포인트로 신생아에게는 ‘수유 시 아기 얼굴을 보면서 할 것’, 초등학교 아동에 대해서는 ‘아이가 의지할 때 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달라’ 등의 조언 담고 있음. 그 외에 손자와 건강하게 놀기 위한 몸만들기, 손자 간식 만드는 방법 등도 소개되어 있음.

나가노 시 육아지원과는 ‘조부모가 즐기면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함. 이 책자는 A4 반 크기의 컬러 43페이지로 구성됐으며 발행 부수는 1만부로 나가노 시청이나 노인복지센터에 비치됨.

2018년 9월 24일

출처 : <https://www.sankei.com/life/news/180924/lif1809240022-n1.html>

7. 도쿠시마·미마 시 육아지원센터, 다채로운 행사 개최에 이용 호조

도쿠시마 현 미마 시 지역 교류센터 미라이즈에 올 5월 오픈한 ‘시 육아 지원센터 미라이즈’의 이용이 활발함. 회원 등록 어린이가 천 명을 넘었고, 많은 날은 하루 100명 이상의 보호자와 자녀가 방문함. 육아지원과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와 슈퍼나 도서관 등이 입주해 있다는 편의성이 인기의 원인으로 파악됨.

육아지원센터 미라이즈는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 임산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었음.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역 근로자 복지네트워크가 운영하며 가족지원센터도 병설했음.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영양사의 식단 상담이나 신체 측정, 미니 운동회와 같은 행사를 주 2회 개최하고 있음. 또한 미라이즈에 있는 대형 마트와 시립 도서관, 시민 서비스 창구 등을 이용하면서 검사검사 들르는 부모도 많음.

두 자녀와 주 2회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후쿠하라 마이(福原麻衣)씨(29세, 주부)는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림책을 빌리고 싶을 때는 바로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 좋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것도 편리하다.”고 말함. 마츠오카 센터장은 “참신한 면도 있어 이용객은 순조롭게 늘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설명함.

2018년 9월 24일

출처 : <http://www.topics.or.jp/articles/-/103778>

8. 유아 가정 전세대 방문 사업 1(사업 개요)

■ 유아 가정 전세대 방문 사업(일명 ‘안녕하세요 아기 사업’) 개요

-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교부금에 상정

(1) 사업 목적

생후 4개월까지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불안과 고민 사항을 듣고,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심신 상태나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하고 조언을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함. '안녕하세요 아기 사업'은 이렇게 영아가 있는 가정과 지역 사회를 잇는 첫 번째 기회를 만듦으로써 영아 가정의 고립화를 막고 영아의 건전한 양육 환경 구축을 도모함.

(2) 사업 내용

- 생후 4개월까지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육아에 관한 다양한 불안과 고민을 듣고 상담에 응하면서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부모와 자녀의 심신 상태나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하여 조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 방문 직원으로는 애육(愛育) 반원, 모자(母子) 보건 추진원, 아동위원, 육아 경험자 등을 폭넓게 활용함.
- 방문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적절한 관계자를 활용해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양육 지원 방문 사업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함.

(3) 실시 주체

-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함)

출처 : <https://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12/01.html>

9. 유아 가정 전세대 방문 사업 2(가이드라인)

(1) 사업목적

생후 4개월까지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불안과 고민 사항을 듣고,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심신 상태나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하고 조언을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함. '안녕하세요 아기 사업'은 이렇게 영아가 있는 가정과 지역 사회를 잇는 첫 번째 기회를 만듦으로써 영아 가정의 고립화를 막고 영아의 건전한 양육 환경 구축을 도모함.

(2) 대상자

원칙적으로 생후 4개월까지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사업 대상으로 함. 단, 생후 4개월 사이에 건강 진단 등을 통해 유아 및 보호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가정의 사정 등으로 생후 4개월을 경과하여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양육 지원 방문 사업 실시 등으로 이미 정보 제공 및 양육 환경을 파악해 둔 경우
- 방문 동의를 얻지 못해 재차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본 사업 실시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 자녀의 입원이나 장기 귀향 출산 등으로 생후 4개월이 될 때까지 해당 시정촌의 집에 아이가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3) 방문시기

생후 4개월 이내에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건강 진단 등을 통해 유아 및 그 보호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가정의 사정 등으로 생후 4개월을 경과해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모자보건법(法)을 바탕으로 한 방문지도와의 관계

본 사업은 모든 영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하는 사업임. 한편, 모자보건법을 바탕으로 한 방문지도는 모자보건 관점에서 영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건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이처럼 두 사업은 법적 위상과 일차적 목적은 다르나, 모두 신생아나 유아에게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 또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건사 등 전문직이 방문하도록 하며, 시정촌과 도도부현의 모자보건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신생아 방문이나 유아 방문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실시해야 함.

(5) 지역의 육아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

본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지역 내 타 육아지원 사업 등과의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는 것은 유아 가정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역의 육아지원 활동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연계는 바람직함.

(6) 방문자

- 방문자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외에 보육사, 모자보건 추진원, 애육(愛育) 반원, 아동위원, 어머니 클럽, 육아 경험자 등 폭넓게 인재를 발굴하여 방문자로 등용해도 좋음.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는 시정촌 독자적으로 전문직에 한하는 등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것도 무방함.
- 방문에 앞서 방문 목적과 내용, 유의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연수를 받아야 함.

(7) 실시 내용

- 본 사업은 다음의 내용을 실시하기로 함.
 - 육아에 대한 불안이나 고민 청취, 상담
 - 육아지원 정보 제공
 - 유아 및 그 보호자의 심신 상태와 양육 환경 파악
 -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제공 서비스 검토, 관계 기관과의 연락 조정
- 실시 내용은 시정촌의 판단에 따라 방문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전문직과 전문직 이외의 방문자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대응이 바람직함.

(8) 사업 실시 시 유의 사항

- 사업의 주지
 -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 및 방문의 장점 등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 모자 건강수첩 교부와 출생 신고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과 동시에, 사전에 방문 일시를 조정하는 등 대상 가정이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쉽게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지원의 필요성과 방문자
 - 시정촌 아동복지 담당부서 및 모자보건 담당부서의 연계 하에 사전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건사와 같은 전문직이 최대한 빨리 방문할 것.

(9) 실시 방법

- 방문 연락 조정 등
 - 방문할 때에는 대략의 방문시기를 미리 알려거나 방문자가 대상 가정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에 유의해야 함.
- 방문자의 신분을 제시
 -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시정촌에서 보낸 방문자임을 명확히 함.
- 방문 시 유의 사항
 - 육아에 대한 불안이나 고민을 청취하고 상담 : 방문 시에는 부모와 자식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수용적으로 대응함.
 - 육아지원 정보 제공 : 방문 시에는 해당 지역의 육아지원 거점 사업 등, 실시 장소 목록이나 모자보건 사업 목록 등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양육 환경 등의 파악 : 방문자는 방문 시 양육환경 등을 파악함. 양육환경의 파악 방법과 보고 내용은 방문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며, 연수 등을 실시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실제로 방문하도록 함. 특히 방문자가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보건사와 같은 전문직의 방문 결과 보고에 맞춰 양육 환경 등을 평가하는 체제를 갖출 것.

(10) 방문자 연수 프로그램

- 연수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되, 실제 가정 방문에 동행하거나 지원을 예상한 실가지도(롤플레이잉 등) 등을 포함시켜 방문 내용과 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함.
- 방문자 연수는 [1] 방문 실시 전에 실시하는 기초 교육, [2] 실제 방문 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향상 연수, [3] 사례 검토와 같은 응용 연수 등 방문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시함.

(11)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 사업을 통해 방문자가 파악한 개인 정보의 적절한 관리 및 비밀 유지를 위해 다음의 대응을 준비함.
 - 개인 정보의 적절한 관리 및 기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종사자에게 주지시킴.
 - 특히 방문자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기밀 유지에 대한 연수 등을 실시함.
 - 비상근 직원의 위촉 절차 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함.

출처 : <https://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12/03.html>

10. 육아 원조활동 지원 사업(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실시 요강

사업 목적은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자녀를 육아 중인 노동자와 주부 등을 회원으로, 자녀 돌봄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과 지원하고 싶은 사람의 상호 원조활동에 관한 연락과 조정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내 육아 상호 원조활동을 추진함. 이와 동시에 병아(病兒), 병후아(病後兒)의 돌봄, 조조·야간과 같은 긴급 시간대의 돌봄과 한부모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임. 실시 주체는 시정촌이며, 시정촌이 인정한 자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음.

■ 기본 사업 내용 및 실시 방법

(1) 사업 내용

- 패밀리 서포트 센터를 설립해 사업을 실시함. 다음에 대해서 필수로 실시하며 회원 수는 50명 이상으로 함.
 - 회원의 모집, 등록, 그 외 회원 조직 업무/상호 원조활동의 조정 및 파악 등
 - 회원을 대상으로 상호 원조에 필요한 지식을 부여하는 강습회 개최
 - 회원 교류를 넓히고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교류회 개최
 - 육아 지원 관련 시설 및 사업과의 연락 조정

(2) 상호 원조활동의 내용

- 상호 원조활동은 다음과 같이 아동 위탁 활동임.
 - 보육 시설의 보육 시작 전이나 보육 종료 후의 아동 위탁/보육 시설 까지 이동 서비스
 - 방과 후 아동 클래스 종료 후의 아동 위탁/학교 방과 후의 아동 위탁
 - 관혼상제나 다른 자녀의 학교 행사 시 아동 위탁/쇼핑 등 외출 시 아동 위탁

(3)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설치

- 본부 설치: 각 시정촌에 1개 설치.
- 지부 설치: 지정 도시에는 구마다 1개, 본부 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음.

(4) 실시 방법

- 상담사 배치: 패밀리 서포트 센터에 상담사를 배치함. 또한, 사업 규모에 맞게 회원 중에 서브 리더를 선정, 배치해도 좋음.
- 회칙의 제정: 시정촌은 사전에 상호 원조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회칙을 제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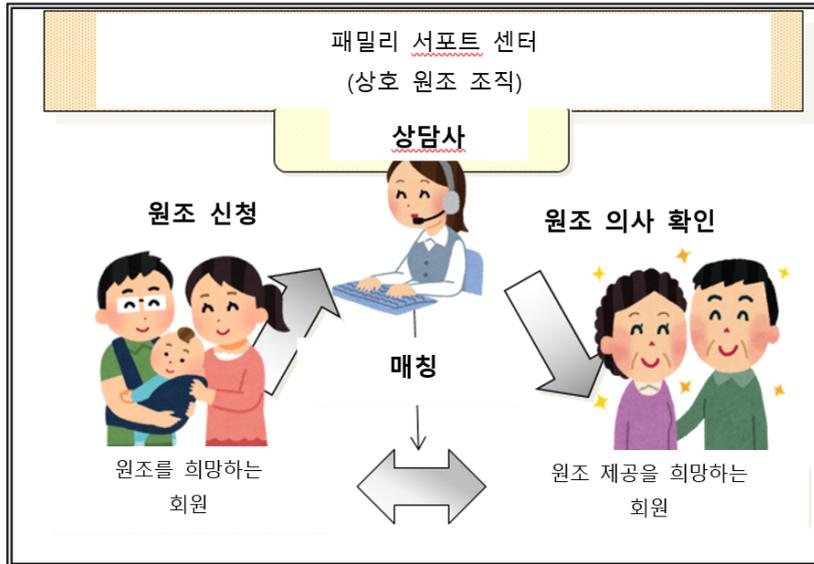
- 회원 가입: 회원 등록은 1년마다 갱신, 정리할 것.
- 회원 간 상호 원조활동: 회원 간 상호 원조 활동은 아동 위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간의 하청 또는 준위임 계약에 따른 것임.
- 보험 가입: 회원의 상호 원조 활동 중에 일어날 아동 사고에 대비하여 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아동 수탁 장소: 아이를 맡는 곳은 회원의 주택, 아동관, 지역 육아 지원 거점과 같은 시설 및 그 외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회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
- 위탁 아동의 수: 상호 원조 활동을 실시할 때,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아동의 수는 원칙상 지원하는 회원 한 사람당 1명임. 또한 부득이하게 여러 아이를 맡는 경우에는 회원의 경험과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원조활동에 대한 보상: 원조활동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회원 간에 결정하는 것이나, 보수 기준으로써 제도의 취지, 지역 실정 등을 반영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회칙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지원하는 회원 대상 강습 실시: 위탁중인 어린이의 안전 대책 등을 위해 참고로 다음의 항목, 시간을 대체로 충족한 강습을 실시하고 이를 수료한 회원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900000-Koyoukintoujidoukateikyoku/0000160891.pdf>

11. 육아 원조활동 지원 사업(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보충 자료

■ 육아 원조활동 지원 사업(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실시현황

- 《실시 시정촌 수》· ※2016년도 집계
 - 기본 사업 실시 : 833개 시정촌
 - 병아·긴급 대응 강화 사업 : 145개 시정촌
- 《회원수》· ※2016년도 기준, ()는 2015년도 기준
 - 의뢰 회원 (원조를 희망하는 회원) : 55만 명 (52만 명)
 - 제공 회원 (원조 제공을 희망하는 회원) : 13만 명 (13만 명)



[그림 1] 상호원조활동(패밀리 서포트 센터) 이미지

출처 : <https://www.mhlw.go.jp/bunya/koyoukintou/ikuji-kaigo01/>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일본 정부 유보 무상화 내년 10월로 앞당겨, 소비세 인상에 맞춰 전면 실시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전면 실시할 예정이던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를 2019년 10월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이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됨에 따라 육아 세대의 소비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화 전면 실시 시기를 반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임. 소비세율 인상시기와 맞춤으로써 육아 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올 6월에 마련하는 경제 재정 운영의 기본 지침인 ‘핵심 정책’에 포함시킬 것임. 또한 이 유보 무상화는 소비세로 인해 증가하는 세금 수입의 일부로 충당하여 운영할 계획임.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했던 ‘인재양성 혁명’의 경제 정책 패키지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이는 보육 무상화 대상의 범위를 (1) 0~2세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저소득 가정 (2) 유치원, 인가 탁아소, 인가 어린이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은 전원, 5세 아동만 19년 4월부터 실시하고 20년 4월에 0~4세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함이 골자였음.

2018년 5월 28일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528-00000092-jij-pol>

2. 오키나와현 나고시, 9월 1일부터 보육무상화, 보육환경 정비 과제 남아

9월 1일부터 오키나와현 나고시(沖縄県名護市)에서 급식비와 보육료 무상화¹⁾가 시작됨. 나고시 헤노코(名護市辺野古)의 신기지 건설에 대한 협조로 얻은 재편성 교부금을 활용한 것임.

2019년 10월부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는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보다 앞서 지역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보육료 무상화는 전국적으로도 선행 사례임. 다만,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많음. 따라서 보육료 무상화를 통해 ‘아이를 맡기고 일하고 싶다’는 부모가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보육 수요에 나고시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과제일 것임. 현재 인가 보육원 42곳(총 3,288명)과 인가 외

1) 나고 시의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 : 2018년 9월 1일부터 모든 인가 보육원이나 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사업소, 유치원 이용료를 무상으로 하고, 일부 인가 외 보육시설 이용료도 최대 월 3만 7천 엔(0~2 세: 4만 2천 엔)을 보조하는 제도를 운영함. 시는 신기지 건설에 협조하여 얻을 수 있는 재편성 교부금을 활용해 2년간 8억 6,127만 엔을 확보함.

보육원 4곳(총 53명)이 무상화 대상이며, 오키나와현과 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가 외 보육원은 제외됨.

■ 찬반양론

- 보육료 무상화를 둘러싼 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있는 한 어머니는 '무상화가 이루어지면 아이를 집에서만 키우는 사람들도 맡기게 된다. 무상이 아니어도 좋으니 보육료를 반값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함. 3개월 된 딸의 보육원 신청을 마친 한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며 찬성했지만 '보육원이 포화상태가 되어 대기 아동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며 '무상화 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함.

■ 대기 아동 증가의 가능성

- 발 빠르게 2016년 9월 1일부터 보육료 무상화를 시작한 효고현 아카시시(兵庫県明石市)는 2016년에 약 16억 엔을 들여 보육원을 신설하거나 입학 정원을 증원해 약 800명 규모로 수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교사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등에 힘씀. 그러나 2017년과 2018년에도 계속해서 희망자는 수용 범위를 웃돌아 대기 아동 수가 571명에 이름.
- 나고시는 무상화로 인한 예상 보육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은 현 단계에서 마련하지는 않음. 보육 수요가 높아지면 시설 정비와 보육교사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함. 또한 인가 보육원에 떨어진 경우에는 아이를 인가 외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어 일부 부모들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현상은 불공평한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

2018년 9월 1일

출처 : <https://ryukyushimpo.jp/news/entry-765897.htm>

3. 후쿠이 자녀 응원 급부금

육아를 위해 단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한 자가 둘째 이후 출산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정부가 지불하는 육아 휴직 급부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대상자는 육아 단시간 근무제(1일 근로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를 연속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출산한 후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한 자.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 휴직 수당은 휴직 시작 전 임금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육아 단

시간 근무제로 다음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상 근무에서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에 비해 수당이 줄게 됨. 따라서 정상 근무 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육아 휴직 수당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함으로써 단시간 근무의 활용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정상 근무 시간 기준 육아 휴직 수당과 단시간 근무 기준 육아 휴직 수당의 차액 30만 엔(아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인 경우는 60만 엔)을 한도로 지급함(1만 엔 미만은 제외).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출처 : http://angelnet.pref.fukui.lg.jp/cohabit_support/archives/1
<http://www.pref.fukui.lg.jp/doc/kodomo/kodakara/index.html>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후쿠시마현, ‘육아맨’ 늘리기 위한 세미나 개최

후쿠시마현에서는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 ‘육아맨’을 늘리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2016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 아버지들의 하루 평균 가사 시간은 1시간 15분으로, 지난 2011년 조사보다 26분 증가했으나, 전국 순위는 28위로 나타남. 따라서 후쿠시마현에서는 조산사나 육아 전문가를 강사로 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육아맨’을 양성하여 저출산의 요인인 어머니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임.

세미나는 내년 1월까지 현 내 각 지역에서 총 12회 개최 예정이며 육아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아이를 대하는 방법 교육뿐만 아니라 요리나 운동 교실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할 기회도 제공하여 육아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에 임할 남성을 늘리겠다는 목적임.

한편, 일본 총무성이 5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생활기본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들의 하루 평균 가사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도쿄로, 1시간 59분이라 함. 이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가사와 간병 및 간호, 육아, 장보기에 쓰는 시간을 합계한 것이며 후쿠시마 현의 1시간 15분은 전국 평균 시간인 1시간 18분을 약간 밑돌고 있음.

또한, 노동조건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2017)에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3.2%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후쿠시마현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

원하는 ‘이쿠보스’ 선언을 장려한 결과, 지금까지 196개 직장이 이 선언에 동참함. 이와 더불어 ‘육아맨’을 늘리는데 중요한 기업의 인식 전환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임.

2018년 6월 25일

출처 : <http://www.minyu-net.com/news/news/FM20180625-282923.php>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오카야마, 잔업 감소, 임금 상승, 보육사의 근무 방식 개혁은?

‘잔업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겠다.’ 보육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소와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힘쓰고 있음.

오카야마 시내의 사립 인가 탁아소의 남성 원장은 ‘최근 5년 동안 현장은 크게 바뀌었다’고 말함. 발표회 등에서 쓰는 의상과 소품을 이전에는 보육사가 집으로 가져가 만드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근무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이 안 걸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함. 보육 계획서와 원아의 기록을 쓰는 사무 작업도 이전에는 담임이 원아가 귀가한 후에 작성했으나, 최근에는 단시간 근무인 보육사가 원아를 돌보는 동안에 쓰는 탁아소도 늘고 있음. 원장은 둘 다 잔업이나 집에 가져가는 일을 줄여 ‘이직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지금까지 보육사의 노력과 의욕에 의존했었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부담을 줄이는 시도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함.

국가와 지자체도 보육사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음.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자격을 가지면서 보육사로 근무하지 않는 ‘잠재적 보육사’는 70만 명 이상이라 함. 그러나 교육부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잠재적 보육사’ 가운데 구직을 하는 사람들 중 약 절반이 보육 현장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함. 취업,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가 맞지 않아서’이며, 두 번째 이유는 ‘무거운 책임과 사고에 대한 불안’이라 함. 정부 조사에 따르면 16년도 보육사의 평균 연봉은 약 327만 엔임. 그러나 20대 초반인 보육사 중에는 300만 엔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지역별 임금 격차도 있다고 함. 공립과 사립의 임금 격차도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올해 정부는 사립인가 탁아소 등 직원들의 2%(월 6,000엔 정도) 임금 인상을 실시했음.

2018년 1월 25일

출처 : www.asahi.com/articles/ASL1J5FT8L1JPPZB00T.html

❖ 기타

1. ‘자, 당신도 임신부’ 체험 재킷 대여

사가 현이 임신기의 복부 팽창과 무게를 체험할 수 있는 ‘임산부 재킷’을 민간 기업 등에 대여함. 사가 현 어린이미래과는 ‘사내 연수 등에 사용함으로써 임신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사람들에게도 체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함.

한편, 야마구치 지사 등이 이 재킷을 착용하고 임신부의 일상을 체험하는 동영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임신부 재킷은 임신 7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제작, 무게는 7.3kg임. 호평을 받은 동영상 ‘지사, 임신부 되다’에서 지사가 착용했던 재킷과 같은 형태로 총 3벌이 있음.

과거에도 육아 이벤트 등으로 활용했으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원래 임신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고 함. 따라서 육아나 가사에 관심이 적은 남성 등에게도 체험 기회를 넓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위해 대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26일부터 민간 기업과 단체, 학교 등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기간은 최대 7일. 희망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2018년 2월 25일

출처 : <http://www.saga-s.co.jp/articles/-/185676>

2. 시즈오카 현 야이즈 시, 육아 상담 AI로 대응 목표

야이즈 시가 ICT(정보 통신 기술)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NTT 서일본 시즈오카 지점(시즈오카 시 아오이 구)과 제휴 협정을 맺음. 첫 제휴 협정을 통해 인공 지능(AI)을 활용하여 24시간 365일 대응할 수 있는 육아 상담 창구 개설을 목표로 함.

「아이·교육」, 「건강·복지」, 「산업·관광·문화」, 「생활·환경」의 4개 분야에서 2개 프로젝트 팀을 구성,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육아 상담 창구는 인터넷 상에 질문을 남기면 AI가 자동 응답하는 프로그램 ‘챗봇’을 활용하여 2018년도 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최근 시청에서 협정 체결식을 열고 나카노 야이즈 시 시장과 도이 지점장이 협정서를 교환했음. 나카노 시장이 “우리 시가 새로 추진하는 전자 지자체 추진 사업을 위해 NTT 서일본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도이의 지점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함. 현재 시즈오카 현에서는 타 지점과도 협정 체결 중에 있음.

2018년 4월 4일

출처 : <http://www.at-s.com/news/article/education/475121.html>

3. 도치기 현 육아정책 중 의료 지원 관련 제도

■ 의료비 지원 제도

(1) 임신부 의료비 지원 제도

- 임신 신고를 한 달 1일부터 출산한 다음 달 말일까지 임신부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 이는 일본 전국에서도 도치기 현을 비롯해 4개 지역에서만 실행하는 제도로 소득제한은 없음.

(2) 어린이 의료비 지원 제도

- 태어난 날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

■ 의료 급부 제도

(1) 양육 의료

- 출산 당시 아기체중이 2Kg 이하 또는 신체 기능이 미숙한 채로 태어난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1세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에 따라 일부 부담금이 징수됨.

(2) 자립 지원 의료

- 신체장애 등이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생활 능력을 얻기 위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소아 만성 특정 질병

- 암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아 만성 질환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대상이 되는 전염병은 704종이며 전염병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함. 본래 소득에 따라 부담금이 징수되나, 도치기 현에서는 현이 부담함.

(4) 특정 불임 치료비 지원 제도

- 불임 치료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체외 수정 또는 현미 수정(현미경으로 수정을 시키는 방식)에 의한 치료를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출처 : <http://www.pref.tochigi.lg.jp/kodomo/kosodatesien/seido/keizai.html>

미국

일·가정양립		
1	워싱턴 D.C.의 무상보육이 모(母)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26p
양육지원		
1	함께하는 산전 관리(Group Prenatal Care)의 장점	27p
2	아마존(Amazon) 최고 경영자, 어린이집 및 노숙자 가정을 위한 2조 원대 자선기금 발표	28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높은 보육비용 부담으로 아이를 적게 갖는 미국인들	29p
2	3-4세 아동보조금 지급 위해 소비세 개혁을 검토 중인 세인트 폴(St. Paul)시	30p
3	주정부 아동보육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정책에 대한 보고서	31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관리		
1	몬태나 주, 민간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32p
2	코네티컷 주, 유치원 연계과정을 돕기 위한 자료 제공	33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뉴욕시, 만 4세 이중 언어 프로그램 확대	34p
2	학교기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진학률을 높인다	34p
3	출산을 앞둔 아버지들을 위한 가정방문형 맞춤형케어제공 프로그램 운영	35p
4	DadTime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한 부(父)의 애착형성프로그램 참여 장려	36p
5	아버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평가 보고서	37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현직 교사에게 학위취득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	38p
2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충원을 돕는 콜로라도 주의 새로운 법안	39p
3	전국 교사 설문조사 결과, 통합된 유아교육 시스템에 대한 교사 선호도 나타나	40p
4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기업 '브라이트 호라이즌', 교직원들에게 무상교육의 기회제공	41p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등)		
1	주 의회 국책회의에서 정한 유아교육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다	42p
2	가정폭력을 경험한 어린이를 돕는 워싱턴 주의 새로운 법안	42p
3	미 연방정부 데이터로 살펴보는 미취학 아동 체벌 실태	43p
4	취학 전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소로 새롭게 조망되는 지역 빨래방 및 식료품점	44p
5	연방규정을 통한 법원과 아동복지기관의 정보 공유 의무화	45p
6	사전 예방을 통한 아동 복지 향상	46p
7	웹 기반 아동관찰 도구를 이용한 최적화된 학습 환경 조성	46p

❖ 일·가정 양립

1. 워싱턴 D.C.의 무상보육이 모(母)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혁신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에서 새롭게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종일제 무상보육이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이 보고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영유아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함.

CAP 수석 정책분석가 레쉬드 말릭(Rasheed Malik)은 워싱턴 시가 무상보육을 제공한 후, 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들 중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여성의 비율이 76.4%로 약 12%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며 이 상승분 중 10%가 무상보육의 효과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이는 한 가지 정책 변화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로는 팔목할 만한 것이며,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들과 비슷한 비율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 무상보육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을 56%에서 67%로 증가시킴. 기혼 여성의 정규직 근무 비중이 상승했고, 미혼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 또한 오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질 높은 무상보육이 단순히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님. 이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다른 많은 선진국에 비하여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았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관련 정부지출이 미국은 선진국 36개국 중 21번째로 연방정부의 투자가 적은 편에 속함.

이 보고서는 2년간의 종일제 무상보육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강한 양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 맞벌이 부부에게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수백만 가정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생애소득은 증가할 것이며, 또한 다른 선진국가들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종일제 무상보육은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성, 주로 어머니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GDP가 11% 증가했음.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현상의 원인을 맞벌이 가정 지원에 대한 구조적인 결핍으로 파악함.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무상보육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것이며, 잠재적으로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상보육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도 함. 국립과학기술대(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는 취학 전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정부부담액 53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1,400억 달러라고 함. 하지만 말릭(Malik)은 질 높은 보육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 비용 대비 몇 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경제성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육에 대한 투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2018년 9월 26일

출처 : <https://www.vox.com/identities/2018/9/26/17902864/preschool-benefits-working-mothers-parents>

● 양육지원

1. 함께하는 산전 관리(Group Prenatal Care)의 장점²⁾

산전관리는 임신기간 전반에 걸쳐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산전관리에는 혈압 점검과 정기적인 건강 진단이 포함되는데, 이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향후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미국의 산전관리는 의사나 조산사가 산모를 약 12-15 회 일대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됨. 하지만 많은 산모들은 현 산전 관리의 짧은 방문 시간과 긴 대기 시간, 출생 전 검사에만 초점을 두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집단 산전관리(group prenatal care)가 전통적인 일대일 방문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집단 산전관리의 경우 산모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토론의 기회를 갖고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가정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움. 한 집단은 8명~10명의 산모와 보조인력, 진행자, 그리고 공인 조산사로 구성됨. 이들은 2~4주에 한번 2시간 동안 모임을 가지며,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저녁에 만남.

집단 산전 관리는 산모가 자신의 몸무게와 혈압을 직접 재고, 결과를 스스로 차트에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됨. 그리고 조산사와 함께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배꼽 검사(belly check)”를 실시함. 집단 토론은 조산사와 진행자가 함께 인도하며 영양, 운동, 임신 중 겪는 불편함, 스트레스 관리, 소아과 선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또한 예기치 않은 합병증에 대처하는 방법,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논의할 수 있음.

집단 산전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임. 지금까지 검증된 결과로는 조산율 감소, 신생아 집중 치료를 위한 입원 감소, 임신 3기 때 응급실 방문 감소, 출생체중과 모유수유 시간 증가 등이 있음. 이는 또한 출산에 관한 지식, 가족계획, 산후 우울증 및 자녀

2) 본 글에서는 Group prenatal care를 ‘집단 산전관리’로 의역함

양육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 연구에서 집단 산전 관리를 한 산모 207명과 일대일 산전 관리를 한 산모 414명을 비교 하였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 산전 관리를 경험한 산모는 저체중아를 낳은 비율로 출산하였으며, 제왕절개 및 신생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비율도 낮았음. 저소득층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집단 산전 관리가 다양한 계층의 건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함.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산전 관리는 상대적으로 어린 산모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이들은 임신 중에 적절한 속도로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출산 후 12개월 내 재임신 비율이 낮았고, 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해나감. 집단 산전 관리의 효과가 인종이나 사회계층에 따라 어떤 효과를 보이는 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산전 관리가 전통적인 일대일 방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2018년 4월 18일

출처 : <http://www.recorder.com/Better-Together-The-benefits-of-group-prenatal-care-16827838>

2. 아마존(Amazon) 최고 경영자, 어린이집 및 노숙자 가정을 위한 2조 원대 자선기금 발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아마존(Amazon)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아내 맥켄지(Mackenzie)가 사회적 취약지역에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preschool)을 설립하고 젊은 노숙자 가정을 돕는 목적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밝힘. 그들은 ‘베조스 데이 원 펀드(Bezos Day One Fund)’라고 불리는 2조 원대 기금을 설립하고 자선활동을 해나갈 예정임.

‘데이 원 아카데미 펀드(Day 1 Academies Fund)’는 취약지역에 프리스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임. 베조스(Bezos)는 새롭게 지어질 프리스쿨은 몬테소리에 기반하여 높은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해당 펀드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할당될 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명시되지 않음. 이와 더불어 ‘데이 원 패밀리 펀드(Day 1 Families Fund)’는 젊은 노숙자 가정에게 식량과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임.

베조스(Bezos)는 프리스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배우고,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쁘다고 강조함. 그는

새롭게 지어질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은 손님일 것(the child will be the customer)’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 그는 아마존의 성공을 이끌어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하며 고객에 대한 진정성과 충실함을 장점으로 내세움.

2018년 9월 13일

출처 :

<https://marketbrief.edweek.org/marketplace-k-12/amazons-jeff-bezos-announces-2-billion-philanthropic-fund-preschools-homeless-families/>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높은 보육비용 부담으로 아이를 적게 갖는 미국인들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자녀를 적게 갖는 가장 큰 이유 4개 중 3개가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높은 보육비용’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인 부담’이 49%로 세 번째, ‘더 많은 자녀를 부양할 형편이 못 됨’이 44%로 네 번째 이유였음. 이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가 경제적 불안 및 염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해당 설문은 20-45세 1,858명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54%가 더 많은 자녀를 갖기 원한다고 했음.

뉴욕 타임즈는 미국의 출산율이 2년 연속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힘. CNBC는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정부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함.

2015년 기준, 미국 부모가 한 자녀를 출생부터 17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대학 학비를 제외하고 약 23만 달러(약 2억 6천 만원)정도임. 고소득층은 약 37만 달러(약 4억 2천 만원)를, 저소득층은 약 17만 달러(약 2억)를 사용함.

보육비용은 주마다 상이함. 싱크 탱크 경제정책연구소(Think Tank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D. C(Washington, D.C.)의 보육비용이 연간 22,631 달러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가 17,062달러, 뉴욕(New York)은 14,144달러, 매릴랜드(Maryland)는 13,932달러이며, 미시시피(Mississippi)는 4,822달러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 모든 주의 보육비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목록은 기사 하단에 있음. 해당 목록은 싱크 탱크 경제정책연구소에서 2016년 4월에 조사한 것이며, 3세 미만 영유아의 보모 고용비 및 시설 이용비를 기준으로 산출했음.

2018년 7월 9일

출처 :

https://www.cnn.com/2018/07/06/how-much-child-care-costs-in-every-state-in-america.html?mc_cid=08ca9f6826&mc_eid=3037f8c567

2. 3-4세 아동보조금 지급 위해 소비세 개혁을 검토 중인 세인트 폴(St. Paul)시

세인트 폴(St. Paul)시의 학교 및 비영리단체 지도자들은 모든 3-4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예산은 정부 보조금에 따라 연간 2천 5백만 달러에서 4천 1백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시는 금융연구로 2만 달러를 제공하였고, 교육구는 1만 5천 달러를 투자하여 프로그램의 설계를 도울 전문 인력을 고용함. 무상 보육 추진 계획은 내년 초까지 완료되어야 함.

가장 큰 자금조달원은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 소비세일 것임. 시의회 의원 레베카 노에커(Noecker)는 현재는 유치원에 입학하는 5살까지 모든 보육의 책임을 부모들에게 전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상 보육이 유아의 유치원 준비도를 높이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여, 세인트 폴(St. Paul)시를 살기에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함.

노에커(Noecker)는 유권자들이 2020년 초에 소비세 개혁에 투표 할 수 있다고 말함. 그 이후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세인트 폴(St. Paul)시는 뉴욕, 덴버, 시애틀 등의 대도시처럼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미네소타 주의 첫 번째 도시가 될 것임.

2018년 8월 19일

출처 :

<https://www.twincities.com/2018/08/19/st-paul-explores-a-sales-tax-to-subsidize-citywide-preschool-for-3-and-4-year-olds/>

3. 주정부 아동보육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정책에 대한 보고서

아동보육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은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하는 연방기금임. 해당 기금과 관련한 세부 정책은 보조금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절차, 대기절차, 재심사 조건, 가정 공동부담, 시설 요구조건, 보조금 환급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정부와 지자체에 따라 크게 상이함. 이 보고서는 동일한 연방 프로그램 요구조건 아래 주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표를 제시함.

CCDF 정책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미국 외곽 5개 지역의 CCDF 정책을 조사하여 종합적이며 최신 자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이 데이터베이스는 CCDF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의 정책정보도 찾아 볼 수 있음.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획연구평가 사무국(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의 지원을 받아 구축되었으며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에서 관리함.

- 2017년 이후 CCDF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7개 지자체에서는 부모가 최소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 외 지자체에서는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가 요구되나 최소 근로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음.
 -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인 가족 최대 수입은 푸에토리코(Puerto Rico)의 월 \$1,423에서 알래스카(Alaska)의 월 \$5,156의 범위를 보임.
 - 주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연소득이 \$15,000이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는 매달 평균 \$0-\$414의 보육료를 부담함.

2018년 11월 9일

출처 :

https://www.acf.hhs.gov/opre/resource/the-ccdf-policies-database-book-of-tables-key-cross-state-variations-in-ccdf-policies-as-of-october-1-2017?utm_source=ACF+OPRE+News+11%2F19%2F18&utm_campaign=OPRE+News+11%2F19%2F18&utm_medium=email

보고서: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pre/ccdf_policies_database_2017_book_of_tables_final_10_09_18_508.pdf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관리

1. 몬태나 주, 민간 어린이집과 협력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

지난 몇 년간 몬태나(Montana)주는 민간 어린이집(private preschool providers)의 질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왔음. 그 결과 현재 주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7개 중 1개 정도임. 몬태나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2년간 600만 달러에 달하는 STARS 기금을 받았으며 이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확장해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STARS 기금은 민간 및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료, 교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다른 필수 요건들을 갖추는 데에 사용됨.

최근 STARS 기금을 받은 컨트리 케어(Kountry Care)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장 맨디 베런스는(Mandy Berens)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부분 지켜왔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받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함. 베런스는 어린이집이 전문가들에게 질 높은 시설로 평가되기 위하여 준학사 학위를 받은 교사들을 고용했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고, 정해진 교과과정을 사용했다고 말함. 평가에 새로 추가된 사항은 연장보육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평가 이전에는 일주일에 3일 각 3시간을 운영했으나 현재 4세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5일, 각 6시간을 운영하고 있음. 컨트리 케어(Kountry Care) 민간 어린이집의 교실은 2명의 주교사가 약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교사인 헤인(Hein)은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함. 이 민간 어린이집은 수요가 꾸준히 많아서 입소대기 신청을 10명까지만 받고 있음.

어린이집이 STARS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10으로 유지해야 하며, 교육연구를 기반으로 한 주정부 기준에 맞는 교과과정을 사용해야 하고, 일주일에 최소 28시간 이상 시설을 운영해야 함. 공공형 어린이집은 반드시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고용해야 하며,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과 관련된 수업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준학사 학위가 있어야 함.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규모는 공공형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300명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며, STARS 기금의 약 1/3을 지원받고 있음.

2015년에 연방정부 보조금 4천만 달러 삭감을 촉구한 현 교육감 엘시 알센(Elsie Arntzen)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판함. 그들은 공공형 프로그램이 민간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 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임. 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형 프로그램이 운영된 후 조지아(Georgia)주의 민간 시설은 증가했으나 오클라호마(Oklahoma)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조지아주와 오클라호마주 모두 어린이집 등록 원아수는 크게 증가함.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재

정조달방식, 지리적 특성 등 기존 어린이집 외 다른 변수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결론지음. 앞서 STARS 기금을 받은 시설장 베렌스(Berens)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즉 모든 학급에 대기자 목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함.

2018년 4월 16일

출처 :

http://billingsgazette.com/news/local/montana-partners-with-private-providers-in-trial-run-of-publicly/article_1532c3cd-1b14-5a9d-afe0-78c5f3d41adb.html

2. 코네티컷 주, 유치원 연계과정을 돕기 위한 자료 제공

코네티컷 주에서는 유치원 연계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 내 유아교육 기관 현황과 유치원 연계과정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어 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제공함.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미 교육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전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코네티컷 주는 다른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K-12 공교육으로의 초등과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이 다른 행정체제로 운영되며, 유아시설은 공립기관과 사립기관이 서로 다른 재정지원 체계를 가짐. 엘렌 콘(Ellen Cohn)은 유아교육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교의 신입생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입생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함.

코네티컷 주는 “Landscape Analysis Tool”이라 불리는 분석도구를 제공하여 교장들과 직원들이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신입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분석도구는 인구통계, 교육 시설의 질, 학업 성취도, 그리고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도 등 네 범주로 자료를 분류하고 ‘필수정보’, ‘필수 또는 선택정보’, ‘선택정보’로 구분함.

코네티컷 주정부는 30명 이상의 다른 주 소속 학교 관계자들과 외부 컨설턴트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자문을 구해 이 유치원 연계과정 자료를 만들음. 유아교육 전문가, 앤드레아 브리넬(Andrea Brinell)은 이 자료는 단순히 안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연계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자체평가 및 점검의 일환임을 강조함. 그녀는 이상적인 유치원 연계과정이란 몇 개의 활동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함.

2018년 6월 4일

출처 :

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8/06/connecticut_provides_resources_to_help_make_transition_to_kindergarten_easier.html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뉴욕시, 만 4세 이중 언어 프로그램 확대

뉴욕에 위치한 수십 개의 학교들에 다니는 만 4세(Pre-K) 학생들이 제 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교육부는 기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의 수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만다린어, 이탈리아어, 벵골어를 가르침.

칼멘 파리나(Carmen Farina) 교육감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읽는 능력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은 아이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뉴욕시는 이중 언어 프로그램의 수를 2배 이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과 가족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모국어뿐만 아니라 제 2외국어를 구사하는 기초를 쌓고자 한다.”고 말함.

추가된 이중 언어 프로그램 중 5개는 브롱스(Bronx), 9개는 브루클린(Brooklyn), 11개는 맨하튼(Manhattan), 6개는 퀸즈(Queens), 2개는 스테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에서 실시 될 예정임. 해당 프로그램에 다닐 학생의 절반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아이들임. 나머지 학생들은 영어에 능숙함. 교사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예정임. 학생들은 만 4세 프로그램 이후 유치원에 진학해서도 계속해서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유아교육부 부총장을 맡고 있는 조쉬 워락(Josh Wallack)은, “우리는 뉴욕시의 가족들에게 질 높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 프로그램의 확장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리고, 앞으로 뉴욕시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말함.

2018년 1월 17일

출처 :

http://pix11.com/2018/01/17/new-york-expands-dual-language-pre-k-program/?mc_cid=bd6be6f132&mc_eid=3037f8c567

2. 학교기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 진학률을 높인다

지난 달 발간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Preschool)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카고 부모 자녀센터(Chicago Child-Parent Centers)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1980년 초기에 해당 센터에 다닌 1,000명 학생들을 종단 연구한 결과임. 부모자녀센터를 다닌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더 높은 학력을 보임. 이

리한 효과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더 오래 경험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부모자녀센터의 어린이집 프로그램만 다닌 학생들의 경우 15.7%, 센터에 다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10.7%가 준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음. 부모자녀센터에 2학년 혹은 3학년까지 머무른 학생들의 경우 18.5%, 비교그룹의 경우 12.5%가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음. 이 경우 비교그룹에는 센터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과 2학년 이전에 센터를 떠난 학생들까지 포함함.

시카고 부모자녀센터 연구는 몇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함. 첫째, 유아교육 프로그램 중 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한 연구가 많지 않음. 부모자녀센터 프로그램은 교사와 교장의 전문성 개발 및 어린이집에서 3학년에 이르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학교 개혁 모델로 볼 수 있음. 학생들은 소규모 학급에서 읽기 및 수학에 중점을 둔 교육을 비롯하여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짐. 학부모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원한다면 봉사 및 기타 프로그램들과 연계되어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음.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또 다른 점은 비교그룹 학생들이 1980년대에는 보편적이지 않았던 헤드스타트, 종일유치원 등 다른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다녔다는 것임. 기존 종단연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비슷한 경험이 전문한 학생들을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음.

미네소타 아동발달 연구소의 교수 레이놀드(Reynold)는 부모자녀센터 프로그램의 교사교육, 교육과정, 소규모 학급, 부모참여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오늘날의 주정부 지원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차이를 강조하였음. “우리는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 어린이집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2월 5일

출처 :

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8/02/how_a_school-based_early-learning_program_boost_ed_later_college_attendance.html?mc_cid=f1bb0af14c&mc_eid=3037f8c567

3. 출산을 앞둔 아버지들을 위한 가정방문형 맞춤형케어제공 프로그램 운영

미네아폴리스(the City of Minneapolis)시는 임신부와 영아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방문간호사 프로그램을 올해 말부터 아버지들에게도 확대 시행하기로 함. 이는 방문간호사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조산, 저체중, 영아 사망, 아동학대, 유아 부상, 산모의 저학력, 저소득, 높은 실업률 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들에게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며,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방법과 부모로서 갖춰야 할 양육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임.

미네아폴리스시는 시범연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아버지들의 직업 기술 향상, 스트레스 관리능력 향상, 양육기술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아버지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받았을 때,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소 또한 감소하였음을 보고함.

미네아폴리스시는 미네소타 방문간호사 단체(The Minnesota Visiting Nurses Association) 및 굿월이스터실스(FATHER project: Goodwill-Easter Seals)와 협력하여 간호사의 가정방문과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도울 예정임.

2018년 5월 11일

출처 :

https://patch.com/minnesota/southwestminneapolis/minneapolis-offer-home-nurse-visits-expecting-fathers?mc_cid=de739e70b1&mc_eid=3037f8c567

4. DadTime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한 부(父)의 애착형성프로그램 참여 장려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소속된 아동가족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연구기획평가 사무국에서 지난여름에 발간한 보고서는 아버지의 애착형성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어플 'DadTime'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

DadTime은 2015년 아동가족부의 Building Bridges and Bonds Study(B3) 사업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스마트폰 어플은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함임. B3는 아버지의 양육 기술을 키우고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음.

B3는 Just Beginning이라고 불리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2개월부터 만 3세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아버지들에게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이면서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음. Just Beginning은 아버지들에게 자녀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법, 자녀의 행동과 의도를 알아채는 법, 칭찬하는 법 등을 가르침. DadTime 어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Just beginning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들 중 일부에게 해당 어플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것이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는지를 연구함. DadTime 어플은 B3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됨. 어플개발팀은 프로그램 진행 중 교육 전날, 다음 날, 다음 주 총 세 번에 걸쳐 아버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함. 해당 어플은 아버지가 자녀와 동반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법,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교육 이후 자기성찰과 다음 기회에 시도할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함. 추후 연구를 통해 아버지들이 DadTime 어플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어떤 점이 유용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실제 프로그램 참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예정임.

2018년 10월

출처 : <https://cbexpress.acf.hhs.gov/index.cfm?event=website.viewArticles&issueid=200§ionid=1&articleid=5201>
 기타 보고서 :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pro/b3_dadtime_brief_508.pdf

5. 아버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평가 보고서

2005년부터 의회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고 가정경제 안정성과 원만한 결혼생활 도모를 위해 아버지 역량강화 프로그램(Responsible Fatherhood, RF)에 기금 지원을 하고 있음. 많은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지만, 꾸준한 참여와 프로그램 수료를 독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부모자녀 동행(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PACT) 평가는 철저한 설계를 통해 네 개의 RF 프로그램을 조사함. 매스매티카(Mathematica)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PACT는 아버지의 배경, 견해 및 경험(질적 연구 요소), 프로그램 운영방식(실행 연구 요소), 프로그램이 아버지에게 미친 영향(효과 연구 요소)을 조사함.

네 개의 역량강화 프로그램(RF)에 등록한 아버지들은 주로 30대 중반에 2~3명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흑인이었음.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불안정한 주택과 고용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RF에 등록한 지 9개월 동안 초기 등록자의 4분의 3 이상이 최소 하나의 서비스에 참여했음. 아버지들은 평균 45시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주요 워크숍에 참석함. 분석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꾸준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아버지들은 1) 연령이 높았고, 2) 프로그램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으며, 3)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으나, 4) 자녀 양육의 의무를 지녔다는 특징을 보임. 또한, 초기 참석률을 예측하는 네 가지 특징은 1) 가석방 상태이며, 2) 중증 이상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3)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며, 4)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회귀분석 및 직원 인터뷰 결과, 아버지들의 초기 및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 방법이 논의됨. 구체적으로는 통합모델 사용, 동일한 건물 혹은 근접한 거리에서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교류 지원 및 강조 등이 있음.

2018년 11월 1일

출처 :

https://www.acf.hhs.gov/opre/resource/participation-responsible-fatherhood-programs-pact-evaluation-associations-father-program-characteristics?utm_source=ACF+OPRE+News+11%2F19%2F18&utm_campaign=OPRE+News+11%2F19%2F18&utm_medium=email

보고서: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pre/pact_rf_program_participation_brief_9_13_18_for_opre_and_508_b.pdf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현직 교사에게 학위취득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

2016년 12월 워싱턴시 교육청은 교사 자격요건과 관련된 새로운 보육정책을 채택함. 이 정책에 따르면 2020년 12월까지 보육시설(Daycare) 시설장은 학사학위를, 정교사는 준학사학위를, 보조교사는 아동발달에 관한 자격증(Child Development Associate)을 취득해야 함. 일부 기관의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어린이집(Preschool)과 일부 만 4세 프로그램(Pre-kindergarten; Pre-K)의 교사들은 이미 비슷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뉴욕 타임즈(Times)가 4월에 보도한 바와 같이, 57개 미주의 반절 이상의 Pre-K 프로그램과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일정 수준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음.

많은 연구와 분석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수준은 질 높은 보육의 핵심 요건이며 이는 건강, 수입, IQ 등을 포함하여 유아기 이후 생애주기에 따른 이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러한 결과는 교육옹호론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워싱턴시는 2015년에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보고서를 따라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임. 이 보고서는 보육시설에서 교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수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시함. 하지만 타임즈(Times)는 이러한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몇 가지 분석 결과를 보도함.

워싱턴시는 학위를 새롭게 취득해야 하는 현직교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함. 많은 보육전문가들이 교사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Teacher Education and Compensation Helps: TEACH) 등을 통해 장학금을 수령하며 해당 장학금은 지역과 연방정부, 시설 기부금 등으로

충당됨. 하지만 대부분의 장학금은 미국 시민권자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조차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현직 교사들, 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직 교사들은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임.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유지될 예정이라는 것이 확인됨. 2017년 11월 워싱턴 교육감 강한술(Hanseul Kang)은, “워싱턴 시는 새로운 자격요건이 요구됨에 따라 발생한 전환 시기에 관련기관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2018년 1월 17일

출처 :

<https://www.chalkbeat.org/posts/co/2018/01/19/colorados-new-minimum-wage-means-raises-for-child-care-workers-and-tuition-increases-for-parents>

2.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충원을 돕는 콜로라도 주의 새로운 법안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 상원의회의 승인을 이미 받았으며 하원의회에서도 곧 통과될 예정임. 이 법안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 및 배치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에 관한 내용임. 현재는 각 어린이집에서 채용할 대체교사의 신원조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를 새로 생긴 기관에서 담당하기로 함.

이 법안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동시에 만성적으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해당 법안은 대체교사 자격증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체교사풀(pool)을 마련해 인력충원이 필요한 지역 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도울 예정임. 인력풀 마련은 콜로라도 주의 보육교사 지원방안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함.

덴버 아동위원회(Denver's Early Childhood Council)에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니콜 라이엘(Nicole Riehl)은 일부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는 하루에 10명의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3만 충원된다고 함. 교사 수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장이 행정적인 일을 내려놓고 교실을 돕는 경우도 있으며, 현직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대체교사의 수급을 돕는 해당 법안은 지난 월요일 하원의회에서 구두 투표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변이 없을 경우 최종 통과가 예상됨. 법안이 가결된 이후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하면 올해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임.

2018년 3월 26일

출처 :

<https://chalkbeat.org/posts/co/2018/03/26/child-care-substitutes-are-in-short-supply-a-new-colorado-law-could-make-them-a-little-easier-to-find/>

3. 전국 교사 설문조사 결과, 통합된 유아교육 시스템에 대한 교사 선호도 나타나

유아~초등 3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다 통합된 교육시스템이 교수-학습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유아교육의 공통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이 설문조사는 전국유아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가 수행하였으며, 대략 10~20년의 교사경력이 있는 현직 혹은 전직 K-3 교사 537명이 응답함(K-3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지칭함).

통합된 시스템은 교사의 자격, 보수, 교실 현장을 포함하는 유아교육과 초등과정의 원활한 연계를 의미함. 전국유아교육협회(NAEYC) 이사 로렌 호간(Lauren Hogan)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동등한 연수기회와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통합된 시스템의 모습이라고 설명함. 교사들은 통합된 시스템이 멘토십(mentorship)을 키우고 신입 교사를 도울 수 있으며, 교사 간 상호 교류와 가르침을 증진할 수 있다고 응답함. 또한 통합된 시스템은 교사 연수 과정을 능률화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능력에 맞는 보다 일관된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함.

설문 조사 결과, 통합된 시스템에 대한 선호는 2학년 교사 71%, 3학년 교사 69%, 유아 교사 87%로, 유아 교사의 선호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연구에 따르면, 유아 교사와 K-3 교사들은 어린 연령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수 방법, 지식, 역량을 공유하지만, 자격 요건과 보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교사는 학사 학위와 일반 또는 특수 교사 자격증이 요구되나 유아교사의 자격요건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뉴욕(New York), 텍사스(Texas), 조지아(Georgia)주는 유아교사도 학사학위가 필요하지만 아리조나(Arizona), 델라웨어(Delaware), 오하이오(Ohio)주의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캘리포니아는 유아교사가 속한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요건과 연수 조건이 다름.

연구진은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교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힘. 설문지에는 유아 교사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의미, 교사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의 유용성, K-3 통합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절반 이상은 아동 발달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경험이 가장 유용했다고 밝혔음. 그 외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여러 언어 또는 가정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

2018년 6월 12일

출처 :

<https://edsources.org/2018/many-teachers-favor-a-more-integrated-early-education-system-national-survey-finds/598921>

4.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기업 ‘브라이트 호라이즌’, 교직원들에게 무상교육의 기회제공

국내외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의 영유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이트 호라이즌(Bright Horizons)은 보육교사들의 준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브라이트 호라이즌 회장 스티븐 크라머(Stephen Kramer)는 2만명 가량의 보육교사 중 상당수가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 중에는 기존에 학비상환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초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정규직으로 일을 하며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함.

이는 몇몇 도시와 주에서 보육교사의 교사자격 기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남. 과거에는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근무 할 수 있었지만, 최근 교사의 높은 교육수준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많은 주와 지자체에서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워싱턴에 위치한 여성정책연구소(Institute of Women's Policy Research) 소장 바바라 골트(Barbara Gault)는 이러한 추세를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위상을 높여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고 설명함.

2018년 7월 30일

출처 : <http://nieer.org/news/20000-preschool-teachers-just-got-offered-a-free-education>

❖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등)

1. 주 의회 국책회의에서 정한 유아교육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다

지난 15년간 미국 모든 주(State)에서는 더 많은 유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2002년에는 3개의 주에서만 Pre-K(만 4세 무상교육) 아동 수용률이 30%이상이었음. 오늘날 미국 전체 아동 중 32%가 Pre-K에 다니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유아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것과 별개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있음. 예를 들어 6개의 주는 아직도 만 3, 4세를 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5개의 주의 Pre-K 아동수용률은 5% 미만임. 주 의회 국책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는 모든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의 핵심요소들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주 의회 의원, 입법부 직원, 유아교육 종사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출해낸 결과임. 보고서에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섯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함 : 1) 평등성, 2) 만 4세-3학년 연계교육과정, 3) 효율적인 관리체계, 4) 지역 사회 및 가족 참여, 5) 교사 교육.

2018년 2월 5일

출처 :

https://www.newamerica.org/education-policy/edcentral/new-report-sets-state-ece-priorities/?utm_medium=email&utm_campaign=Early%20and%20Elementary%20Ed%20Update%20436&utm_content=Early%20and%20Elementary%20Ed%20Update%20436&utm_term=CID_bbee5c22a02a6a84232d938612072f1b&utm_source=Campaign%20Monitor%20Newsletters&utm_term=New%20Report%20Sets%20State%20ECE%20Priorities

2. 가정폭력을 경험한 어린이를 돕는 워싱턴 주의 새로운 법안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긴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이후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야기함. 웰스프링(Wellspring) 어린이집의 수석이사 메간 비어스(Megan Beers)는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은 빈번하게 욕을 사용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때리며, 의자를 던지는 등 눈에 띄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함.

웰스프링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의 트라우마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음. 가장 첫 단계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이 문제행동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라는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임. 질문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문제행동을 멈추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원인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임.

웰스프링 어린이집은 워싱턴 주의 보육시설이 유아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자는 법안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음.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어린이들의 퇴소율을 낮추는 방법이라 믿음. 워싱턴 주에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은 취학 후 아이들보다 3배 이상 입소 거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법안을 위해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멜라니 스미스(Melanie Smith)는 보육시설에서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함.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워싱턴 주정부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교육 5개년 계획을 만들 것이며, 트라우마 대처가 가능한 보육시설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예상됨. 자문단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법안의 초안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함.

2018년 3월 22일

출처 :

http://kuow.org/post/new-washington-law-aims-help-children-who-experience-trauma?mc_cid=73c44e7fbc&mc_eid=3037f8c567

3. 미 연방정부 데이터로 살펴보는 미취학 아동 체벌 실태

미 연방정부의 시민 권리 자료(Federal Civil Rights Data)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국공립학교 미취학 아동의 체벌실태를 처음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음.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얼마나 자주 신체적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미국의 19개 주는 아직도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16학년도를 기준으로 한 최신 자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가 처음으로 포함됨.

교육 주간 연구 센터(Education Week Research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약 160만 명 중 1,500명으로 매우 적은 수치를 보임. 하지만 미국대학여성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의 데보라 바긴스(Deborah Vagins)는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강조함.

2015-16학년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백인 어린이 5명 중 2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닌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체벌을 경험한 미취학 아동들의 절반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닌 것으로 보고됨. 흑인과 원주민 학생들 또한 전체 미취학 아동 인구대비 비슷한 비율로 체벌을 받

음. 흑인 어린이들은 전체 미취학 아동의 19%를 차지했으며 이 중 22%는 손이나 매로 맞은 경험이 있다고 함. 인도계 학생들은 약 1%에 불과했지만 그 중 9%가 체벌을 받음. 반대로 라틴계 학생들은 전체 미취학 아동의 29%를 차지했지만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남. 동양계 미국인, 하와이/태평양 거주 또는 다인종 아동들은 전체 미취학 아동의 9%를 차지했으며 이 중 5%가 체벌을 경험함.

체벌을 경험한 미취학 아동의 54%가 남자아이였고, 이들 중 4분의 3 이상이 손 또는 매로 맞았으며, 81%가 학교로부터 한 번 이상 정학을 당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흑인 아이들이 더 자주 정학을 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2018년 5월 8일

출처 :

https://www.edweek.org/ew/articles/2018/05/08/corporal-punishment-and-preschoolers-what-new-federal.html?mc_cid=7f9c439361&mc_eid=3037f8c567

4. 취학 전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소로 새롭게 조명되는 지역 빨래방 및 식료품점

2017년 가을학기에 입학한 일리노이주 유치원생의 75% 정도가 학교준비도 부족이라는 결과는 도움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한 학습지원 방법을 찾게 함. 그 방법으로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재정적 취약 계층에게 다가가는 점점으로 지역에 위치한 빨래방, 식료품점 혹은 보건소 등을 고려하게 됨. U46 교육구의 유아교육 책임자 온데라(Ondera)는 취약 계층을 학교로 데려 오는 대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는 가정 방문이나 학교에서의 만남이 어려운 가족들을 “비전통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것임.

초기 학습을 위한 엘진 파트너십(Elgin Partnership for Early Learning)은 올봄, 던디 애비뉴(Dundee Avenue) 빨래방(JetXpress Laundry)에서 열린 타운보조금으로 언어 프로그램을 시작함. 읽기 자료가 옷을 빨고 말리는 동안 제공되며, 옷을 세고, 다양한 색깔에 관해 이야기하고, 글자를 발견하는 등 빨래방을 좀 더 교육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팁이 나와 있는 포스터도 제공함.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들에게 보육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함.

초기 학습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10년 전에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으로 설립된 파트너십은 U46 학군, 공립 도서관(Gail Borden Public Library), 엘진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Elgin) 등 수십 개의 지역 교육기관이 협력으로 구성됨. 그들은 곧 빨래방에서 다른 언어프

로그그램을 계획 중이며,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식료품점에서도 시행할 방법도 논의 중임.

2018년 8월 24일

출처 :

<http://www.chicagotribune.com/suburbs/elgin-courier-news/news/ct-ecm-u46-kindergarten-readiness-reaction-st-0826-story.html>

5. 연방규정을 통한 법원과 아동복지기관의 정보 공유 의무화

아동복지기관과 법원은 아동, 청소년 및 가정의 필요를 확인하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있음. 이 두 기관은 독립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상이한 정보를 취합하는 문제가 있음.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예산을 정할 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두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함.

앞으로는 연방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법원과 쌍방 데이터를 교환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됨. 아동 사무국(Children's Bureau)은 기술지원 툴킷(toolkit)을 마련하여 법원과 아동복지기관이 자동 쌍방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움을 줌. 이 툴킷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료 교환의 장점과 과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동시에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사례들을 제시함. 법원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출력 문서 및 보관에 대한 의존도 감소
- 문서관리 시스템 내 내용 일관성으로 데이터의 유효성 및 신뢰성 확보
- 법원 문서 자동화에 따른 비용 절감
- 청문과 판결의 적시성에 대한 법원의 성과 측정이 용이
- 관할 지역의 위탁 인구 통계, 위탁 시간, 위탁 인구 동향 보고가 용이
- 아동복지 및 법원 관련 종사자들의 행정 업무 부담 완화
- 변호사, 판사, 보호자, 법정 후견인, 법원 직원 등이 정보의 중앙집중식 권한 소유
- 가족 및 아동에게 주어지는 행정 절차 부담 완화
-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시의적절한 도움 제공

2018년 10월

출처 : <https://cbexpress.acf.hhs.gov/index.cfm?event=website.viewArticles&issuueid=200§ionid=1&articleid=5200>
기타 Toolkit 문서 : <https://www.acf.hhs.gov/cb/resource/data-sharing-courts-child-welfare>

6. 사전 예방을 통한 아동 복지 향상

아동사무국 부위원인 제리 밀너(Jerry Milner)는 “새로운 아동복지시스템을 상상하다”(Imagine a New Child Welfare System)에 출현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가정위탁 등의 복지서비스는 아이들이 이미 학대를 당한 후에 지원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리 밀너(Jerry Milner)는 법률 및 사법제도가 아동복지와 협력하여 가정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가정위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판사 및 아동 복지기관은 아동 가족의 복지를 의사 결정의 최우선에 두어야 함.

밀너(Milner) 박사는 법률 및 사법제도, 아동복지시스템이 아동의 가정위탁시설 이용을 낮출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함.

- 1차 예방에 투자할 것
- 가정위탁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아동과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과 가족의 전반적인 복지에 초점을 둘 것
-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사전 및 사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
- 아동복지사, 변호사, 기관들이 복지수혜자들의 건강 및 회복탄력성을 관리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018년 12월

출처 : <https://cbexpress.acf.hhs.gov/index.cfm?event=website.viewArticles&issueid=202§ionid=1&articleid=5258>
(참고) Imagine a New Child Welfare System 비디오: <https://vimeo.com/276889408>

7. 웹 기반 아동관찰 도구를 이용한 최적화된 학습 환경 조성

지난 2년 동안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조기 학습 네트워크(Early Learning Network) 평가팀은 PreK(만4세)부터 3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아동관찰 도구를 개발, 테스트 하고 있음. 이 도구는 학습 성취도를 올리고 교사-학생 관계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OLOS(Optimizi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Observation System)으로 알려진 이 도구는 전자 평가 및 관찰을 통해 아동의 학업 진도와 교육현장에 대한 실시간 피드

백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에 적합한 권장 사항을 제안함. 이 도구는 아직 테스트 중에 있지만 교사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18년 12월

출처 :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ED/bulletins/223f5b0>

캐나다

일·가정양립		
1	B.C. 주정부, 신규 출산 부모를 위해 확대된 출산육아휴직 방안 발표	49p
2	캐나다 노조,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 보육혜택을 포함	49p
양육지원		
1	앨버타 주, 가족을 잃은 아동들의 우울증 예방 지원	50p
2	BC주, 장애아동의 일상 활동을 위한 첨단제품 도입	51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연방정부와 노바스코샤 주정부, 3500만 달러 규모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예산안 발표	52p
2	온타리오 주정부, 2.5세~유치원 입학 전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계획안 발표	53p
3	뉴브런즈윅 주정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보육서비스 제공 및 관련 종사자 임금 지원 등의 구체적인 보육 예산 정책 발표	54p
4	B.C. 주정부, '보편적 보육'을 목표로 하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예산안 발표	55p
5	B.C. 주정부, 젊은 부모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 등 보육지원 예산 확대 발표	56p
6	퀘벡 주 집권 자유당, 만 4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공약 제시	57p
7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 큰 폭으로 증가	58p
8	PEI, 육아 보조금 인상	58p
9	노바스코샤 주, 부모 대신 아동 돌보는 가족에게 지원금 지급	59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온타리오 주정부, 원주민 아동을 위한 보육 공간 확보 및 원주민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60p
2	앨버타 주,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 적용 기관 확대	61p
3	(관련) 앨버타 주,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 적용 확대를 위한 보육기관 예산지원 지속 확대	62p
4	B.C. 주,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계획 발표 : 다수 보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에 난색 표명	63p
5	사스카추안 주,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가을부터 운영-비장애 아동들도 수강 가능해	64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온타리오 주 초등 교사노조, "동성애 포함된 교과 전달하는 강사 보호할 것"	65p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등)		
1	퀘벡 주 집권 자유당, 부모 육아휴가 일수 증대 및 유연 적용 개정안 발의	65p
2	퀘벡 주, 대마초 사용연령 두고 정당 간 공방	66p
3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비도시지역 부모, 육아에 어려움 겪어	67p
4	에드먼튼 보육시설, 놀이터 이용 시 아동에게 헬멧 착용 요구	67p
5	앨버타 주, 만 12세 이하 청소년 근로기준 제정	68p

❖ 일·가정 양립

1. B.C. 주정부, 신규 출산 부모를 위해 확대된 출산육아휴직 방안 발표

British Columbia(이하 B.C.) 주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 및 휴직 기간을 늘리고 자녀의 사망이나 실종 시 휴가를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4월 9일 발표함. 발표된 내용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진행된다면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휴가와 휴직 기간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먼저 출산 여성은 출산 13주 전부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무급 육아 휴직 기간을 늘려 출산 후 부모는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됨. 또한 자녀가 19개월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3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던 휴가 기간을 대폭 늘려 무급으로는 최대 2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됨. 더불어 자녀가 범죄 등으로 실종된 경우 최대 52주까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됨. 주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B.C. 주는 범죄로 인한 아동 실종이 휴가 내지 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유일한 주였음.

노동부 장관인 해리 베인즈(Harry Bains)는 “이번 개정안이 직업 안정성에 대한 근심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것”이며, 특히 자녀 사망 및 실종에 대한 사항들이 “비극적 사태를 맞이한 부모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장 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함.

B.C. 주정부는 향후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관련 사항들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대표적으로 아픈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쓸 수 있는 휴가 기간이 현재는 8주지만 향후 무급휴가로는 최대 27주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인 만큼, B.C. 주차원에서도 이에 부합하도록 추가적인 개정을 이뤄나가겠다고 함.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공제 및 보조금 혜택 확대와 더불어, B.C. 주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기간 확대 조치가 어떤 반응과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됨.

2018년 4월 10일

출처 :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bc-maternity-leave-1.4612305>

2. 캐나다 노조,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 보육혜택을 포함

매년 10월 7일은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이며, 올해는 “규칙을 바꾸자”라는 주제를 채택함. 캐나다노조연맹은 노동자의 존엄성 확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연맹 대표 하산 유서프는, “모든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캐나다 노조의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캐나다의 불안정한 정세와 복지예산 축소로 인해 노동자 삶의 안정과 존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정부가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함.

- 최저임금 15불 회복
-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
- 노동자의 연금과 혜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파산법 개혁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양질의, 공공의, 보편적이며, 저렴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 예산 편성
- 진보적 정책을 통한 석탄발전 탈피

2018년 10월 4일

출처 : <http://canadianlabour.ca/news/news-archive/decent-work-priority-canadas-unions>

❖ 양육지원

1. 앨버타 주, 가족을 잃은 아동들의 우울증 예방 지원

앨버타 주는 사망환자 가족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해온 상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캘거리 프로그램에 50만 불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음.

“아이들과 가족들이 홀로 슬퍼하도록 남겨둬선 안됩니다. 호스피스캘거리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괴로워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슬픔에 빠진 아이들을 돕는데 필수적이고 아이들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앨버타 주 보건복지부 장관 사라 호프만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 지원금은 살해, 자살, 사고, 약물남용, 또는 급작스런 의료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아동, 청소년들, 부모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운영에 쓰이게 됨.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경우 상담사들은 우울증 아동의 가족들을 면담하기도 함.

호스피스캘거리센터에서는 내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상담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사들이 직접 학교, 가정, 병원들을 방문하기도 함. 호스피스캘거리는 앨버타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5년 동안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족상실로 인한 슬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온 기

관이며, 작년 한 해 564명의 아동, 416명의 청소년, 1,166명의 성인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함.

2018년 11월 15일

출처 : <https://www.alberta.ca/release.cfm?xID=62023F67B37C4-EA42-463F-0530E6BB0D9F3D90>

2. BC주, 장애아동의 일상활동을 위한 첨단제품 도입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아동발달센터는 11월, 장애아동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 및 가족들과 더욱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7가지 제품을 비치함. 빅토리아대학 캔어시스트 (CanAssist)팀은 BC주 아동발달 관련부서와 함께 아동발달센터 내에서 장애아동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기능을 선별함.

- 게임 컨트롤러: 신체적 제약이 있는 아동들도 인기 비디오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
- 공 던지기 기능: 다른 사람들이나 강아지와 함께 공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화기능 앱: 아이들이 태블릿pc 화면의 그림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도록 도움.
- 모바일 음악치료 키트: 악기를 다루기 어려운 아동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스스로 작곡, 연주, 및 합주를 가능하도록 함.
- 룰렛: 돌아가는 그림판을 이용한 놀이 활동으로 장애우들의 생활에 필수적 기술인 장애인 스위치 사용법을 익히도록 함.
- 무선조종 자동차: 시판되는 제품을 사용할 만큼 손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함.
- 로봇팔: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집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

BC주의 아동가족부 장관은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기술에 감동을 받았다”며 “이러한(기술)혁신이 아이들이 장애의 제약을 딛고 사회 내에서 보다 많은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임. 이 프로젝트는 BC주정부에서 150만 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됨.

2018년 11월 16일

출처 : <https://news.gov.bc.ca/releases/2018CFD0098-002206>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연방정부와 노바스코샤 주정부, 3500만 달러 규모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예산안 발표

연방정부와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정부가 영유아 조기교육 및 보육 분야에 대한 총 3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계획을 발표함. 1월 10일 연방정부의 장-이브스 듀클로스(Jean-Yves Duclos) 가족아동 및 사회발전부 장관과 노바스코샤 주의 스테판 맥닐(Stephen McNeil) 수상 및 자크 처칠(Zach Churchill) 교육 및 영유아발달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의 양자협약에 대한 발표를 함. 이 양자협약은 2017년 6월 12일 체결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 간의 다자간협약(향후 11년간 총 75억 달러 투입)을 뒷받침하는 성격의 양자협약임. 향후 노바스코샤 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예산투입이 실제 어떠한 성과들을 가져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양자협약에 따르면 3년 동안 총 3500만 달러의 예산이 보육 요구도가 높은 가정들을 위해 영유아 조기교육 및 보육의 질과 이용가능성(정원증대)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탄력적인 시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투입될 예정임.

■ 협약에 따라 예상되는 구체적 예산 활용안은 다음과 같음.

- 보육센터 요구도가 높은 지역에 최소 15개 이상의 보육센터 설립.
- 최소 500명 이상의 보육 수용정원 증대. 이 중 절반 이상을 교외지역 및 취약지역 아동에게 배정.
- 가정보육시설 수 35% 이상 증대. 이 정원의 절반 이상은 영아보육을 위해 배정.
- 1600명 이상 아동의 보육비용 절감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가능성 증대. 이를 통해 노바스코샤 가정에게 매년 약 500만 달러의 보육비 부담 경감 예상.
- 보육서비스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조기교육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2018년 1월 10일

출처 :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18/01/government_of_canadaandgovernmentofnovascotiaaremakingearlylearn.html

2. 온타리오 주정부, 2.5세~유치원 입학 전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계획안 발표

온타리오 주정부가 2020년부터 2.5세 아동이 유치원(kindergarten)과정에 입학하기 전까지 인가받은 종일제 보육기관에서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3월 27일 발표함. 케이틀린 윈(Kathleen Wynne) 온타리오 주 수상은 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과 함께 토론토시에 위치한 넬슨 만델라 공원 공립학교에서 보육에 관한 추진사항들을 발표함.

주정부는 향후 3년간 총 22억 달러를 보육에 새로 투입할 예정이며 이 중 9억3천만 달러를 2020~21회계연도에 배정해 2.5세 이상 아동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상보육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힘. 이를 통해 아동 1명당 1만7000달러의 보육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해당 정책은 2020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됨. 또한 3년간 1억6250만 달러를 보육제도 운영 개선에 활용하여 보육비 감소 등에 활용함.

우선적으로 2018~2019회계연도에는 9000만 달러를 투입해 0세~4세 아동이 보다 확대된 보육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이 중 5300만 달러는 4200명에 대한 보육비 보조금, 2600만 달러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기초 지원금으로 할당함.

지난 2월 20일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이하 B.C.)주정부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및 대규모 보육비 공제 등을 통해 보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리고 3월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계획안을 발표하게 됨.

이러한 변화들은 연방정부가 보육제도 개선을 위해 각 주정부에게 대규모 보육개혁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협약을 맺게 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토론토시를 포함한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도 보육비가 가장 비싼 지역이었음. 이번 주정부의 조치는 2.5세 이상 아동의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돌봄의 필요가 높은 영아기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존재함. 향후 온타리오 주의 정책이 어떤 결과와 반향을 가져오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됨.

2018년 3월 27일 ~ 28일

출처 :

<https://news.ontario.ca/opo/en/2018/03/more-child-care-more-choice.html>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ontario-liberals-daycare-election-budget-1.4594803>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ntario-liberals-pledge-free-preschool-child-care-starting-in-2020/?cmpid=rss>
<https://www.thestar.com/news/queenspark/2018/03/27/ontario-budget-to-fund-free-child-care-for-pre-schoolers-by-2020-as-part-of-22-billion-plan.html>
<https://timeforchildcare.ca/2018/03/27/canadas-child-care-advocacy-organization-congratulates-ontario-for-free-child-care-plan/>
<http://www.childcareontario.org/press>

3. 뉴브런즈윅 주정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보육서비스 제공 및 관련 종사자 임금 지원 등의 구체적인 보육 예산 정책 발표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 브라이언 갤런트(Brian Gallant) 수상은 1월 11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보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함.

연소득 37,500달러 이하인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으로서 뉴브런즈윅의 '영유아교육센터(early learning centre)'에 취원하는 경우에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존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계기관이 '영유아교육센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함.

처음 인증 받는 기관은 세인트존(Saint John)과 에드먼스톤(Edmundston) 지역에 올해 3월 들어설 것으로 보임. 주정부 계획에 따르면 주 전역에 무료 보육 및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은 2019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2014년 주 총선에서 자유당은 당시의 지원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였으며, 현재 뉴브런즈윅 정부는 매년 1500만 달러를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고 있음.

주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절반이 인증 받는 것을 목표로, 향후 2년간 총 470만 달러의 교부금을 시설 개선 목적으로, 매년 750만 달러를 인증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한 교부금으로 편성할 예정임. 또한 주정부는 2018년 말까지 보육시설 정원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부모들이 인근 지역 보육센터에 여석(餘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리가 없을 경우 대기자명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더불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28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숙련된 교사의 경우 현행 시간당 16달러에서 시간당 19달러 수준으로 2022~2023회계 연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함. 일각에서는 뉴브런즈윅 주정부가 퀘벡이나 매니토바 주와 유사한 정부 감독 하의 부분지원형 모델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곧 개최할 것이

라는 소식도 있는 상황임. 향후 뉴브런즈윅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정책의 실제 진행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에 귀추가 주목됨.

2018년 1월 11일

출처 : <http://www.cbc.ca/news/canada/new-brunswick/changes-daycare-new-brunswick-1.4482691>

4. B.C.주정부, '보편적 보육'을 목표로 하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예산안 발표

- 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육수당 지급 및 보육비 공제
- 새로운 시설 확충과 교사 처우개선, 교사 채용에도 예산투입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이하 B.C.) 주정부가 2월 20일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함. 이 중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2017년 5월 총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의석수 1석 차이로) 녹색당과 연정을 이뤄 집권한 신민당(NDP) 정부는 2018년 2월 20일 '2018년 예산(Budget 2018)'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예산계획을 발표함. 신민당은 선거 당시 퀘벡 스타일의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번 예산안은 그것과는 다른 형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퀘벡 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보편적 공공 재정지원 보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2018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예산의 특징은 3년간 총 10억 달러를 투입해 총 22,000명의 보육 정원을 늘리고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및 대규모의 보육비 공제를 통해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면서 새로운 보육교사 채용 및 교사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먼저 신민당 정부는 2020년까지 매월 최대 1,2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가용 보육 수당(Affordable Child Care Benefit, ACCB)'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함. 이 수당은 86,000 가정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가정의 소득수준과 연동되어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임. 이 수당은 시설운영자에게 지급되어 보육료를 낮추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 4월 1일부터보육비 공제 제도를 시행함. 이를 통해 50,000 가정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음.

- 영아/유아(infant/toddler)를 위한 그룹 보육: 최대 350달러/월
- 영아/유아(infant/toddler)를 위한 가정 보육: 최대 200달러/월
- 3~5세 아동을 위한 그룹 보육: 최대 100달러/월
- 3~5세 아동을 위한 가정 보육: 최대 60달러/월

B.C.주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됨.

- 영아를 양육하는 연소득 45,000달러의 한부모 가정)
 - 월 보육비 1,250달러라고 가정.
 - 매달 350달러의 보육비 공제 받음.
 - 매달 900달러의 ACCB 보육수당 제공 받음.
 - 총 보육비 지원 혜택은 1,250달러.
 - 따라서 실제 부담하는 보육비는 \$0/월
- 1명의 영아와 1명의 3세 아동을 양육하는 연소득 74,000달러인 두 부모 가정)
 - 월 보육비 2,050달러라고 가정.
 - 매달 450달러의 보육비 공제 받음.
 - 매달 1,492.40달러의 ACCB 보육수당 제공 받음.
 - 총 보육비 지원 혜택은 1,942.40달러.
 - 따라서 실제 부담하는 보육비는 \$107.60/월

2018년 2월 20일 ~ 27일

출처 : <http://bcbudget.gov.bc.ca/2018/default.htm>

<http://www.childcarecanada.org/documents/child-care-news/18/02/bc-commits-1-billion-launch-%E2%80%98universal%E2%80%99-child-care-initiative>

<https://www.energeticcity.ca/2018/02/b-c-budgets-housing-child-care-measures-good-business-premier/>

5. B.C. 주정부, 젊은 부모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 등 보육지원 예산 확대 발표

British Columbia(이하 B.C.) 주정부는 24세 미만 젊은 부모에 대한 지원금 등을 포함해 보육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가족발전부 장관인 캐트린 컨로이(Katrine Conroy)와 보육부장관인 카트리나 첸(Katrina Chen)은 향후 3년간 젊은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3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함. 이들은 “12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가족을 이루게 된다면 튼튼한 토대를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면서 “이

것이 바로 젊은 부모들이 학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보육비용을 보조해 주는 ‘젊은 부모 프로그램(Young Parent Program)’을 운용하며 지원을 확대하게 된 이유”라고 강조함.

이 프로그램은 20세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24세 미만의 부모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보육시설 비용으로 월 최대 1,500달러를 지원함. 한편, 주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선거공약이었던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 지난 4월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기간 확대 조치에 이어, 또다시 보육비용 보조금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 B.C.주의 행보가 어떤 반응과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됨.

2018년 5월 18일

출처 :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government-childcare-young-parents-may-2018-1.4669327>

6. 퀘벡 주 집권 자유당, 만 4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공약 제시

오는 10월 1일 주(州) 총선거를 앞두고 6월 2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퀘벡 주 자유당 전당대회(Liberal convention)에서 주 수상인 필립 쿠일라(Philippe Couillard)는 만 4세 아동 무상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약을 발표함. 재무부장관인 카를로 리타(Carlos Leitao)는 “우리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2억 5천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이 공약을 만들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발표함.

10월 1일 총선거를 앞둔 가운데, 5월 31일~6월 10일 사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원내 제3당인 퀘벡미래연합당(Coalition Avenir Quebec, 이하 CAQ, 22석)이 37%를 얻으면서 집권당인 자유당(70석)의 28%, 원내 제2당인 퀘벡당(Parti Québécois, 30석)의 19%를 누르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음.

지지율이 부진한 가운데 자유당은 금번 만 4세 아동 무상보육 공약 등으로 인해 결국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음. 총선거를 4개월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진 가운데 발표된 이번 만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 공약이 향후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2018년 6월 2일

출처 : <https://globalnews.ca/news/4249028/liberals-free-daycare-quebec/>

<https://globalnews.ca/news/4272173/new-quebec-poll-suggests-coalition-avenir-quebec-has-healthy-lead/>

7.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 큰 폭으로 증가

비과세 아동수당이 물가 상승폭에 맞춰 인상됨. 5세 이하 아동수당은 6,400달러에서 6,496달러로, 6~17세 아동수당은 5,400달러에서 5,481달러로 인상됨. 캐나다의 양육수당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형태로 연소득이 30,450 달러 미만일 경우 가장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트뤼도 총리는 20일 “아동을 양육하는 현실이 양육 혜택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언급하며, 수당 인상의 배경으로 캐나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제시함. 2016년 트뤼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기존의 세금 공제 및 양육 혜택 프로그램들을 대체하였고, 이전보다 “더 단순한 방식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정부에서 홍보한 바 있음. 연방정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370만 가정에 233억 달러가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3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함.

일부에서는 아동수당으로 인해 부모들의 근로동기가 낮아지고, 보호소 거주 가정이나 원주민처럼 세금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아동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비판의 소리를 내기도 함.

2018년 7월 19일

출처 : <https://globalnews.ca/news/4341218/canada-child-benefit-2018-amount/>

8. PEI, 육아 보조금 인상

프린스에드워드(PEI: Prince Edward Island) 지역 주민을 위한 육아보조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PEI 주정부가 발표함. 학령기 아동과 돌보미 임금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육아 지원금을 전액 받는 가정의 수도 늘 예정임.

PEI 가족복지부 장관 티나 먼디는, “육아는 가계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으며 실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육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길 원하고, 이번 지원금 인상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라고 지원금 인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함.

지원금 인상 혜택은 PEI지역 200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돌보미 고용지원은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하루 20불에서 30불로, 2세 이상의 경우 20불에서 25불로 각각 인상.
- 등교전이나 방과후 반일 돌봄의 경우 10불에서 15불로, 전일 돌봄은 20불에서 30불로 각각 인상.
- 소득에 따른 전액 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족은 720가구에서 794가구로 늘어날 예정.

이러한 지원금 변경정책은 2017년 가을에 실시된 육아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2018년 10월 12일

출처 : <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news/more-help-available-child-care-costs>

9. 노바스코샤 주, 부모 대신 아동 돌보는 가족에게 지원금 지급

노바스코샤 주는 부모 대신에 아동을 보살펴 주는 조부모 등의 다른 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함.

대안적 가족양육(Alternative Family Care)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확대가족 등의 양육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주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배치되는 것을 막고, 부모들이 다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아동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 의해 돌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됨.

한 명의 아동을 돌보는 가족양육자들은 첫 달에는 500불을 받게 되고, 아동 한 명이 추가될 때 마다 250불이 추가되어 1,000불까지 받을 수 있음. 둘째 달부터 아동 한 명당 250불의 보조금을 받음.

대안적 가족양육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알 수 있으며, 노바스코샤 주정부는 매년 400명의 아동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18년 12월 18일

출처 : <https://novascotia.ca/news/release/?id=20181218002>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온타리오 주정부, 원주민 아동을 위한 보육 공간 확보 및 원주민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온타리오 주가 원주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원주민 문화 관련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시에 원주민 아동들을 위한 보육 공간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2월 9일 발표함.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하는 온타리오 주 교육부장관 인디라 나이두-해리스(Indira Naidoo-Harris)는 토론토시에 위치한 ‘퍼스트 네이션 학교(the First Nations School)’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함.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매니저 및 원주민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보육 및 가족 프로그램에 향후 2년간 7,00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임. 이 예산들은 15개 협력 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확대에 이용될 예정임. 이에 대해 온타리오 주 원주민 협력 센터 연합(Ontario Federation of Indigenous Friendship Centres)의 상임이사인 실비아 매러클(Sylvia Maracle)은 이번 조치가 온타리오 전역의 원주민 도시 거주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원주민 아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투자 효과를 강조함.

한편 토론토 시의 퍼스트 네이션 학교 업그레이드를 위한 1,150만 달러 규모의 예산 계획도 발표됨. 퍼스트 네이션 학교는 유치원의 주니어 과정부터 8학년까지의 커리큘럼에 원주민에 관한 지식정보를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9학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원주민 아동에 대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원주민에 대한 내용의 확충, 시설 이용의 편의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상과 같은 원주민 아동 보육 정원의 증대와 문화적으로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활동은 2016년 5월 발표된 ‘원주민과의 화해를 위한 온타리오 주의 약속’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저니 투게더(The Journey Together)”의 일환임. 교육부 대변인인 헤더 어윈(Heather Irwin)은 “저니 투게더를 통해 협력 관계에 있는 퍼스트 네이션 및 원주민 조직들이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게끔 영유아 프로그램을 잘 조직화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향후 원주민 언어와 문화의 건강한 보존, 전수를 위해 원주민 언어 사용자들과 어른들이 영유아 교사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20세기 중반기까지 퍼스트 네이션과 원주민들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탄압하고 배척했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저니 투게더’ 활동이 원주민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으로

보다 구체화되는 가운데 온타리오 주의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2018년 2월 9일

출처 :

<http://www.cbc.ca/news/indigenous/ontario-funding-indigenous-child-care-programming-1.4529167>

2. 앨버타 주,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 적용 기관 확대

신민주당(NDP)이 집권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을 100개 더 늘려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함. 4월 25일 추가로 100개 기관을 발표함으로써 ‘2016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처음 선정된 기존 22개 기관과 더불어 총 122개 기관이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앨버타 주 전역에서 총 7,200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개별 교육보육기관에 달려있음. 프로그램 적용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행해야 함. 이번 조치는 향후 3년간 앨버타 주의 “이용 가능한 보육 프로그램(affordable child-care program)” 확대를 위해 총 1억3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연방정부와 앨버타 주정부 사이 양자협약 이행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 주정부는 지난해 1000만 달러 외에 45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할 예정임.

현재 앨버타 주에는 총 880여개의 보육 프로그램 운영 인증기관이 있으며 총 수용아동 정원은 50,0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유가 하락으로 인해 산유주(產油州)였던 앨버타 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지 수 년이 흐른 상황에서 높은 보육비용은 가계와 주 경제 전체에 있어 큰 부담요인이었음.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 적용을 받는 기관에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들은 프로그램 시행 전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함. 지난 11개월간 딸을 해당 기관에 보내왔던 브리어나 베어(Brianna Vere)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의 질은 똑같이 유지되면서도 보육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함.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 보육비는 두 번째 몰기지(mortgage)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갈라진 틈사이로 추락하듯이 소득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함. 주 수상인 레이철 노틀리(Rachel Notley)는 “이번 조치를 통해 7,300여 개의 이용 가능한 보육 정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450개의 보육 관련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그보다 많은 사회생활

복귀 기회가 제공되었다.” 함.

향후 앨버타 주의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의 확대 및 시행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보육 만족도 향상 여부와 경제여건 전반의 활성화 촉진 여부 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2018년 4월 25일

출처 :

<http://www.cbc.ca/news/canada/edmonton/day-care-alberta-25-funding-rachel-notley-ndp-1.4635334>

3. (관련) 앨버타 주,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 적용 확대를 위한 보육기관 예산 지원 지속 확대

신민주당(NDP)이 집권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는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지난 4월 25일에는 기존 22개 기관에 이어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 적용을 받게 될 100개 기관을 추가로 발표하여 수혜 아동 및 부모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번 5월에는 앨버타 주 에드먼튼(Edmonton) 북서쪽에 위치한 포트 맥머리(Fort McMurray) 지역 보육기관들에게 18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금번 지원은 연방정부와 앨버타 주정부 사이의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이하 ELCC)’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뤄지는 것임. 5월 18일,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중 한 곳(Tiny Toes Daycare)을 방문한 다니엘 래리비(Danielle Larivee) 아동서비스부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양질의 이용 가능한 보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앨버타 주의 모든 가족들이 하루 25달러 보육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

앨버타 주정부에 따르면,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은 월 평균 425달러 정도의 보육비 부담을 덜게 되고, 400여명의 보육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1,400명 이상의 부모들이 직장을 얻는 등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앨버타 주가 시행하는 ‘하루 25달러 보육료’ 프로그램의 확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예산부담에 따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8년 5월 18일

출처 :

<http://www.fortmcmurraytoday.com/2018/05/18/local-daycares-get-18-million-to-support-25-per-day-spaces>

4. B.C. 주,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계획 발표: 다수 보육기관, 프로그램 참여에 난색 표명

British Columbia(이하 B. C.) 주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B. C.주 총선거 당시의 공약이었던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며 프로그램 참여 기관 모집에 나섰지만, 상당수 보육기관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2월 B. C. 주정부는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육비 공제 제도 시행을 발표했고,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번 6월에 발표된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해당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테스트 성격을 가지며, 우선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18개월간 시행될 예정임. 주정부에서는 최대 1,800여명 정도가 파일럿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을 기대하며 보육기관의 참여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 프로그램 참여기관에 지원한 아동의 가정에서는 하루 최대 10달러, 한 달 최대 200달러까지의 보육료 부담만을 지게 되며 연소득 45,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비 부담이 전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정부는 발표하였음. 이에 대해 ‘보육 옹호자 연대’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와 학부모 등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음.

그러나 보육기관의 참여원서 제출 시한인 7월 9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기관들은 해당 프로그램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6월 말을 기준으로 아동가족발전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에 원서를 제출한 기관은 30개에 불과함. 기관들이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는 다양함.

- 정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각종 서류작업이 부담스럽다고 함. 일례로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밴쿠버의 웨스트 포인트 그레이 어린이집(West Point Grey Daycare)의 경우에도 시설 책임자가 각종 서류작업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포기했다고 응답함. 이 경우 서류작업에 대한 부담은 현재 재원중인 아동과 가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아동과 가정에 대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이유를 밝힘.
-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의 예산운영 관련한 각종 장부를 공개하고 점검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관별 요건과 카테고리 등이 ‘너무 세세하거나’, ‘복잡하거나’, ‘요구 사항이 많은’ 등의 이유로, 정작 각종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함.

- 현재 각 가정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 등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보편적 보육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 라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음.

2018년 6월 8일 ~ 28일

출처:

https://www2.gov.bc.ca/assets/gov/family-and-social-supports/child-care/running-a-daycare-or-preschool/pt_stakeholder_faq.pdf
<https://www.thestar.com/vancouver/2018/06/08/bc-to-start-200-a-month-child-care-pilot-to-prepare-for-universal-system.html>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childcare-pilot-program-to-offer-200-per-month-child-care-1.4727489>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vancouver-child-care-centre-unhappy-it-doesn-t-qualify-for-new-government-subsidies-1.4638829>

5. 사스카추안 주,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가을부터 운영-비장애 아동들도 수강 가능해

사스카추안 주(州)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화교육 프로그램을 올가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사스카추안 주의 3~4세 아동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 및 보육 협약(Canada-Saskatchewan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Agreement, 2017-2020)을 맺고 4천1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 수화교육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청각장애가 없는 아동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사스카추안 주 청각장애인 협회 길리스 대표는 청각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화 학습이 아동의 발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한편, 사스카추안 주정부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병원을 중심으로 영아청각 검진 프로그램 운영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함. 길리스 대표는 검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며, 아동들의 청각이 손상되어도 2~3세가 될 때까지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청각 장애 진단 후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16-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되기도 했으며 영아청각검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함.

2018년 7월 27일

출처 :

<https://www.cbc.ca/news/canada/saskatchewan/early-learning-preschool-program-deaf-hearing-impaired-1.4765221>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온타리오 주 초등 교사노조, “동성애 포함된 교과 전달하는 강사 보호할 것”

온타리오 주 최대 교사 노동조합인 온타리오 초등교사연합(ETFO)의 대표 샘 해먼드는 8월 13일 노조 정기모임에서, 개정된 성교육교재를 사용하는 강사들에 반발하는 학부모와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함. 캐나다 연방정부는 1998년 만들어진 기존의 성교육 커리큘럼을 대체하기 위해 2015년에 보다 진보적 내용의 개정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발하였고, 이 내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학교 측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함.

한편, 온타리오 주 수상인 더그 포드는 지난 6월 총선에서, 연방정부가 내놓은 개정판 성교육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음.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 개정판 성교육 교재 사용에 대해 항소 할 것이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내용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새로운 교과과정을 지지하는 강사들은 개정된 성교육 교과과정이 온라인을 통한 이성교제의 안전과(성관계)동의 등 자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함. 반면, 보수적 입장의 반대자들은 개정판 성교육 내용이 성 정체성, 동성혼, 자위행위 등의 문제에 치중되어 학생의 연령에 적절치 않으며, 학교가 아닌 부모가 그런 내용을 교육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함.

2018년 8월 13일

출처 :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ntarios-largest-teachers-union-says-it-will-defend-educators-who/>

❖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등)

1. 퀘벡 주 집권 자유당, 부모 육아휴가 일수 증대 및 유연 적용 개정안 발의

퀘벡 주 집권 자유당이 3월 22일 기존의 부모 육아휴가 일수를 늘리고 보다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의회에 발의함. 직장인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지원하는 기존의 ‘퀘벡 부모 보험 플랜(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시킨 이 내용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모들은 최대 3년 안에 추가적인 10일의 육아휴가를 고용주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 또한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컨대 쌍둥이나 세쌍둥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모 육아휴가 기간에 5주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존 55주에서 60주까지 육아휴가 사용기간이 늘어남.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5주가 늘어 입양 부모 육아휴가 기간은 기존의 32주에서 37주로 늘어남. 이에 대해 퀘벡 주 고용 및 사회적연대부 장관(Minister of Employment and Social Solidarity)인 프랑 블레스(François Blais)는 육아휴가 제도가 출산한 여성의 회복에 본질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양의 경우에는 출산보다 기간이 짧다고 설명함. 새로운 개정안에는 육아휴가를 2년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임.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육아휴가 수당분 전체에 있어서의 증가는 없기 때문에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봄.

2018년 3월 22일

출처 :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promises-more-flexibility-extra-weeks-of-parental-leave-for-families-1.4588025>

2. 퀘벡 주, 대마초 사용연령 두고 정당 간 공방

퀘벡미래연합당 대표 프랑수아 르고는 8월 24일 수상 선거유세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퀘벡 주 내 대마초 사용 가능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함. 캐나다에서는 10월 17일부터 기호용 대마초(recreational pot)가 합법화되면서 18-19세 청소년도 법적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 르고의 공약대로라면 퀘벡 주는 캐나다 내에서 가장 높은 대마초 사용연령이 적용되는 것.

“대마초가 청소년에게 끼칠 해악은 상당한 것이며,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 주 수상인 자유당 필립 쿠야 대표는 르고의 발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사용연령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는 “18세이면 투표 참여가 가능한데, 합법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결정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르고에게 반문하며, 18-21세의 청년들이(금지한다고 해서) 대마초를 구입하지 못 할 거라 믿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임.

캐나다 지방선거는 다른 주에서도 대마초 합법화에 영향을 준 바 있음. 온타리오 주 진보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정부는 이달 초 정부소유 매장에서만 판매할 것이라는 이전의 계획을 바꾸어 내년 봄부터 민간소유 상점에서 판매할 계획을 채택함.

2018년 8월 24일

출처 :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nabis/article-quebec-parties-spar-over-legal-age-for-cannabis-use/>

3.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비도시지역 부모, 육아에 어려움 겪어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지방정부와 보육시설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이용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운영되는 보육시설과 교통수단의 부족을 겪고 있었음. 무엇보다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의 부족문제는 시급한 사안으로 드러남.

지난 5월 B.C.지방정부는 주 전 지역에서 표집한 62명의 공무원과 보육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보육 개선요구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후 7월에는 동북부 비도시지역인 피스리버에서 근무하는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나타났음. 대부분의 참여자(92%)는 이용료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양질의 보육시설을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함. 어떤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아동의 숫자가 너무 많아 자격증이 없는 비인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

다음으로 나타난 큰 어려움으로는 보육교사의 부족이었으며, 응답자들은 보육교사의 급여가 낮은 것을 그 이유로 들었음. 피스리버 지역의 보육시설 운영자들은 임업 및 석유산업 등 임금이 높은 다른 업종과의 경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의 산업특성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탄력적인 운영 시간, 그리고 학령기 아동들의 등학교 교통수단 제공 등의 필요도 발견되었음.

2018년 8월 30일

출처 :

<https://vancouversun.com/news/local-news/child-care-report-reveals-unique-challenges-for-parents-in-rural-communities>

4. 에드먼튼 보육시설, 놀이터 이용 시 아동에게 헬멧 착용 요구

앨버타 주 에드먼튼의 한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때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함. 이 정책은 부모들은 자녀의 헬멧을 구입하고 아동의 발육에 맞춰 계속해서

새로운 헬멧으로 교체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대해 20년 동안 이 보육시설을 운영해온 베일스티뉴 원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아동에게 필요한 것들이 달라졌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을 비롯한 몇몇의 아동은 주변 환경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임.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세발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위해 사이즈를 조절하는 헬멧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뒤에 있던 아이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사고를 언급하며 헬멧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함. 이 시설에는 사다리나 구름사다리도 없으며, 바닥은 고무재질을 사용하고 있음. 한편, 앨버타 주의 규정으로는 아동들이 자전거가 함께 있는 곳에서는 헬멧을 착용시키되 놀이터에서는 기구에 걸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놀이터에서의 자유로움을 주장하는 아동교육가 머릭은 헬멧 착용은 과잉보호이며, 오히려 아동들이 위험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그는 자녀들 주변을 맴도는 정도였던 헬리콥터 부모에 이어 자녀들의 길에 걸릴만한 모든 것을 치워버리는 잔디깎이 부모(lawnmower parents)가 나타났음을 비판함.

2018년 9월 19일

출처 : <https://globalnews.ca/news/4466967/edmonton-daycare-playground-helmet-policy/>

5. 앨버타 주, 만 12세 이하 청소년 근로기준 제정

앨버타 주는 고용주, 부모, 학생, 자원봉사 단체, 노동자 지원협회, 농장주 모임 등 100여명의 개인과 단체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근로기준을 만들었음. 2019년 1월 1일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존의 조항들을 개정함.

앨버타 주 노동부 장관 크리스티나 그레이는 “12세 이하 청소년의 근로에 관한 이러한 명확한 규정들은 아동들이 처음 일을 하면서 얻게 될 값진 경험을 보장해 주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고용주들은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감독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 내의 모든 위험요소들을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
- 12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영화, 연극, TV와 같은 예술활동에 한정해 취업할 수 있으며, 보

호자의 동의하에 정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단, 자원봉사나 잔디 깎기, 시설, 농장근로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는 제외하기로 함.

- 13-14세 청소년은 상점, 식당(서빙 및 설거지) 등에서 허가증과 부모의 동의 하에 일할 수 있음.
- 15-17세 청소년은 업무 감독의 지도하에서 대부분의 직업에서 일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제한이 있음.

2018년 12월 7일

출처 : <https://www.alberta.ca/release.cfm?xID=6219764723C46-C984-BF5A-F0BD4F1363F66D6B>

프랑스

일·가정양립		
1	직장 보육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 직장 보육원, 장소 부족에 해결책	71p
2	아버지의 의무 육아휴직을 위한 160인의 탄원	71p
3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육원 정책	72p
4	아이들을 정서와 행동 면에서 더 안정되도록 해주는 보육원	73p
5	프랑스의 줄어든 육아휴직 신청 비율	74p
양육지원		
1	백신접종 의무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	75p
2	가족 보조사(assistant familiale)	75p
3	사회연대보건부의 새로운 육아 지원 정책	76p
4	프랑스, 10가구 중 8가구가 희망하는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6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연합 보육원의 미래는 지원방식에 달려있다.	77p
2	보육비 규정 법령 개정	78p
3	프랑스사회보장보험의 2019년 예산이 당신을 위해 바뀌는 것	78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설립 지자체에 대한 보상	79p
2	보육시설 공간 : 지자체는 곧 모든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게 된다?	80p
3	의미 있는 투자인 ‘부모 보육시설’	80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다운사이징, 근무 조건 등에 대한 툴루즈 시 시립 보육원 직원들의 시위	81p
2	파리 시장의 초대로 시청에 모인 탁아모	81p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보고서 등)		
1	육아방식에 대한 통계(2017년 국립 영유아 연구소 연간 보고서)	82p
2	보육원 식당의 유기농 메뉴	83p
3	6월 1일 부로 바뀌는 보육원 이용관련 법안	83p
4	백신 필수접종이 적용되는 첫 학기의 시작	84p
5	국회에서 채택한 ‘가정교육을 목적으로 한 폭력’에 대한 법	84p
6	국제아동권익의 날 : 모든 이들의 결집	85p

❖ 일·가정 양립

1. 직장 보육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 직장 보육원, 장소 부족에 해결책

보육 방법을 찾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 언제나 골칫거리임. 가족고령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원은 23만 명에서 50만 명의 부족분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직장 또는 여러 직장이 함께 운영하는 보육원은 너무도 부족한 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 보육원을 보완 할 수 있음. 보통 이러한 보육원은 15명~60명 정도로,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8.75%, 38,000곳임.

직장 보육원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또는 여러 회사)의 직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임. 기업 내 부모를 위한 감시기구(Observatoire de la parenté en entreprise)의 Catherine Boisseau Marsault 이사는 “이 시설들은 젊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평가함.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간, 보육원에 대한 회사 간 연계가 프랑스 전역에서 확산되었음. 또한, 그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공공 보조금 확대가 직장 보육원의 확산에 도움을 주었고 그것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 관점에서 볼 때 큰 이점이다.”라고 강조함.

2018년 4월 25일

출처 :

<http://www.parents.fr/bebe/mode-de-garde/la-creche-inter-entreprises-comment-ca-marche-79661>

2. 아버지의 의무 육아휴직을 위한 160인의 탄원

이번 주 목요일 에두아 필립 총리는 ‘10일간의 아버지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 휴직을 재조정’하는 아버지 육아휴직 개혁을 연기함. 이에 평등한 남녀휴직과 여성 부모권리를 위한 모임(P.A.F)은 아버지 육아휴직의 연장은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됨을 강조함.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이미 유명인을 포함하여 160명이 서명함.

프랑스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16주간의 출산 및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중 8주는 의무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그리고 남성 근로자는 11일의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음. 그러므로 동일한 조건을 가졌을 때 고용주는 임금을 보장받는 긴 육아휴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여성보다는 남성 근로자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실제로 이러한 프랑스의 노동법은 고용 및 승진

기준에 편향을 줌으로써 직장 내 불평등과 가부장적인 가정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지적을 받음.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 해당 여성은 분명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승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임. 또한 30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은 남성보다 파트 타임으로 일할 확률이 9 배 높으며 그 결과 퇴직연금납입금 또한 적어짐. 평균 퇴직 연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40퍼센트 가량 낮음.

양 부모 모두에게 동일한 휴직기간을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부모를 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음.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지속될 것임. 육아휴직이 의무화된 포르투갈이나 2010년부터 9개월의 출산 휴가가 부모에게 균등하게 배분된 아이슬란드의 경우 프랑스의 결정에 시사 하는 바가 큼. 주변국의 사례와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생각할 때 개혁은 실행 가능한 것이며 동시에 필요한 것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현재 10일간의 아버지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 휴직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의 요청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이러한 반대는 예산의 문제일 수 있음. 산모에게 보장된 6주간의 출산휴가 수준으로 아버지의 휴직을 보장해 주기 위해 12억 유로가 더 필요하고, 이는 건강보험예산의 0.3퍼센트를 차지함. 우리는 이를 근로자와 고용주로부터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2018년 9월 22일

출처 :

<http://www.leparisien.fr/societe/160-personnalites-et-anonymes-demandent-un-conge-obligatoire-pour-le-deuxieme-parent-22-09-2018-7898805.php>

3.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육원 정책

일레빌렌 지역은 8년 전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음.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저소득층 지원계획의 일환임. 루비니에뒤데제르 시에 사는 25세 아망딘 아바두에게 이러한 지원은 꼭 필요했음. 이 지원 덕분에 그녀는 학업을 계속하고 직업교육에도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임. 오늘날 저소득층 가정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과시간 외에 근무하는 등 아이들을 일반적인 보육원에 보내기 힘든 경우가 많음.

현재 프랑스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의 아이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정에서 살고 있음.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육원에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임. 2017년 일에빌랜지역 87개 시설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중 최소 40퍼센트를 수용하기 위해 2,000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음. 이 보육원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절반 정도의 단어를 사용함. ‘말하는 아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아이들이 자율성을 배우게 하고 유치원에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

2018년 9월 14일

출처 :

https://www.francetvinfo.fr/economie/emploi/metiers/services-a-la-personne-et-aide-a-l-enfance/creches-aider-les-demandeurs-d-emploi_2940597.html

4. 아이들을 정서와 행동 면에서 더 안정되도록 해주는 보육원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머물러야한다고 생각함. 그들은 부모와의 상호 작용과 가족 간의 경험을 증대시키면서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받음. 부모와 함께 있는 것과 다른 아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아이에게 유익한가? 연구 결과는 분명함. 3세 이전에 집단생활에 참여한 어린이는 3세에서 8세 사이에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문제 또는 관계 장애를 덜 경험하는 경향을 보임. 그들은 또한 더 ‘친사회적’ 행동, 즉 더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됨. 이것은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 특히 나누기를 아주 일찍 배웠다는 사실 때문일 것임.

소르본 대학과 보르도 대학, 그리고 Inserm 연구원들은 생후 3년간의 보육이 어린이의 행동 및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이를 위해 EDEN(정신 운동 발달과 아동 건강의 산전 및 산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집단에서 1,428명의 아동을 연구하여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자녀를 추적함. “0세에서 3세 사이의 그룹 보육 시스템에 대한 참여는 이후 더 나은 심리적, 정서적 발달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아주 유익한 기회입니다.”라고 연구원인 Maria Melchior는 설명함. 또 다른 잠재적인 이점은 면역계의 조기발달과 학교 입학 전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의 획득임.

2018년 10월 6일

출처 :

<https://www.pourquoidoctor.fr/Articles/Question-d-actu/27064-Garde-creche-enfants-stables-plan-comportemental-emotionnel>

5. 프랑스의 줄어든 육아휴직 신청 비율

2017년 프랑스 가정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낮아졌음.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국가의 지원을 통해 부모의 직업 활동을 잠시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그러나 국립영유아연구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더 이상 큰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임. 육아휴직 혜택을 받은 부모의 감소세는 지난 해 특히 두드러져, 2017년 12월 현재 3세 미만 아동은 314,200 명이며 수혜자 가족 수는 279,200명으로, 아동 수(-31 %)와 수혜자 가족 수(-32 %)가 각각 감소했음.

연구소에 따르면, 이 급격한 하락은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다. 2015년 육아휴직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었음. 정부는 여성과 남성 간의 직업적 평등을 장려하기를 위해 부부가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의 혜택을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유리하도록 함 (€147.68~396.01/월). 이에 따라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적어도 6개월의 휴직을 해야만 함.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조금 더 평등한 직업 환경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으나 개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함.

아버지는 예상과는 다르게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남녀의 임금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있어 그것의 혜택이 매우 적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임.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약 35% 더 많은 수입을 얻는데, 많은 커플에서 남자는 이를 포기하면서 육아를 담당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2018년 10월 18일

출처 :

<https://www.la-croix.com/Famille/Couple/Le-conge-parental-recule-encore-2018-10-18-1200976921>

● 양육지원

1. 백신접종 의무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

2017년 3가지였던 아동 의무 예방 접종은 2018년 1월 1일 부터 11개로 늘어난 상황. 보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방 접종이 다시 활성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이러한 걱정에 더해서 백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부모들은 보육원 배정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임. 왜냐하면 의무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보육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임.

이렇게 변동된 정책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백신 예방 접종 여부를 올해 6월부터 조사하기로 했으며 11개 예방 접종을 모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첫 백신을 맞은 이후 3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하게 될 예정임.

2018년 1월 6일

출처 :

https://www.francetvinfo.fr/sante/vaccins/vaccins-obligatoires-a-la-creche-je-vais-attendre-le-delai-maximum-autorise-pour-les-faire_2547231.html

2. 가족 보조사(assistant familiale)

플로리안은 가족보조사로서 만 0세에서 21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녀는 일주일 내내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 두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킨 후 두 살 이쁨을 깨우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세 살 마엘의 혈당을 측정함. 플로리안은 평일동안 7일 내내 이 두 아이를 돌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한 명의 청소년을 더 돌본다고 함. 그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의 식사, 활동, 건강, 등학교, 의료기관 방문 등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것임.

하지만 플로리안은 부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가족보조사로서의 그녀의 목표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이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함.

10년 동안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플로리안은 보다 인도적인 직업을 원해서 60시간의 주 위원회 교육을 마치고 6개월간의 지도를 거쳐 2016년 가족보조사 자격을 얻었음. 그리고 그녀는

현재 가족보조사 국가학위를 위한 24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중임. 이 학위를 취득하면 최대 6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됨.

2018년 3월 24일

출처 :

<http://jactiv.ouest-france.fr/job-formation/decouvrir-metier/video-floriane-est-assistante-familiale-84530>

3. 사회연대보건부의 새로운 육아 지원 정책

6월 6일 수요일, 사회연대보건부 장관 아녜스 뷔장(Agnès Buzyn)은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을 창출 할 계획임을 밝힘. 이 법안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함.

정부가 7월에 도입 예정인 빈곤 계획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도움’이 포함될 것임. 예를 들면, 자녀를 돌보는 여성들을 위한 ‘제 3자 경제적 지원’을 뜻함. 이 새로운 사회적 지원은 ‘보육비를 지불 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 직장을 포기하게 된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1~2개월 동안 이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2018년 6월 6일

출처 :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18/06/06/la-ministre-de-la-sante-agnes-buzyn-propose-une-nouvelle-aide-financiere-a-la-garde-d-enfant_5310393_3224.html

4. 프랑스, 10가구 중 8가구가 희망하는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Cnaf)은 최근 2017년도 부모의 보육 방식, 만족도 등에 관한 보육지표자료를 공개함. 해당 조사는 2017년 9월 13일에서 22일까지, 6개월에서 1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1,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됨.

부모가 선호하는 보육 방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상이함. 생후~6개월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82%가 이 시기의 육아는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그 중 61%는 어머니에게 부담이 되는 불평등한 양육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16%는 공평하게 육아에 참여한다고 대답하였으며, 5%는 아버지가 이 역할을 한다고 응답함. 아이가 만 1세가 되면 부모 중 절반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며, 약 1/4은 육아도우미를 선호하고, 또 다

른 1/4은 여전히 부모의 직접 보육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Cnaf의 자료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육아 참여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줌.

Cnaf의 자료에 따르면 10개 가구 중 8가구가 원하는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어, 대다수의 부모는 그들이 원하는 보육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셈임. 보육시설 31%, 부모 직접 육아 25%, 육아도우미 22%, 그리고 특별한 선호가 없는 24%. 하지만 전체 만족 비율이 80%인 것과 관련하여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보육시설 보육을 원하는 가정 10가구 중 4가구만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임.

2018년 7월 24일

출처 :

<https://www.magicmaman.com/mode-de-garde-8-familles-sur-10-obtiennent-celui-souhaite,3598702.asp>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연합 보육원³⁾의 미래는 지원방식에 달려있다.

Poussins de Rodilhan(10명의 직원이 18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연합 보육원)은 고용보조금의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 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곳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은 고민에 빠져 있음. 이 보육원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받았거나, 받으면서 일하고 있음.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Carole Gascon의 경우가 그러한데, 그는 지난 몇 년간 이곳에서 수련을 했고, 이를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음.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

고용보조금은 보육원 운영비의 15-20퍼센트를 차지함.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가 사라지면 지난 몇 년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Poussins de Rodilhan와 같은 보육원은 문을 닫게 될 것임. Gard 지역에는 현재 1,5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50곳의 연합 보육원이 있음.

2018년 2월 14일

출처 :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occitanie/gard/nimes/rodilhan-avenir-creche-associative-depend-contrats-aides-1425667.html>

3) 연합 보육원(Crèche associative) :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각종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2. 보육비 규정 법령 개정

2018년 4월 26일 법령은 2017년 12월 30일에 규정된 사회보장법 36조와 37조 보육 조항 개혁을 어떻게 이행 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음. 2018년 4월 1일 기준, 이 날부터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동을 대상으로 프랑스 본토에서 제공되는 기본 보육지원금은 각 가정의 전체 기초수당 수준에 따라 결정됨.

이 개혁은 3년 동안 5억 유로의 사회 보장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것임. 이 절감액은 같은 기간 동안 수혜자인 약 150,000가구당 500유로의 손실을 의미함. 기본 보육지원금의 축소는 중복 지원에 대한 조치로 부분적으로만 상쇄됨. 반면, 출산 보조비는 11유로 증가하여 총 934유로를 받게 되며 인증된 부모, 재택 보육을 이용하는 편부모 가정의 경우, 자유 선택 보조 수당이 30% 증가함. 최근 이용률 증가를 보이고 있는 작은 보육원을 이용 중인 44,000가구 가족들은 지금보다 한 달에 약 70유로가 이익임.

이 법령은 기본 수당액을 전체 수당과 부분 수당으로 정함. 그리고 기본 부분 급여 수당, 출생 보험료 및 입양 보너스에 적용 가능한 지원 한도액을 설정함. 이 법령에 따르면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출생 또는 입양 된 아동의 보육 지원금 기본액은 매월 184 유로에서 169 유로로 줄어들 계획임.

2018년 5월 3일

출처 :

<https://www.caissesdesdepotsdesterritoires.fr/cs/ContentServer?pagename=Territoires/Articles/Articles&cid=1250281032827>

3. 프랑스사회보장보험의 2019년 예산이 당신을 위해 바뀌는 것

: 프랑스사회보장보험 2019년 변화 중 보육지원 부분 발췌

(1) 보육 지원비는 유치원 입학 시까지 보장

- 유모 등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아이가 만 3세가 된 이후 절반으로 감소함. 문제는 9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9월 유치원 입학 시까지 몇 개월 동안 양육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임.
- 이 불평등은 2020년 1월부터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사회보장보험재정 법률 개정안은 만 3세 아이들의 추가 보육수당 지원이 실제로 유치원에 입학 할 때까지 연장됨.
- 아이 한 명 당 최대 지원액은 월 234유로로, 실제 지원액은 부모 소득과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됨.

(2)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 2019년 11월부터 장애아동교육을 위한 보육수당 지원 최대 금액이 30% 상향 조정됨.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만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최대 금액은 월 607.63유로임.
- 이 증가는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살피는 가족 내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됨. 형제나 자매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다른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함.

2018년 12월 6일

출처 :

https://votreargent.lexpress.fr/consommation/pouvoir-d-achat-ce-que-le-budget-2019-de-la-secu-va-c-hanger_2051988.html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설립 지자체에 대한 보상

지난 토요일, 사회연대보건부 장관 아녜스 뷔장(Agnès Buzyn)은 렌스 시에서 열린 프랑스 전국가족협회연맹(UNAF) 총회에서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보육 시설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장관은 “우리는 가난한 가정 및 장애인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만드는 지자체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적 다양성과 차이의 수용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목표는 매우 중요하며, 모든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강조함.

장관은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의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도시정책 적용 우선순위 지역에 가구당 1,000유로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 될 것입니다.”라며 구체적 계획을 밝힘. 장관이 발표 한 조치는 2018-2022년 7월에 주정부와 가족수당 지원국 간 서명이 이루어질 ‘목표 및 관리 협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함.

2018년 6월 6일

출처 :

<https://www.laprovence.com/actu/en-direct/5034474/creches-les-communes-recompensees-pour-creer-des-places-pour-les-enfants-pauvres-ou-handicapes.ht>

2. 보육시설 공간 : 지자체는 곧 모든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다음 달 제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 퇴치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정책과 유사하게 보육시설에도 의무 비율 정책이 적용 될 예정임. 이는 주민들의 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을 짓도록 하고 이곳에 빈곤층 가정의 아이들을 일정 비율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겨우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수의 보육시설만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짐.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독일에서는 40만 명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진 것과는 대조를 이룸.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지역보다 환경이 좋은 지역에 보육시설 투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원 시설 투자 의무 비율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할증 정책을 적용할 계획임.

2018년 6월 11일

출처 :

<https://rnc.bfmtv.com/emission/places-en-creche-les-communes-bientot-obligees-de-trouver-une-place-pour-tous-les-enfants-1468254.html>

3. 의미 있는 투자인 ‘부모 보육시설’

‘부모 보육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이 25명인 시립보육원보다 작은 규모로 협회구성법령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음. 운영비용은 가족수당지원국(CAF)의 지원을 받으며 일부는 부모들이 부담하며, 재정에 대한 예산 책정과 집행 결과보고서를 가족수당지원국에 제출해야 함.

‘부모 보육시설’에서 정회원인 학부모는 보육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직책을 선택하여 운영에 참여하게 됨. 교육사업 및 내부규정에 대한 사무업무 뿐만 아니라 보육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한 개발 업무도 담당하며 교육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함. 보육기관에 소속된 다양한 전문가들 -교육자, 보육사, 심리학자, 의사 등- 의 도움으로 생후 2개월에서 만 4세까지 시립보육원과 같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력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함. 일반적으로 보육원은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장소이지만 ‘부모 보육원’은 보육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지님.

2018년 9월 3일

출처 :

https://www.podcastjournal.net/La-creche-parentale-un-investissement-qui-a-du-sens_a25640.html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다운사이징, 근무 조건 등에 대한 툴루즈 시 시립 보육원 직원들의 시위

툴루즈 시 시립 보육원 직원들은 현재 보육원 시설에 충원은 되지 않은 채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양이 증가하고 자신들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호소하기 위한 파업을 예고함.

프랑스 남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총연맹의 회의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 이에 일부 시립 보육원이 운영되지 않을 예정임.

이들은 현재 개인적인 보육방식, 예를 들면 개인 가정에서 보모를 고용하는 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공공서비스인 보육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함. 하지만 툴루즈 보육정책담당 로렌스 카첸마이어는 현재 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개인적인 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며 재정적인 문제로 퇴직자들의 후임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반박함.

2018년 2월 14일

출처 :

<https://www.20minutes.fr/toulouse/2221131-20180214-toulouse-baisse-effectifs-conditions-travail-salaries-creches-municipales-mobilisent>

2. 파리 시장의 초대로 시청에 모인 탁아모

12월 6일 파리 시청은 탁아모들을 위한 레드 카펫을 준비했음. 1300명의 탁아모들(파리 전체 3200명)이 파리 시장의 초청에 응해 시청의 화려한 홀에 모임.

교육, 유아 및 가족 담당 부시장인 패트릭 블로쉴가 ‘축제이면서 유익한 행사’라고 밝혔던 것과 같이, 개별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비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해 이 행사는 절정에 다다름.

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탁아모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드러냄. “이런 행사는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는 모든 탁아모들을 환영하는 즐겁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

리가 수행하는 임무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시는 개별화되고 개인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출처 : <https://lesprosdelaPetiteenfance.fr/paris-les-assistantes-maternelles-recues-lhotel-de-ville>

❖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보고서 등)

1. 육아방식에 대한 통계(2017년 국립 영유아 연구소 연간 보고서)

현재 프랑스는 영유아 보육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임. 젊은 부모들에게 익숙한 이 상황은 2017년 국립 영유아 연구소 연간 보고서에서 재차 확인됨. 만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은 1년 전에 100명 당 56.1명 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이론적으로 56.6명으로 조사됨. 만 3세 이하의 230만 명의 아동의 2명 중 1명꼴의 어린이에게는 양육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가족수당 지원국은 밝혔음. 조사 지역이었던 Occitanie도에서는 수용 능력이 각 시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잘 갖추어진 도시는 제르, 로, 아베 이론 및 로체르이며, 피레네, 오리엔탈스, 오드, 헤로폴 등은 가장 취약한 도시임.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여전히 부모가 직접 육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중에서도 어머니가 육아의 61퍼센트를 담당하고 있음. 2015년의 통계를 보면 아버지는 4.4퍼센트만이 육아 휴직을 이용하였음. 그 다음으로 가장 보편적인 해결책은 보모를 사용하는 것임. 프랑스에는 312,400명의 보모가 있음. 집단 이용 시설(보육원, 탁아소) 등은 소규모 보육원의 증원 덕분에 428,500명을 위한 시설을 제공 중임(10년 전 수용가능 인원: 106,000명). 30퍼센트의 부모가 보육원 시설 이용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18퍼센트만이 이용 가능한 실정. 또한 만 2세부터는 유치원에 갈 수도 있음. 하지만 이 연령대의 아이 중 11.9퍼센트만이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2018년 1월 24일

출처 :

<https://www.ladepeche.fr/article/2018/01/24/2728033-creche-nounou-garde-maison-fortes-disparites-occitanie.html>

2. 보육원 식당의 유기농 메뉴

코르시카섬 기소나시아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점심시간을 기다림. 이 보육원은 코르시카 급식센터에서 하루 200인분 정도의 식사를 제공받는데, 식재료의 질에 있어서 다른 곳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곳에서 제공받는 음식은 Ecocert 프랑스 유기농 식재료 인증 1등급을 받은 재료로 만들어짐.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 년 내내 유기농 재배와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살충제 제한 기준을 따라야 함. 현재는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프랑스 본토에서 이들을 제공받고 있지만 코르시카 섬에서 직접 재배하는 파트너십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프랑스 시우디치 시장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는 식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웬만해서는 집에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힘. 보육원은 식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의 식습관에 항상 주의를 기울임. 그래서 식사시간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

2018년 3월 28일

출처 : <https://www.corsematin.com/article/article/du-bio-dans-les-assiettes-de-la-cantine-a-la-creche>

3. 6월 1일부로 바뀌는 보육원 이용관련 법안

6월 1일부터 보육원 또는 보육기관에 자녀를 등록하기 위해서 부모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11가지 의무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건강 카드를 제시해야 함.

2018년에 B형 간염, 백일해, 헤모필루스 B,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폐렴 구균, 수막구균 C 등의 백신이 추가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내려짐.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 미접종 사유가 의학적으로 뒷받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2018년 6월 1일

출처 : <https://www.capital.fr/votre-argent/tarifs-des-medecins-gaz-creche-ce-qui-change-pour-vous-au-1er-juin-1290753>

4. 백신 필수접종이 적용되는 첫 학기의 시작

올 9월 새 학기부터 보육·교육기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이 11개 필수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해야하는 의무를 지님. 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질병들이 다시 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예방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음. 95%에 못 미치는 예방접종률은 국민 전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지금까지는 백신수첩 내 DTP 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의 접종 기록만을 확인해옴. 그러나 2018년 6월 1일부터, 아이들은 백일해, 인플루엔자 균 B, B형 간염, 폐렴 구균과 수막 구균 C,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및 풍진(MMR) 10가지의 예방 접종을 만 2세 전에 받아야 함.

백신 접종 기록이 없는 경우 공공보육 및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없음. 학교는 임시적으로 입학 허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학부모는 3개월 내로 백신 접종에 동의해야 함.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보육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상황들을 예측함.

하지만 르 피가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예방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백신반대 운동가들의 경고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주장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백신반대 운동에 관대한 의사는 허위 백신 수첩 또는 백신 부작용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여 일부 부모는 허위 백신 수첩을 제출하기도 함. 보건부장관은 예방 접종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을 종식시키고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함.

2018년 9월 3일

출처 : <https://www.mutualite.fr/actualites/premiere-rentree-avec-vaccination-obligatoire/>

5. 국회에서 채택한 ‘가정교육을 목적으로 한 폭력’에 대한 법

모 쁘띠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가정교육을 목적으로 한 폭력(VEO)’에 대한 법안이 11월 30일 금요일 국회에서 채택되었음. 한밤중까지 이어진 토론을 통해 6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하원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짐.

이 법안은 두 개의 조항을 포함. 하나는 민법 내 “부모의 권위는 육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를 포함시키는 것임. 다른 하나는 정부가 국회에 2019년 9월 1일 이전

에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프랑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폭력’에 대한 현황, 요구사항, 평가 등을 포함하는 정책, 지침 및 지원 강화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이는 큰 상징을 가진 하나의 짧은 법 조항임. 아직 19세기부터 프랑스 법에 존재하는 ‘훈육의 권리’가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허용 할 수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형법 제 222-13조에 분명 위배됨.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폭력에는 교육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생활에 간섭해야한다.”고 주장함. 또한 이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계도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그것은 어떠한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더 나은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는 방안이 될 것임.

2018년 11월 30일

출처 :

<https://lesprosdela petiteenfance.fr/la-loi-contre-les-violences-educatives-ordinaires-adoptee-par-lassemblee-nationale>

6. 국제아동권익의 날 : 모든 이들의 결집

11월 20일은 ‘국제아동권익의 날’임. 이 날은 1959년 아동권익위가 출범하고 1989년 아동권익에 관한 국제 협약이 UN에 의해 서명된 두 가지 이벤트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날임. 또한 이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이들의 권리가 여전히 평등하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함.

전 세계에서 캠페인이 진행되는데, 유니세프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푸른색’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파란색 옷을 입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행사를 진행함. 최근 프랑스에서는 아동폭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연대/보건부는 공익 단체인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Enfance en Danger)’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캠페인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전화 119번(유럽공통)으로 신고할 수 있음.

2018년 11월 19일

출처 :

<https://lesprosdela petiteenfance.fr/journee-internationale-des-droits-de-lenfant-mobilisation-sur-tous-les-fronts>

독일

일·가정 양립		
1	어린 자녀와 함께 사무실로	87p
양육지원		
1	엄마, 아빠는 대학생 : 대학, 유치원 그리고 집간의 가족 삶	88p
2	한부모 가정 파일럿 프로젝트	89p
3	부모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 회의, 부모 지원과 가족강화	90p
4	부모기회 II(Parent Chance II), 교육지원을 위한 조기 부모지원: Elternchance II – Familie früh für Bildung gewinnen	91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독일의 여러 주정부에서 8월부터 어린이집 무상 공급	93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유치원 교육 의무화, 독일 부모들의 강력한 반대 예상	94p
2	독일 기타(유치원)비용 체계의 비공정성	95p
3	어린이집(키타: Kita), 무상으로 인한 질적 수준 저하 우려	97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유치원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98p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소득 수준은?	100p
3	어린이집 교사(유치원 교사 포함) 확충에 관한 대규모 정책을 소개함	101p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등)		
1	본 대학병원이 아동보호 협력안을 서명함	102p
2	독일 내 입양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증가	103p
3	새 가족부장관인 프란찌스카 기페이(Franziska Giffey)씨는 뭘 계획하나?	105p
4	가정 내 아동학대와 형제자매가 겪는 피해	107p
5	조기 어린이집 입소 아동의 발달 궤적은?	108p
6	막내들이 엄마, 아빠와 친밀감이 덜하고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108p
7	한부모 가정 아동, 전체 아동의 20%인 것으로 나타나	110p
8	유아들을 위한 수화, 먼저 싸인을 주고 다음에 말하기	111p
9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의 자녀들이 병치레를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111p
10	왜 많은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계획보다 일찍 그만 두는가?	112p
11	형사법 제 128조 낙태에 관한 법	113p
12	조기지원연방기금(Bundesstiftung Frühe Hilfe(early help))	114p
13	불임 부부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제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도 가능함	115p

❖ 일·가정 양립

1. 어린 자녀와 함께 사무실로

육아휴직은 끝나가고, 일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만한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들도 멀리 사시고, 육아돌보미는 비싸고, 유아원에 맡기기에는 불안한 경우가 많음. 특히 프리랜서 등 자택 근무를 할 경우, 육아와 일을 병행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두 아이의 엄마인 변호사 산드라 룽게씨는 이런 경우를 직접 경험했고, “Coworking Toddler” 프로젝트 팀 일원이 되었음.

이 베를린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공동 사무실(Coworking Space)과 유아원(Toddler)을 통합하는 것임. “Coworking Spaces”(공동 사무실 건물)은 지난 몇 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대부분 자영업을 하거나 같은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모여 공동 사무실을 임대하는 식으로, 각자 일을 하면서 서로 정보도 나누는 공간임.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공간에 아이들은 볼 수가 없었음.

이는 부모 또는 베이비시터가 공동사무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임. 아이가 적응 과정이 필요하면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아이 곁에 있고, 아이가 완전히 적응하게 되면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하는 컨셉이라고 창시자인 요한나 군더만(Johanna Gundermann, 37세)씨는 응답함. 모유수유, 기저귀 갈기, 밥 주기, 잠재우기 등은 부모들이 직접 하는데, 부모들이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함께 하기 위함임. 나머지 3-4시간 동안은 일에 집중함.

베를린의 “Coworking Toddler”는 풀타임 육아 전문가를 고용할 예정임.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음. 교사와의 언제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의 상처를 밤에야 발견하고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민이나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을 의미함. 아이가 부모의 손이 필요할 경우, 알림음(신호음)을 통해 알려지고, 바로 아이에게 갈 수 있음. 부모가 한 6-7시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프리랜서 또는 회사 직장인이지만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또는 친가족적인 회사의 복귀를 지원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임.

이 프로젝트는 현재 스타트 단계이고, 여름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 계획임. 현재 적당한 건물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 하는 가족들은 이미 많다고 함. 육아와 교육에 있어 부모들의 서로 다른 견해는 절충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룽게씨는 응답함.

우선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다른 곳에 지점 또한 가능하다고 예상함. 이렇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현재는 베를린 프렌즈라운어 베르그(Prenzlauer Berg)지역에서 15명의 아이를 돌보는 유아원과 사무실을 겸비한 “Coworking Toddler”로 발전되어 운영되고 있음. 현재 약 60명의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라 함.

- 이용시간 : 월-금요일 오전 7시 30에서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 Coworking Toddler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coworkingtoddler.com/>)

2018년 2월 19일

출처 :

http://www.deutschlandfunk.de/wissenschaftsjahr-2018-mit-innotruck-und-coworking-kita-in.680.de.html?dram:article_id=411126

❖ 양육지원

1. 엄마, 아빠는 대학생 : 대학, 유치원 그리고 집과 가족 삶

독일 대학생들 중 약 5퍼센트가 강의를 듣고, 시험공부를 하는 것 외에도 해야 할 큰 과제를 갖고 있는데, 바로 아이를 키우는 것임. 학업과 육아 어떻게 병행하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 했을 당시 비니(Bini)씨는 만 22세였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 모리츠(Moritz)씨 둘 다 미래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한창 학업에 열중하는 시기였음. 2년이 지난 지금 가족은 더 커져 이제 4개월 된 둘째도 생김. 학업과 육아를 같이 하는 것에 비니씨와 모리츠씨는 장점이 더 많다고 봄.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들 보다 훨씬 융통적일 수 있다는 것임. 둘 중 강의가 없는 시간은 맞춰 서로 교대해 가며 아이를 보고, 그로 인해 둘 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비중이 비슷하고, 무엇보다도 2-3개월간의 긴 방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휴가를 보내기에도 좋다고 봄.

학생신분으로 받게 되는 유치원 비용 혜택은 이 젊은 가족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부담을 덜어 줌. 만 2세인 첫째는 매일 유치원에 가는데,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며, 30세 아빠와 25세 엄마 둘 다 대학 공부를 하는 관계로 시에서 유치원 비용을 부담함. 식비인 40유로만 한 달에 한번 내면 됨. 비니씨와 모리츠씨는 친정과 시댁이 가까이 있어, 급할 경우에는 친정과 시댁 식구들이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재정적 도움도 주기도 함(하지

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함).

비니씨와 모리츠씨는 모든 것이 전혀 감당 안 된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별로 없을 때,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서로 시간을 나눠 아이를 봐야 할 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아플 때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음. 비니씨는 임신한 이후로 학업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블로그 활동을 시작, 많은 호응을 받음.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니씨와 모리츠씨는 매일 그들의 일상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팔로우의 수가 점점 늘어 현재 2만 1천명에 달함.

2018년 1월 21일

출처 :

<https://www.br.de/fernsehen/ard-alpha/sendungen/campusmagazin/studierende-eltern-studium-mit-kindern-100.html>

2. 한부모 가정 파일럿 프로젝트

■ 에센(Essen)의 기관 외 한부모 가정의 영육아 돌보미 지원 프로젝트

어린이집과 학교 등 어린이 보·교육 기관들의 도움만으로는 한부모 가정, 특히 여성들이 주로 직업 활동을 하는 병원, 요양원 등의 야간 및 교대근무, 자영업의 주말근무, 식당 등의 야간근무의 경우 모든 것이 커버가 되지 않음. 에센 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한부모 가정 엄마나 아빠가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보미 지원 프로젝트(해, 달 그리고 별: Sonne, Mond & Stern)를 추진함. 대상은 만 3세에서 14세의 한부모 가정의 자녀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경우,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또는 학업을 하는 경우, 직장을 찾는 경우, 노동계약의 연장, 노동시간의 연장 등으로 기관 외의 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임.

2015년 에센 시의 청소년청(Jugendamt)이 돌보미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2017년 이후로는 직업센터(Jobcenter)와 함께 '아동빈곤 퇴치 운동 캠페인' 하에 돌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부모 가정 여성들 대부분이 아이를 맡길 곳이 적당하지 않아 실직 수당으로만 생활을 꾸려 가는 경우가 많고, 이는 빈곤의 대물림이 되곤 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현재 20가족의 27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음. 돌보미 신청과 증개는 청소년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직업센터에 의해 이루어짐.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 필요한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임. 이런 인력을 청소년청에서 근무하는 사회교육 전공자들이 연결하며, 이들은 중개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 문제, 이혼 관련 문제 등의 상담 또한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추가 돌보미 지원에 드는 전체 비용은 일 년에 15만(150,000) 유로이고, 각 아동 당 1년에 5,500유로가 투자 된다고 함.

이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2014년 이후로 돌보미 지원을 받은 두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엄마가 간호사 직업 교육을 2017년에 마칠 수 있었음. 그녀의 12세 딸은 “엄마가 간호사 시험에 붙었으니,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라고 엄마를 자랑스러워함. 10세 아들 또한 “돌보미가 없던 4년 전에는 엄마가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 저희가 혼자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되요. 돌보미가 있으니까요.”라고 말함. ‘어린이 요정(Kinderfee)’이 엄마가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일을 하러 가면,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도 보내고, 재우기도 하며,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임.

2018년 9월 18일

출처 : <https://www.zdf.de/nachrichten/heute-in-deutschland/pilotprojekt-fuer-alleinerziehende-100.html>
 해당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vamv-nrw.de/lobby/ergaenzende-kinderbetreuung/>
<https://kinderbetreuung-in-essen.de/ergaenzende-betreuung/sonne-mond-sterne/>

3. 부모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 회의, 부모 지원과 가족강화

중앙정부 가족부 장관인 기프페이(Giffey)씨가 11월 29일에서 30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회 부모 서포터에 관한 중앙정부 회의에 참여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지원에 관해 관련자들과 토론을 함. 어린이집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가족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정일과 직장 일을 병행할 수 있는지 등 가족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여러 질문에 관해 독일 전국에 있는 1만 명에 달하는 부모 서포터(Elternbegleiter, 엘터른 베글라이터)가 답해주고, 해결점을 찾아 줌. 이 부모 서포터들은 어린이집, 가족센터, 여러 세대 가구 및 가족교육센터 등에서 부모들의 지원자들로 활동 함.

이번에 열리는 회의의 주요 쟁점은 저소득층 가정의 기회 창출에 관한 것임. 가족부 장관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도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서포터들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교육 지원 프로그램등과 같은 해결점을 찾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해 낼 수 있도록, 소득이 낮더라도 자녀가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역선했다.

부모서포터는 가족교육 예방프로그램의 하나로 부모, 가족교육 관련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부모서포터 교육양성을 따로 받아 활동할 수 있음. 부모서포터 교육양성 과정은 보통 3개월의 교육기간으로 세 개의 모듈(Module)로 구성됨.

중앙정부 가족부는 두 개의 중앙정부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서포터를 지원함. 첫 번째 프로그램은 ESF(유럽 사회지원재단)지원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기회 II, 교육지원을 위해 일찍 부모들을 지원하기”이며, 두 번째 프로그램은 “난민 가정을 위한 부모 서포터 네트워크 강화”임. 이 두 프로그램들은 기회 불평등, 빈곤의 위험성, 사회적 고립 등을 감소시키는 것과 독일로 이주한 가족들이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 년에 약 1천1백만 유로가 이 두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 됨.

2018년 11월 29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eltern-gut-begleiten---familien-staerken-/130974>

4. 부모기회 II(Parent Chance II), 교육지원을 위한 조기 부모지원:

Elternchance II - Familie früh für Bildung gewinnen

중앙정부 가족부는 유럽 사회재단과 함께 ‘부모 기회 II’라는 명칭 하에 부모서포터 양성과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함. 전문 인력인 부모서포터 등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거나,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줌.

유럽 사회재단에 의해 지원되는 부모 서포터들(2017년 당시 8천 명)은 어린이집, 가족센터 그리고 가족 관련 기관들에서 전문가로 부모들을 지원함.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원 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형평성 차이가 발생한다고 봄. 이런 의미에서 어린 자녀의 부모들을 일찍이 지원함으로써 교육에의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파악함.

2015년~2020년까지 약 9천 명의 부모서포터들을 추가적으로 교육양성 할 계획임. 부모 서포터들은 이미 가족교육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임. 무엇보다도 추가적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들의 교육과정 및 최상의 교육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용적인 실천 행동 지침 등을 배움.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방문 및 접근 시 필요한 사항들, 상담능력, 효율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다문화적 능력 및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이 이루어짐.

부모서포터로서의 중요한 분야는 아동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업을 잘 병행하기 위한 부부간의 관계를 포함함. 부모서포터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아버지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자녀 양육과 교육의 공평한 역할 분담을 위한 부모교육에 주력을 둬.

부모서포터 교육양성과정은 통일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9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받음. 가족교육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상대로 부모서포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부모 서포터들은 주로 가족교육 관련 기관들, 가족센터, 어린이집과 그 외 유관 기관들과 밀접한 다른 기관들에서 종사함. 부모 기회 II(Parent Chance II)는 “부모들의 기회는 아이들의 기회(Elternchance ist Kinderchance)”(2011-2015)라는 독일청소년연구소(Das Deutsche Jugendinstitut e. V. DJI)와 에어랑엔-뉘른베르크 대학(Universität Erlangen- Nürnberg)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기반함.

전문 인력을 통한 부모서포터 정책은 독일 전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교육 및 지원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만 3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및 질적 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 복지 및 안녕을 위해 일찍이 도움을 주는 것과 아동보호의 예방적 방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함. 지금까지 약 8천 명의 부모서포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부모들과의 협업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모서포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중앙정부 프로그램인 부모들의 기회 I, II는 이제 청소년청(Jugendamt-아동및 청소년 복지청)이 담당하는 일 중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임. 부모서포터 작업은 이제 지자체 가족관련 기관들의 기본 업무임.

난민 가정 아동들의 독일 사회 융합과 교육을 위해 또 다른 형태의 부모서포터 지원이 이루어짐. 이를 위한 모델 프로그램은 “부모 서포터를 통한 난민 가족들을 위한 강한 네트워크(Starke Netzwerke Elternbegleitung für geflüchtete Familien)”로써 난민 가족들을 방문해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임. 부모 서포터 정책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부모의 기회 II(Parent Chance II) :<https://www.elternchance.de/elternbegleitung/> 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17년 5월 22일.

참고 :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chancen-und-teilhabe-fuer-familien/elternchance/elternchance-ii---familien-frueh-fuer-bildung-gewinnen/73502>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독일의 여러 주정부에서 8월부터 어린이집 무상 공급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집(유아원, 유치원 모두를 포함하는 Kita)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고려하여, 독일의 여러 주정부가 8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을 제공할 계획을 밝힘.

이 정책을 처음 시도하는 곳은 베를린으로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그 외 돌보미(Tagesmütter, 타게스뮤티)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 돌봄에 드는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됨. 이미 베를린에서는 2007년부터 취학 전 5년간 어린이집 비용을 제공해왔으나, 8월 1일부터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게까지도 적용됨(즉, 새로운 정책으로 0세에서 취학 전까지 어린이집 및 돌보미 비용이 무상으로 지원됨). 새로운 정책이 시작될 경우 베를린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식비뿐이며, 보통 한 달에 약 23유로임.

베를린 외에 라인란드-팔츠(Rheinland-Pfalz) 주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만 2세 이상의 아동에게 키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왔음. 니더작센(Niedersachsen), 헤센(Hessen)주는 8월 1일부터 만 3세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키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임.

키타 무상교육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니더작센의 경우 부모들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억 9백만 유로를 주정부 추가 예산액에서 대체할 예정임. 2019년에는 약 2억 7천만 유로가 이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에서 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3억 2천8백만 유로가 지원 될 예정임. 지자체는 어린이집 인건비의 20%를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55% 그리고 2021년까지 58%까지 확대하려함. 이런 재정적 지원으로 자녀를 8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도 추가적 비용 부담을 지拂하지 않아도 됨.

독일의 키타 비용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정해져, 저소득층 경우(평균 수입의 60퍼센트 이하)는 평균 118유로이며,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178유로임. 그러나 소득 대비 비용부담은 저소득층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저소득층 키타비용 부담율은 전체 수입의 10퍼센트이지만, 아닌 경우는 약 5퍼센트에 한함. 키타비용 부담율을 전체 독일 부모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세후 소득의 5.6퍼센트이며, 한 달에 약 173유로가 든다고 함. 추가적으로 식사, 활동비 등에 드는 비용은 한 달에 평균 45유로임.

2018년 7월 29일

출처 :

<https://www.stuttgarter-zeitung.de/inhalt.kita-gebuehren-in-deutschland-mehrere-laender-stellen-ab-august-um.8972777c-1307-4df7-9c03-6192dc5db6b5.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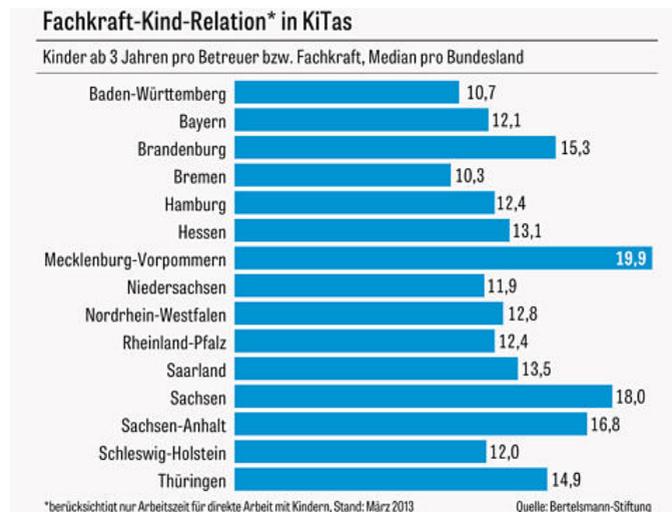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유치원 교육 의무화, 독일 부모들의 강력한 반대 예상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함. 이와 같은 의무 제도를 독일에서 도입하게 된다면, 아마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독일 내에는 많으리라 짐작됨. 프랑스에서는 이미 만 3세부터 거의 모든 아동들이 프리스쿨(preschool)형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프랑스 시민들에게는 큰 변화가 아님.

그러나 만약 독일에서 의무제가 도입된다면, 커다란 저항과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독일인들에게는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부모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중요함. 뷔르츠부르크(Würzburg)대학교 교육연구 분야 교수인 하인즈 라인더스(Heinz Reinders) 씨는 독일에서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더 주목한다고 함. 그는 최근 서유럽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추세가 이전의 돌봄의 의미에서 취학전 교육 즉, 학업위주로 되어 간다고 봄.

프랑스와 같은 유치원 교육 의무화는 독일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제(즉, 지방정부) 산하 교육정책 즉, 취학 전 유아교육정책에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임.



[그림 2] 지역 간 만 3세 이상 어린이 대 교사 비율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70~100%의 아동들이 만 3세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있음. ‘자율적으로 다니느냐, 의무적으로 다니느냐’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의무화는 장점일 수 있음. “의무화 이전에 유치원간 교육 환경의 질적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교육환경의 질적 차이는 점점 늘어나 여러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들이 운영되고 있어, 심지어 비건(vegan) 유치원까지 있으며, 유치원 비용이 한 달에 1,700유로에 달하는 고급 유치원도 있음.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질적 차이가 일어나는 일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유치원들의 교육환경 개선,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업무환경 개선 및 임금 상승, 무엇보다 교사 교육과정 개선이 중요하다고 봄. 이를 위해 새로 임명된 기프티(Giffity) 가족부 장관은 35억 유로를 취학전 교육(즉, 영유아 교육)에 투자할 계획임.

2018년 4월 21일

출처 :

<http://www.fr.de/politik/kita-pflicht-deutsche-eltern-wuerden-auf-die-barrikaden-gehen-a-1490944>

2. 독일 기타(유치원)비용 체계의 비공정성

어떤 집은 한 달에 몇 백 유로에 달하는 유치원비를 내는가 하면, 어떤 집은 단 한 푼도 안 낸다? 독일에서는 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 유치원 비용 또한 천차만별임.

베르텔스만(Bertelsmann)재단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 지역 간 유치원 비용의 편차를 보이는데 특히 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주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로 한 달 수입(세후) 중 평균 약 9퍼센트를 유치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가장 비용 부담이 적은 곳은 베를린으로 약 1.8퍼센트임. 올 여름부터 베를린 전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부모는 식사비용만 부담함. 지금까지 독일은 지방정부가 유치원 비용을 정하고 있어서 독일 전체를 대표할 만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이며, 베르텔스만의 연구 결과는 만 명 이상의 부모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임.

유치원 비용 부담은 거주 지역 간 격차 뿐 아니라, 가정경제 상황에 따른 격차 또한 큰 편임.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유치원 비용은 한 달에 평균 118유로로, 이는 수입 중 약 10퍼센트에 달함. 고소득층 가구의 평균 유치원 비용은 178유로로 저소득층보다 높지만, 가정 수입과 비교했을 때는 5퍼센트 정도에 불과함.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취학전 해, 즉 유치원 재원 마지막 해의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비용 전체를 무상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와 헤센(Hessen)주가 올 해 안으로 실행을 계획 중이며, 튀링엔(Thüringen)과 메클렌부르크-포아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주도 계획 중임.



Bundesland	Anteil
Schleswig-Holstein	9% (500)
Mecklenburg-Vorpommern	8,2% (148)
Saarland	7,5% (103)
Thüringen	7,2% (288)
Brandenburg	7% (262)
Hessen	6,9% (671)
Sachsen-Anhalt	6,9% (262)
Baden-Württemberg	6,7% (597)
Niedersachsen	6,6% (718)
Nordrhein-Westfalen	6,4% (1267)
Sachsen	6,3% (547)
Bayern	6,1% (1135)
Bremen	5,9% (90)
Hamburg	4,4% (315)
Rheinland-Pfalz	2,4% (330)
Berlin	1,8% (438)

In Klammern: Anzahl der befragten Haushalte

Quelle: Bertelsmann-Stiftung

[그림 3] 월급(세후) 대비 유치원 비용 비율 : 베를린 1.8%(438)

주: 쉘레스비히-홀슈타인 9%(500) - 괄호 안 숫자는 설문에 참여한 가정 수

연방정부 가족부 장관인 프란치스카 기프페이(Franziska Giffey)씨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점차적으로 무상으로 변경되어야함을 강조함. “높은 유치원 비용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부모들의 수입에 따라 자녀가 유치원에 다녀야 할 지 또 언제 다녀야 할 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 그의 입장임. 2021년까지 정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 집(키타-Kita) 설립 및 확장을 위해 35억 유로를 예산안에 확정해 놓고 있음. 그러나 베르텔스만 재단 연구에 의하면 무상 유치원 지원과 유치원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153억 유로로 예상된다는 것임.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정치적 공약은 아무런 재정적 근거가 없는 말이며, 현재 상황으로서 유치원 질적 개선 문제마저도 제대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베르텔스만 재단의 요르그 드레거(Jörg Dräger)씨는 주장함. 그는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인해 교사 채용을 위한 비용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아직도 아동 수 대 교사 수 비율이 적합하지 못한 유치원이 많다고 경고하며, 무상교육으로 부모들의 부담은 줄지 모르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은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강조함.

2018년 5월 28일

출처 :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studie-so-unterschiedlich-sind-kitagebuehren-in-deutschland-a-1209596.html>

3. 어린이집(키타: Kita), 무상으로 인한 질적 수준 저하 우려

한 연구에 의하면, 서독과 동독의 어린이집 간 차이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남. 가족부 장관인 기프페이(Giffey)씨는 “좋은 어린이집 정책(Gute-Kita-Gesetz)”이 이를 바꿀 것이라고 하나,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봄.

최근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Stiftung)의 연구결과에는 두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 지난 5년간 독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특히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감소하여 만 3세 이하의 경우 2012년에 교사 한 명당 4.8명의 아동을 돌보아야 했으나, 2017년에는 교사 한 명당 4.3명으로 줄었음.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인 경우는 9.8명에서 9.1명으로 줄었음.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질은 여전히 지역별 격차를 보인다는 것임.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서독간의 차이는 여전한. 전통적으로 만 3세 이하 아동을 기관에 맡기는 것이 보편화된 동독의 경우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높은 편임. 서독은 만 3세 이하의 경우 교사 한 명당 3.6명 돌보는 반면, 동독은 6.0명에 달함. 이런 현상은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 마찬가지로 서독의 경우 8.4명인 반면, 동독의 경우 11.9명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집 질적 향상을 위해 5.5Billion 유로가 사용될 계획임. 지자체는 정부에서 받는 재정 지원을 어느 분야에 쓸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확장, 교사 인력 보충 또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사용비용의 감소 등이 그 내용임.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적정선이 어느 것인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임. 베르텔스만 재단의 이사인 드레거(Dräger)씨는 “독일 정부 전반의 통합적인 기준이 없으면, 어린이집 질적 향상의 문제는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함.

연구를 진행한 재단은 지자체가 ‘좋은 어린이집 정책’에서 나오는 재정지원을 자율적으로 어린이집 사용비용 감소 또는 무상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하며, 두 가지를 다 이루기에 예산이 너무 적다고 강조함. 연구재단에서 계산해 본 결과, 정부가 매 년 8.7billion 유로를 지원해야만 가능하다고 함.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모든 지자체에 균일하게 분배되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수는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함. 이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 수가 높은 동독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봄.

이런 비판에 대해 가족부 장관은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분야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각 주가 가장 잘 알며, 이는 각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함.

2018년 8월 3일

출처 :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81331198/Bertelsmann-Studie-Kita-Qualitaet-leidet-unter-Beitragsfreiheit.html>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유치원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전문일손이 부족하다고 함. 유치원을 짓는 것은 진전이 되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새로운 유치원 건물을 짓는 것만큼 빨리 진행 되는 것이 아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전문 인력이 점점 부족한 상황이라고 함. 증가하는 아동의 수로 인해 유치원 당 갖추어야 할 아동 대비 교사의 수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함. “저희는 아는 사람을 통해 새로 올 교사가 지낼 저렴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고, 이로써 저희는 이 새 교사를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쾰른의 한 유치원 교장선생님은 말하였음. 옛 방식의 구인광고를 통해서도 제대로 교육양성을 받고, 팀과 잘 맞는 교사를 찾기란 힘들다는 것임. 좋은 교사를 구하기 위해 유치원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고 함.

“현재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라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Northrhein-Westfalen) 아동 및 가족 전문그룹 소장(Fachgruppenleiter Kinder und Familie)인 마틴 퀸스틀러(Martin Künstler)씨는 이렇게 말하며, 교사 부족 현상으로 유치원들이 정원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고 함.

이런 유치원교사 부족 상태가 온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음. 첫째로 유치원 교사를 교육·양성하는 것은 새로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임. 육아정책에 있어 유치원 교사 수요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립과 증축에만 집중한 결과로 본다고 브레멘의 육아교육 행정 담당자인 일제 베어만(Ilse Wehrmann)씨는 의견을 밝힘. 마틴 퀸스틀러씨는 2013년 도입된 만 3세 이하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후, 증가하는 출생률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민 어린이들로 인해 유치원 및 어린이

집 교사 수요는 점점 증가한다고 봄.

현 상황을 반영하는 신뢰할 만한 수치는 없으나,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이 2016년 3월 1일 발표한 이상적인 아동 대 교사 수를 반영하면, 즉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1대 3의 아동 대 교사 수, 만 3세 이상 아동들의 경우 1대 7.5라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현재 독일에서는 십 만 명 이상의 풀타임으로 일하는 교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로는 유치원 교사가 일은 힘드나 보수는 적다는 점에도 있음. 국가나 시에 속한 공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은 정해진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이 지불됨. 그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초봉은 한 달에 세금을 포함한 2580유로임. 교회나 성당에 속한 유치원 또한 이 임금체계에 맞춰지고 있음. 유치원 교사들은 승진의 가능성도 별로 없고, 추가 수당도 별로 없어 임금이 낮은 편이라는 의견을 일제 베어만 씨가 밝힘.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임.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의 발달 상황에 따른 여러 힘든 과제를 수행하고, 중개하는 역할과 증가하는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만들기 하는 이모" 정도로 본다는 것임.

이런 교사 결핍을 해결할 방도로 "멀티프로페셔널 팀(Multiprofessional Team)"에 관해 논의되고 있음. 유치원 교사 직업 양성을 받지 않은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재교육을 통해 유치원 교사로 투입되는 것으로 특수교사, 아동 간호사 등을 들 수 있는데, 각 지방 정부마다 다른 규율에 따라 정해짐.

유치원은 더 이상 아이를 돌보는 곳으로만 보지 않고, 교육의 장소로도 보는 추세임. 이런 상황에 멀티프로페셔널 팀은 시대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고 퀸스틀러씨는 봄. 일제 베어만씨는 재교육을 받는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도 유치원 교사로서의 소양과 교육을 필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 함.

그는 유치원 교사 직업 양성이 무료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새로 도입 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십 년간의 육아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봄.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첫 6년간 제대로 받지 못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 함.

2018년 3월 6일

출처 : <https://www.tagesschau.de/inland/erziehermangel-101.html>

2.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소득 수준은?

이번 주, 독일 전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파업을 할 계획임. 이로 인해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수준과 지역 간 월급 격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공립 키타⁴⁾ 교사들의 초임 월급은 2,578유로(gross-세전)임. 그러나 모든 유치원 교사가 해당액을 급여로 받는 것은 아니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2016년을 예로 들면, 유치원 교사들 중 3분의 1만이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자치단체, 즉 교회 및 사회단체, 부모연대 또는 사립유치원 소속이었음. 현재 독일에서는 약 40만 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일하고 있음.

대부분의 자치단체 소속 교사의 경우도 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의 월급을 받지만, 자치단체는 공공유치원과 다른 임금체계(근무 기간과 전문성에 따라 임금이 달리 정해지는 체계를 말함)를 가지고 있음. 여러 가지 다양한 임금체계가 때로는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자치단체 중 하나인 적십자사 쪽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임금체계가 있고, 이에 따라 임금수당 또한 다르게 책정됨. 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4분의 1정도가 임금 체계가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남자 교사의 수가 매우 적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20명의 교사들 중 남자 교사는 한 명 꼴로 나타남. 풀타임(일주일에 38시간)으로 일하는 유치원(자치단체와 지방 정부, 공립유치원 포함) 교사들의 평균 월급은 세전 2,110유로임. 그러나 10명 중 6명은 파트타임으로 주당 20~30시간 정도로 일함.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교사들은 2,110유로보다 더 적게 벌고 있는 실정임.

연방정부 가족부 장관인 프란치스카 기프페이(Franziska Giffey)씨는 유치원 교사들의 임금을 초등교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라인란드-팔츠(Rheinland-Pfalz)의 경우는 초등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월급 차이는 약 780유로임(초등교사의 초임 월급은 세전 3,356유로이며, 공립유치원 교사의 초임 월급이 2,578유로임). 독일의 경우, 초등교사는 대학졸업자이나,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점차 강화되며, 교육과정(직업교육)도 수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 기간 대부분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임.

4) 키타 : Kita, Kindertagesstätte의 줄임말로 유아원과 유치원을 통합한 취학전 아동 교육 시설. 이하 유치원으로 명칭

2018년 4월 12일

출처 : <https://www.tagesschau.de/multimedia/kurzerklaert/verdienst-erzieherinnen-101.html>

3. 어린이집 교사(유치원 교사 포함) 확충에 관한 대규모 정책을 소개함

독일 연방 정부 가족부에서 어린이집 교사 확충에 필요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함. 가족부 장관 프란찌스카 키프파이(Dr. Franziska Giffey) 박사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직업적인 발전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함.

“어린이집 교사 확충을 위한 대규모 정책(Fachkräfteoffensive für Erzieherinnen und Erzieher)”의 목표는 어린이집 교사 확충과 기존의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음. 장관은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과정과 직업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과 지자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를 강조함.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에게 투자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아동들의 형평성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임.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0백만 유로가 지방정부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며, 추가적으로 5.5백만 유로가 ‘좋은 어린이집(키타) 법(das Gute-KiTa-Gesetz)’을 통해 지원 됨.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적절한 교사 당 아동의 수를 위한 교사 확보, 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 또는 언어교육이나 그 외 특별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음.

어린이집 교사 확충에 관한 대규모 정책은 다음 세 가지의 P를 기반으로 함:

- Praxisintegriert(practice integrated) 실천에 맞는 교육과정: 새로운 정책의 연방 프로그램은 2019학년도부터 실천에 맞는 어린이집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5천명을 지원할 예정임.
- Praxisanleitung(practice direction) 현장 지침: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감, 교장등 기관의 리더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 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차세대 어린이집 교사들의 현장 실습 시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Perspektiven(prospect) 경력 승진: 추가수당 등을 통해 임금이 더 지불되는 것으로, 교사들이 추가적으로 교육 이수를 하거나, 특별 과제 등을 맡을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것임.

2025년까지 독일에는 약 191.000명의 어린이집 교사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숫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비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함.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육과정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 확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함. 알렌스바흐

(Allensbach) 국민의견 연구소(Institut für Demoskopie)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86퍼센트의 사람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업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보고 있음. 66퍼센트가 어린이집 교사의 월급이 너무 적다고 보며, 83퍼센트가 교사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부당하다고 봄.

2018년 12월 18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fachkraefteoffensive-fuer-erzieherinnen-und-erzieher-vorgestellt/131402>

❧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등)

1. 본 대학병원이 아동보호 협력안을 서명함

본 대학병원이 본의 청소년청(Jugendamt)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항이 담긴 협력안에 서명함.

본 대학병원과 청소년청의 이러한 공식적 협력안은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 협력안으로 학대와 방치로 인한 극단적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 협력안의 목표는 신속하고 명확한 행동과 전문적 진단 그리고 치료를 통한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개선하는데 있다고 함. 본 대학병원만 해도 평균 일주일에 두 아이 정도가 학대로 인해 치료를 받는다고 본 대학병원 병원장인 볼프강 홀즈그레베(Wolfgang Holzgreve) 씨는 말함.

본 대학병원에는 2006년부터 독일에서는 첫 번째인 대학산하 아동보호그룹이 있음. 여기에는 소아과 의사, 법의학전문가, 아동심리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목사(신부)님들이 소속되어 있음. 이 기관의 목적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아동을 대할 때 보다 명확한 대처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었음. 그 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입원절차 질문지 및 병력 질문지를 아동보호를 염두한 질문지로 개선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졌음.

오랫동안 청소년청과 본 대학병원이 함께 한 협력 작업들이 협력안을 통해 더욱 강화된 점을 기뻐한다고 본 청소년청의 대표인 우도 슈타인(Udo Stein)씨는 말 함. 이 협력안에 따라 일 년에 한 번 협력회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다전문(multiprofessional)적 측면의 사례발표 및 회의 또한 이루어질 예정임. 이 협력안을 통해 시 행정 측과 대학병원이 2012년 통과된 아동보호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청소년청 및 보건청 그리고 병원 및

경찰서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봄.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및 폭력에 관한 기사를 보면 아동보호법이 크게 아동학대를 막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임. 형사통계에 의하면 2016년 독일에서 133명의 어린이들이 학대 및 폭력에 의해 사망했으며, 그 중 100명이 6세 이하 아동들이었음. 육체적 학대 및 폭력은 2015년 독일 전체에서 3,929건이었고, 2016년에는 4,20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서류를 통해 집계된 수치이며, 집계되지 않은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예상 됨.

2018년 1월 29일

<http://www.general-anzeiger-bonn.de/bonn/stadt-bonn/Uniklinik-Bonn-unterzeichnet-Kooperation-zum-Schutz-von-Kindern-article3761021.html>

2. 독일 내 입양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증가

입양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 기술의 발전이 그 이유일 수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문제점이 많음.

2006년에는 4,748명의 아동들이 입양되었고, 2016년에는 3,976명이 입양되었음. 2006년에는 9,154개의 입양 신청서가 있던 반면, 2016년에는 5,266개의 입양 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주정부 가족부(Bundesfamilienminister)는 보고함.

입양 신청이 감소하는 이유에 관한 학술적 조사는 아직 없지만, 가족부 대변인은 출산관련 의료 기술 발달에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음. 한 독일의 연구에 의하면 70-90%의 입양 이유가 출산의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데, 발달된 출산 및 임신 의료 기술로 자녀 출산이 가능해 지고, 이런 이유로 입양률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가능 함.

지난 몇 십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사회 및 가족 정책의 변화 또한 입양률 감소의 영향 요소가 될 수 있음. 전통 가족구조가 감소하는 반면, 여러 가족 형태가 생성되고 또 이를 수용하는 사회로 변화 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소수 그룹이 아니고, 아이를 입양 보내는 일 또한 감소함. 피임 기술의 발달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의 발달로 인해 재정적 문제로 자녀를 입양 보내는 일이 줄어들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신청 수는 입양 될 아동의 수 보다 현저히 높음. 2016년 826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입양 후보로 등록 된 반면 입양 신청은 5,266개에 달했고, 이는 평균 약 6:1의 비율임.

의붓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의 수는 입양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음. 의붓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하는 부모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확연한 관계로 전통 입양 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임. 2016년 의붓자녀가 법적으로 입양된 경우는 3,976명의 아동 및 청소년 중 60%임.

2017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된 “Ehe für Alle(marriage for everyone)” 법이 입양신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조사 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얼마 있지 않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왜냐하면, 동성간 부부들도 필요한 입양 조건을 충족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임.

지난 2월 17일과 18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자녀 소망의 날(Kinderwunsch-Tag)”박람회에 여러 연합, 회사 및 기관들이 소개 되었는데, 몇몇 연합 및 기관들은 특히 공동 자녀를 통해 가족을 이루려 소망하는 동성부부들을 타깃으로 설명회를 가졌음. 이런 이유로 무지개 가족 센터(Regenbogenfamilienzentrum: 무지개는 동성애를 상징함)에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입양 등에 관한 가족 형성의 여러 법적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함. 센터 책임자인 요르그 슈타인너트(Jörg Steinert)씨는 여러 동성부부들이 한 부모 가정과 마찬가지로 2004년 이후 아동 가정 위탁(Pflegekinder)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임.

몇몇 회사들은 정자 또는 난자기증 또는 협력자 부모를 찾는 동성부부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하였는데, 영국회사인 PrideAngel을 예로 들 수 있음. 약 33유로를 내면 플랫폼(Platform)에서 난자 및 정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고, 맞는 기증자를 찾았을 경우, 정자에 관한 가격은 물을 수 없으나, 한 번 정액 투입에 400유로, 한 번 기증에 약 40유로가 소요됨.

박람회에 대리모를 중개하는 에이전시 또한 소개되었음. 대리모의 경우 체외 수정된 배아를 대리모를 통해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불법임. 미국의 경우 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약 8만(80,000)유로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2만 4천 5백유로 정도임.

독일 부부들 중 몇 명의 아이가 대리모를 통한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없으나, 미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브라질, 영국, 러시아 그리고 게오르기아 등의 나라를 통해 대리모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독일 외무 관련부서는 보고함. 독일 부부가 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후, 그 자녀의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 재판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재정적 문제로 몸을 빌려 주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후 바로 아이를 줘야 하는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임.

2018년 2월 20일

출처 :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kinderwunsch-weniger-adoptionen-in-deutschland-aber-mehr-kinder-von-leihmuettern/20974454.html>

3. 새 가족부 장관인 프란찌스카 기페이(Franziska Giffey)씨는 뭘 계획하나?

새 가족부 장관인 프란찌스카 기페이는 베를린 마르잔(Marzahn)에 위치한 한 유치원을 방문하고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 놀이를 하며 놀았다고 함. 이는 새로 임명된 가족부 장관의 첫 공식 행사였다고 함. 그는 베를린 시 정부의 일에서 이제는 독일 정부의 일을 맡게 됨. 전직 베를린 노이켈른(Berlin Neukölln) 구청장이었던 사람이 독일 정부의 주요직을 맡아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에 대해 그는 두 일의 큰 차이가 없다고 함. “제대로 된 정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사회민주당(SPD)의 기페이는 말 함.

이런 무게감 있는 문장을 그는 작고도 친절하며 진실 되게 말함. 그는 39세로 이번 정부내각의 최연소자이기도 함. 이번 의회기간 말까지 정부는 30.5억 유로(3.5 Billion)를 육아정책 및 유아교육에 투자할 계획임. 여름 전까지 그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아동 대 교사 수 비례의 향상, 원장 및 부원장 역할의 강화와 언어교육 발전이 주 된 내용임.

기페이는 그 외에도 유치원 교사 직업이 매력적으로 되기 위해 교육양성기간 실습비 지불과 임금상승 등을 고려함. “유치원 교사 부족으로 약 만 개의 유치원이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며, “질적인 유아교육은 평등의 기회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함.

구동독의 프랑크푸르트 오더(Frankfurt Oder) 출신인 그는 정부 출범 시 아동수당과 아동 추가수당비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육아정책의 개선 또한 수행할 방침임. 이런 계획에 야당의 비판이 거셴. 세금을 통해 쓰이는 150여개의 가족정책의 비용 약 2천억(200 billion)이 해마다 든다고 FDP 정당의 카차 주디히(Katja Sudig)씨는 비판 함.

“독일의 가족정책의 비용은 높으나 그만큼 효과도 없고 또 제대로 맞지도 않다.”라고 그는 기플리와 반대 의견을 역설함. 아동수당을 올리겠다는 계획은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녹색당 대표인 안나네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씨는 비판하며, 새 가족부 장관이 여성정책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 비판 함.

실제로 가족, 노인, 여성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부의 새 장관이 남녀평등 문제에 있어 어떻게 정책을 이루어 나갈지 의문임. 정부 출범 시 남녀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주요 사안으로 봄.

이 사안에 의하면, 앞으로 대기업이나 주식회사 등의 임원진의 여성비율을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을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고 백억 유로(10 Billion 유로)의 벌금을 내야함.

가족부에 주어진 예산안이 그리 크지는 않음. 2017년에는 9.5Billion(95억)유로의 재정이 잡혔으나, 그 중 64억(6.4 Billion)유로가 부모수당 및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에 쓰였음. 가족부장관이 이에 대해, 재정부 장관과 얘기할 계획이라고 말 함.

베를린 마르잔에 위치한 유치원을 방문한 기페이씨는 아이들과 사진 퍼즐도 하고, 보드 놀이도 하였음. 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필도 나눠 줌.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새로운 가족부장관은 교육, 통합(문화적 소통) 그리고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기본 가치에 충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스톱사인을 보여 줘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음.

그는 장관이 되기 전, 베를린 노이켈른 지역에서 일했음. 이 지역은 가난과 실업문제가 심하며, 특히 이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율과 통제, 질서 정비를 위한 더 많은 인력의 구비,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들 그리고 제대로 된 형벌을 내릴 판사들”이 필요함을 내세웠음. 이 지역에서 그는 지난 16년을 일했고, 아랍출신 조직 폭력배에 관한 조사 또한 착수하게 했음.

“새 장관은 현실적이고,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기페이 씨의 선임이었던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 씨는 그에 관해 이렇게 말 함. 기페이 씨 스스로도 “저는 현실적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제가 일을 할 때 첫 절차는 일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 함.

그의 첫 공식 방문 행사였던 유치원 방문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수당과 기본 급여에 관한 주제가 언급되었음. “독일에서도 기본 급여가 필요할까요?(운 국민이 일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매 달 일정한 돈을 받는 것)”라는 질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공 아빠와 서점에서 일하는 엄마의 딸(실제 Giffey씨 자신의 부모가 자동차 수리공과 서점판매원)이 성공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저는 우선 독일의 유아교육과 육아 정책에 좀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라고 함.

2018년 04월 02일

출처 :

<http://www.handelsblatt.com/my/politik/deutschland/kabinettt-merkel-was-will-die-neue-familienminister-in-franziska-giffey/21127294.html?ticket=ST-305300-H5fMnG1yfrKqk3OG4Y9k-ap1>

4. 가정 내 아동학대와 형제자매가 겪는 피해

가정 내 한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폭행 또는 방치될 경우 그의 형제자매가 겪는 정신적 손상의 위험성은 다른 가정의 아동보다 4배가량 더 높다고 함. 이는 독일 청소년 연구소 연구자인 수잔네 비테씨가 학대, 폭행 또는 방치 등의 상황에 놓였던 아동의 형제자매들을 조사한 결과임. 지금까지 학대의 직접 피해를 받은 아동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그 아동의 형제자매가 겪는 피해에 관한 연구는 적었음.

지금까지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대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보는 데는 소홀했으나, 앞으로 학대 아동과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들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 무엇보다도 성적학대 및 정서적 방치 또는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들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아동의 형제자매 또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되며, 이는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함. 학대 가정의 형제들은 서로 간 싸움도 더 잦고, 서로 간의 신뢰도 또한 낮아, 성인이 되어서도 형제관계가 좋지 않다고 함.

연구에는 4,500명의 성인이 온라인상으로 어린 시절 가정 내 학대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학대에 관한 질문 외에도 형제간의 관계, 부모의 행동 그리고 현재 정신적 손상여부에 관한 질문도 이루어졌다고 함. 4,500명의 설문 참여자들 중 870명의 형제자매를 인터뷰할 수 있었음.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연령층이 낮았으며, 높은 학력 소유자들이어서 일반적 결론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함. 연구는 뮌헨대학교 박사논문이며, 연구결과는 <아동학대, 폭력과 방치내의 형제자매(Geschwister im Kontext von Misshandlung, Missbrauch und Vernachlässigung)>라는 제목으로 벨츠 유벤탐타(Beltz Juventa)사를 통해 출판됨.

2018년 4월 24일

출처 :

<https://www.dji.de/medien-und-kommunikation/news/news/article/kindesmissbrauch-in-der-familie-hat-schwerwiegende-folgen-auch-fuer-geschwister.html>

5. 조기 어린이집 입소 아동의 발달 궤적은?

엄마 품에 있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은 늘 뜨거운 논쟁 이슈인데, 흥미로운 결과가 경제 관련 연구에서 나와 눈길을 끄. 독일 부모들을 양분화시키는 주제 중 하나가 ‘언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가.’인데, ‘웬만하면 어머니나 아버지 집에서 보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이와 대립되는 의견으로, ‘자녀가 어려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것임.

독일 경제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는 국내 교육패널(Das Nationale Bildungspanel: NEPS)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7년 또는 1998년부터 어린이집을 다닌 약 4,500명의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년 더 일찍(만 3세)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들이 1년 더 늦게(만 4세)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아동들에 비해 성장 후 대화능력, 진취성 그리고 책임감 면에서 더 탁월하게 나타남. 연구자인 프라우케 페터(Frauke Peter)씨는 “어린이집에서 1년을 더 보내느냐는 인성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는 이후 교육 및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함.

교육경제 전문가인 요세피네 코에베(Josefine Koebe)씨는 “최근에는 만 3세 이전에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가 예전 보다 많이 늘었는데, 얼마 동안 어린이집을 다녔는가는 인성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됩니다.”라고 말함. 서로 연관성이 없는 두 데이터를 분석했을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어린이집 경험이 길수록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18년 5월 11일

출처 :

<https://www.stern.de/nido/familienleben/studie-so-entwickeln-sich-kinder-die-schon-frueh-in-die-kita-gehen-7977562.html>

6. 막내들이 엄마, 아빠와 친밀감이 덜하고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프랑크푸르트 대학 인구변화 연구소 센터(Forschungszentrum Demografischer Wandel der Frankfurt UAS)는 출생순위가 부모와의 관계 및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함.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응용과학(Frankfur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UAS) 인구변화 연구소 센터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손윗형제를 가진 아동들이 부모들과의 친밀감이 덜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무서움(겁)이 많다고 함. 출생순위가 부모와의 관계, 성격 또는 인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지난 100년간 심리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해 온 주제임. 성격발달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외동이, 막내라는 연구도 있고, 둘째, 즉 샌드위치 아동들이 부모님의 관심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사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첫째는 보통 보수적인 반면, 둘째는 반항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최근 연구 경향은 출생순위가 성격발달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 결과는 이를 뒤집은 상황임.

“취학 아동들의 건강생활과 사고발생(Gesundheitsverhalten und Unfallgeschehen im Schulalter, GUS)”이라는 이 종단연구는 독일 공공 상해보험사(Die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DGUV)가 지원하였으며, 독일에서 진행된 가장 큰 아동 및 청소년 연구 중 하나임. 연구원들은 매년 14개 독일 지역에 분포된 약 150개 학교의 약 만 명의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세 번째 조사 시기인 2016년, 2017년에는 7학년 학생들 인성 및 성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

스벤 슈타트뮐러(Sven Stadtmüller) 박사연구팀은 우선, 부모와의 관계가 출생순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조사함. 전체 중 21.9% 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음(gut)’으로 평가됨.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보여,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 중 외동이가 24.9%, 첫째인 경우가 24%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 명의 손윗형제를 가진 학생들은 20%, 손윗형제 하나와 손아랫형제가 하나인 둘째는 20.3%임. 샌드위치 서열의 둘째들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첫째나 외동이 보다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놀랄 일이 아님. 놀라운 결과는 막내로, 18.2%에 그침. “막둥이들이 부모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라고 슈타트뮐러씨는 말함. 손윗형제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임.

출생 순위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조사는 Big Five Inventory 중 아동 및 청소년 버전을 연구에 사용함. 이 조사도구는 인간의 성격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 등 5개 특성 구분함.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격에 있어서도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손윗형제들이 있는, 즉 막내들은 친화력에 있어서 외동이나 첫째에 비해 점수가 낮았음.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에 대한 개방성에 있어서도 외동이나 첫째는 막내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남. 막내들은 성실성이나 개방성은 낮으나, 신경증적 경향은 높아, 금방 초조해 하거나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와 반대로 건강생활이나 사고 및 부상은 출생 순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18년 7월 3일

출처 : <https://idw-online.de/de/news698760>

7. 한부모 가정 아동, 전체 아동의 20%인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 가정의 빈곤 위험성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세 배나 높다고 함. 그러나 경제 성장과 키타(어린이집)의 확대로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음. 한부모 가정의 경우, 직업과 가족 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 그럼에도 한부모 가정은 증가하고 있다고 통계청이 발표함. 무엇보다도 동독 그리고 대도시에는 점점 많은 여성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파트너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성은 그에 비해 소수임.

한부모 가정이 가장 많은 곳은 베를린으로 28%를 차지함. 가장 낮은 곳은 바덴-뷔르템베르그(Baden-Württemberg)와 바이어른(Bayern)으로 15~16%임. 지난 20년 간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의 수는 1백 2십만이 감소한 8백 2십만인 반면, 한부모 가정의 수는 2십만에서 1백 5십만으로 증가하였음. 한부모 가정에는 주로 한 자녀를 둔 경우가 많고, 두 부모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2명 또는 그 이상임.

통계청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은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함. 2011년 한부모 가정의 빈곤 위험은 37%에 달했지만, 2016년 조사에 의하면 33% 정도임. 이는 키타의 확대, 양육비 조달 보조(양육비를 상대 부모에게 못 받을 경우 정부에서 미리 지원해 주고, 정부가 상대 부모에게 청구하여 나중에 받는 시스템), 취업시장의 활기 등에 기인했다고 판단됨. 2017년 약 30%의 한부모 가정 여성들이 직장이 없으며, 이 중 약 50%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였음.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여성일수록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한부모 가정 여성의 취업률 또한 증가하지만, 대부분 파트 타임으로 일하여 소득수준이 낮음.

한부모 가정 중 12%가 남성, 즉 아빠일 경우 자녀들은 대부분 청소년임. 이런 이유로 한부모 가정 아빠들의 취업률을 보면, 일반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음. 한부모 가정의 여성, 즉, 엄마들의 경우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 또한 높고, 학업수준이 낮은 여성 한부모 가정은 빈곤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음.

2018년 8월 3일

출처 :

https://www.welt.de/print/die_welt/article180495552/In-Deutschland-ist-jeder-Fuenfte-mit-Kindern-alleinerziehend.html

8. 유아들을 위한 수화, 먼저 싸인을 주고 다음에 말하기

브레멘(Bremen)의 키타에서는 교사들이 유아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화를 하고, 점점 많은 부모들이 베이비 싸인을 사용하는데, 언어획득에 이로운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어떻게 하면 여러 명의 유아들이 방정리를 할 수 있게 할까? 브레멘의 쌍 피우스 키타(St. Pius Kindertagesstätte, 어린이집)의 알리나 울호른(Alina Uhlhorn)씨와 동료들은 싸인과 몸짓으로 이를 시도함. “자 여러분, 큰 어린이, 작은 어린이 모두 장난감 정리를 합시다.”라고 말하며 두 손을 얼굴 앞으로 모음. 마치 장난감을 다 모으듯이. 아이들이 공이며 자동차며 장난감들을 몇 초안에 다 정리함. 울호른씨와 동료들이 사용하는 이 싸인은 ‘베이비 싸인’으로 독일 수화에서 발상 되었으며, 비브케 게리케(Wiebke Gericke)씨가 6개월에서 24개월 유아들을 위해 만든 것임.

베이비 싸인은 아직 말을 시작하지 않은 어린 유아들이 간단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베이비 싸인을 통해 언어 획득의 다리 역할을 하려 합니다.”라고 게리케씨는 말함. 베이비싸인을 사용하는 쌍 피우스 키타의 교사들에 의하면 부모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함. 어떤 아이들은 베이비 싸인을 바로 배우고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아동들은 그냥 몇 달간 보기만하기도 한다고 함.

베이비 싸인 추종자들은 수화나 몸짓을 통한 싸인을 통해 언어발달이 증진된다고 봄. 함부르크(Hamburg) 대학의 바바라 헨넬-파울하버(Barbara Hänel-Faulhaber) 교육학자는 “베이비 싸인을 통해 언어를 더 잘 배운다는 장점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이런 싸인을 통해 언어만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라고 함.

2018년 5월 4일

출처 :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schule/babyzeichensprache-in-kitas-kinder-verstaendigen-sich-mit-gebaerden-a-1205195.html>

9.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의 자녀들이 병치레를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회사 DAK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의 자녀들이 충치질환, 비만 또는 언어장애 등의 병치레를 자주한다고 함. 이는 대졸이상 부모의 자녀들보다 세 배나 높은 수준임.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비만인데, 저학력 부모의 만 5세에서 9세 사이의 자녀가 비만일 확률은 같은 연령 대졸이상 부모의 자녀보다 2.5배가 높다고 함. 이는 저학력 부모의 자

녀 1,000명 중 52명이 비만이라면, 대졸 이상 부모의 자녀가 비만일 경우는 15명밖에 안 된다는 것임.

저학력 부모의 자녀가 고학력 부모의 자녀들보다 충치질환을 앓는 경우는 2.8배가 더 높고, 언어문제에 있어서는 45%,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의 경우 44%가 더 높다고 함. 또한 병원치료를 받는 아동의 부모가 저학력일 경우는 68%가 더 높고, 약물복용의 경우는 43%가 더 높다고 함.

이런 차이는 가족의 학력수준이 소득수준보다 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특히 위험군의 아동은 부모가 중독성의 질환을 가지는 경우로 특히 정신건강에 있어 큰 위험성을 지님. 중독성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80%, ADHD의 경우 70%, 그리고 학교 관련 불안증은 50%가 더 높다고 함.

2018년 8월 28일

출처 :

<https://www.br.de/nachrichten/deutschland-welt/studie-eltern-mit-geringerer-bildung-haben-kraenkere-kinder,R20vnUI>

10. 왜 많은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계획보다 일찍 그만 두는가?

모유는 신생아들에게 가장 좋은 영양공급원임. 이런 이유로 90퍼센트에 달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를 시도함. 그러지 못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하는 곤혹을 치루기도 함. ‘모유 수유의 삶(Stillleben)’이란 책을 낸 안토니아 바움(Antonia Baum)씨는 모유 수유의 사회적 압박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함. “독일의 병원에선 아이를 낳고 바로 젖을 물리는 모유 수유의 강행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역설하며, 모유 수유를 못하거나 안 할 경우, ‘못된 엄마’,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냉정한 엄마’로 질타를 받는다고 함.

모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고, 분유 회사들마저 ‘아이가 필요한 영양공급원으로 모유가 최상입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내고 있음.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을 예방·보호하며, 또한 모유 수유 아동들은 나중에 과체중(비만)의 위험 또한 적다고 영양학자인 마틸테 케어스팅(Marthilde Kersting)씨는 말함.

보쿰-루어(Bochum-Ruhr)대학 마틸테 케어 교수 연구팀은 약 100개의 병원에서 약 1,000명의 독일 엄마들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 상황을 연구함.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모유 수유 시의 기억을 유추하는 식의 연구였다면, 이번 연구는 참여 여성들과 영아를 생후 1년간 꾸준히 관찰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87퍼센트의 신생아들이 출생 직후 바로 모유 수유를 받는다고 함. 이는 스웨덴의 98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임.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모유 수유 기간이 짧다는 것임. 세계보건기구 WHO는 첫 6개월은 분유나 다른 영양공급원 없이 모유 수유만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독일 아동들이 모유수유만 받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달에 못 미침. 90퍼센트 이상의 엄마들이 이보다 더 오랫동안 모유 수유를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달 전에 그만 둔다고 함.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계획보다 일찍 그만 두는지에 관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유가 너무 적어서’이고, 다른 이유는 ‘아이가 싫어해서’라고 함. 연구진들은 모유 수유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엄마들에게 좀 더 지원과 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2018년 9월 28일

출처 :

<https://www.welt.de/gesundheit/article181701996/Baby-stillen-Warum-hoeren-viele-Muetter-frueh-auf.html>

11. 형사법 제 128조 낙태에 관한 법

특별한 상황에서는 낙태가 형사법에 의한 형벌이 가중되지 않음. 의료적인 이유 또는 강간에 의한 경우에 낙태 시술에 대한 비용은 의료(건강)보험회사가 부담함.

독일은 형사법 제 218조에 따라 낙태가 형사처벌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됨.

(1) 국가가 인정한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한 경우

낙태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상담규칙(사회법 제 218조 1항에 따른 상담규칙 Beratungsregelung § 218a Absatz 1 StGB)에 따라 낙태시술 3일 전에 국가에서 인정한 임신관련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함. 시술 전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시술 담당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술 담당 의사는 낙태에 관한 상담을 해서는 안 되며, 낙태 시술의 경우 임신 12주를 넘어서는 안 됨.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2) 의료적 문제 또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 임신부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경우,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상태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경우
- 범죄 관련 이유로는 임신이 성범죄, 강간에 의한 경우(사회법 제 218조 2항과 3항)를 들 수 있음.
- 이런 경우 임신부가 국가가 인정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해 시술을 받은 경우, 또 시술 시기가 임신 22주를 넘지 않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3) 낙태시술에 관한 비용

의료 또는 범죄관련 이유로 낙태 시술이 불가피 할 경우 담당 의료보험회사에서 시술 비용을 부담함. 상담규칙에 의한 낙태의 경우는 공공 의료보험사에서 시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임신 기간 동안의 진료나 시술 후 합병증 치료 등에 관한 비용은 세금 정산 시 제출하여 정산 받을 수 있음.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의료 보험사에 진료 및 치료비용 부담 신청을 할 수 있음.

2018년 7월 12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schwangerschaft-und-kinderwunsch/schwangerschaftsabbruch/schwangerschaftsabbruch-nach---218-straftgesetzbuch/81020>

12. 조기지원연방기금(Bundesstiftung Frühe Hilfe(early help))

연방정부의 ‘조기 도움(early help)’은 예비 부모 또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어려운 환경의 가정을 돕고 지원하는 재단임. 재단의 목적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임. 아동들이 건강하고 폭력 없는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으며, 출생 후 첫 몇 년 간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 그만큼 이 시기의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함.

2018년 1월부터 연방정부 재단인 ‘조기 도움(얼리 헬프)’은 아동보호법의 중요한 사안들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구체적인 목적은 얼리 헬프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만 0세에서 만 3세 어린이들의 가정을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임. 이러한 정부 재단은 장기적으로 매 년 5천 1백만 유로(즉 51,000,000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얼리 헬프는 각 지역과 지방의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음. 얼리 헬프는 일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부모들 또는 예비 부모들의 부모-자녀 관계와 교육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려 함. 이런 도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짐.

-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얼리 헬프 간의 네트워크 구조 강화
- 가족 조산원(Familienhebammen-간호사와 달리 임신, 출산등과 관련된 간호 일을 하는 사람), 가족 간호보조원, 건강 간호보조원 그리고 아동 간호보조원(Familien-Gesundheits-und Kinderkrankenpflegerinnen und pfleger)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가정들에게(방문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심리사회적지원을 제공함

지금까지 각 지역 청소년청(Jugendamt)의 98%가 얼리 헬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86%의 지자체에서 가족 조산원 및 간호보조원들이 얼리헬프 업무를 함. 약 77%의 지자체에서 산부인과 병원들과 얼리 헬프 네트워크가 함께 협약하고 있으며, 약 62%의 지자체에서는 자원 봉사 가족대모(family godfather)에 의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8년 4월 13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themen/kinder-und-jugend/kinder-und-jugendschutz/bundesstiftung-fruehe-hilfen/bundesstiftung-fruehe-hilfen/80722>

13. 불임 부부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제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도 가능함

브란덴부르크 주가 연방자치단체인 ‘불임부부 도움과 지원(Hilfe und Unterstützung bei ungewollter Kinderlosigkeit)’에 가입했음. 이로써 브란덴부르크 주에 사는 부부들이 불임치료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연방자치단체인 ‘불임부부 도움과 지원’은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 출산을 이루고자 하는 부부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브란덴부르크 주는 8번째 지방정부로 이 단체에 가입했음. 이로 인해 브란덴부르크 주에 사는 법적 부부 또는 법적 부부 아니어도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인공수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기프파이(Giffey) 가족부 장관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많은 부부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부담입니다. 자녀 출산의 소원이 의료적인 도움으로만 가능한 이들에게 이로 인해 생기는 재정적 문제로 또 다른 부담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 불임부부 지원 연방자치단체에 가입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점입니다.”라고 말 함.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인공수정 3차 치료과정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가능한 치료는 체외수정(IVF)과 미세수정(ICSI)임. 브란덴부르크 주는 인공수정 및 불임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용 중 의료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은 비용의 50%를 지원할 것임. 중앙정부를 통해 추가적으로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25%가 지원 됨. 이로 총 75%의 비용이 지원 됨. 이 단체에 가입한 지방 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각 지방정부마다 지원 자격 조건이 다르며, 재정적 지원 액수 또한 다름. 인터넷 사이트 정보포탈 “자녀출산 소망 (Informationsportal Kinderwunsch)”을 방문하면, 불임치료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안내함.

2018년 12월 19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inanzielle-unterstuetzung-fuer-ungewollt-kinderlose-paare-jetzt-auch-in-brandenburg/131438>

스웨덴

양육지원		
1	종일 보육권리 철회하는 스톡홀름	118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보수당은 부모보장보험을 줄이고자 함	119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특별지원 강화 필요성 증가	119p
2	녹색당은 취학전 교육기관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수 조원 투입을 계획	120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취학 전 교육기관 커리큘럼 제안에 대한 교원연합의 반응: “실망스러움”	121p
2	새로운 커리큘럼에 더욱 명확하게 제시된 역할분담	122p
3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슈가 커리큘럼에 반영	123p
4	명확한 커리큘럼이 취학전 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124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건강 약화에 시달리는 인원들로 인해 취학전 교육기관(förskola) 부담가중	125p
2	취학 전 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가 되려는 인원 감소 추세	126p
3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 문서화 작업은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볼 여건은 안 됨	127p
4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가 되기 위한 단축학위과정 개시	128p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논문 등)		
1	학교의 디지털화에 있어 지속교육(fortbildning)이 중요함	129p
2	신체는 존중할 가치가 있음	130p
3	신규 데이터 법령과 관련한 우려	132p
4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지원	134p
5	놀이는 유능한 성인과 함께 해야	136p
6	상급 학년(유아학급)으로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위한 조언	137p
7	방과후 학교(fridis)와 취학전 교육기관(förskola)은 아동의 읽기능력을 신장시켜야합니다.	138p
8	“아이들은 실생활보다 놀이에서 더 많은 것을 해냅니다”	139p
9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신체활동과 바깥놀이가 질병 결석을 줄일 것인가?	140p
10	정부지원과 벤치마크 제공이 그룹별 아동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141p

● 양육지원

1. 종일 보육권리 철회하는 스톡홀름

지난해 스톡홀름시의 집권당연합은 양육휴가중인 부모에게도 자녀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는 야당연합이 집권하였고 그들이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양육휴가중인 부모는 이전과 같이 자녀를 최대 30시간까지만 보육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30시간은 여전히 법적 최소 기준인 15시간의 2배에 해당함.

2014년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로타 에드홀름은 종일 보육권리를 보장하는 개혁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교원소식지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일반에 대한 권리는 취학전 교육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명문화 되었으므로, 자치단체 의결을 통해야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힘.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교육적인 측면 때문인지 예산 측면 때문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둘 다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종일보육권보장 개혁안으로 인해 취학전 교육기관 교직원의 업무강도는 상당히 높아졌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저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금이 확보되어도 종일보육권보장 개혁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취학전 교육기관의 낮은 비율의 유자격 교사와 같이 다른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답함.

스톡홀름 교원 연합의 의장인 요한 뢰로스도 종일보육권보장 개혁이 실행되기에 앞서 다른 이슈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아동에게 필요한 만큼 취학전 교육기관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문제는 스톡홀름은 교사가 부족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출처 : <https://forskolan.se/stockholm-skrotar-ratten-till-heltid/>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보수당은 부모보장보험을 줄이고자 함

부모보장보험 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단축, 유급양육휴가 사용을 최초 1년 내로 집중. 그리고 자녀 간호를 위한 병가 사용 시 첫 하루는 급여지급 제외함. 보수당의 청년분과장 벤자민 도우사, 여성분과장 울리카 쉐스트롬, 그리고 경제학 박사 에바 우덴이 일간지 DN의 토론란에서 제시한 제안을 요약하면 위와 같음.

이러한 변화는 재무부에 더 많은 자금 확보를 가능케 하므로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가능하게 함(급여의 100퍼센트까지). 이를 제시한 보수당의 정치인들에 의하면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그들의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 그들은 “목표는 일반 가정에서 양육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수입의 감소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육휴가의 사용이 부부 중 누구의 수입이 더 많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강조함.

이에 많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⁵⁾이나 상기제안에 아동에 대한 관점은 배제되어 있다는 주장⁶⁾이 제시됨.

2018년 11월 16일

출처 : <https://www.svt.se/nyheter/inrikes/moderater-vill-korta-foraldrarforsakringen>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특별지원 강화 필요성 증가

학교조사위원회의 최근 리뷰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취학전 교육기관(förskola)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음을 지적함. 학교조사위원회는 무작위로 선정된 35개의 기관 중 3분의 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예를 들어, 기관들이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분석함에 있어, 또한 현재의 노력을 문서화하고 추적하고 평가함에

5) <https://www.arbetsvarlden.se/forskare-karensdag-i-vab-skulle-motverka-jamstalldhet/>

6) <https://www.gd.se/artikel/opinion/familjepolitik-moderaternas-befangda-forslag-utan-barnperspektiv>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이는 아동에게 그림, 문자, 놀이, 상호작용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킴.

학교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관의 경우, 교사들에게 역량개발이나 심사숙고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주어짐. 또한 주어진 과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특수교사와의 접근성이 높았음.

대부분의 기관에서 특별지원을 별도의 해결책을 통해서가 아닌 일상 활동 내에서 제공하고 있음은 학교조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임. 학교조사위원회는 또한 기관장들이 교사들에게 관련 안내나 역량 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2018년 1월 15일

출처 : <http://forskolan.se/sarskilda-stodet-maste-bli-battare/>

2. 녹색당은 취학전 교육기관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수 조원 투입을 계획

녹색당은 2019년부터 수 조원을 취약지역의 취학전 교육기관에 투입하고자 함. 내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부터는 연간 200억 크로나(한화 2.5조원 상당)에 이를 것임. 녹색당은 또한 정부보조를 늘려 취학전 교육기관 학급당 아동수를 줄이고자 하는데, 이는 내년부터 3년간 연간 10억 크로나(한화 1,250억원 상당)에 해당함.

이른바 형평성예산이라 불리는 이 금액들은 지원이 가장 시급한 지방자치단체와 취학전 교육기관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될 것임. 이는 해당 교육기관의 필요에 따라 신규고용, 급여인상, 직무능력 개발 등에 쓰일 수 있음.

녹색당 대변인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만약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학급당 아동수를 법령으로 규제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취학전 교육기관은 아동의 배움의 근간입니다.”라고 이러한 지원의 배경을 설명함. “우리는 15세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양질의 취학전 교육기관에 있었던 학생들과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취학전 교육기관의 학급당 인원수가 증가해 오던 트렌드를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취학전 교육기관의 업무환경은 고됩니다.”

녹색당은 또한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고자 함. 프리돌린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고 동시에 취학 전 교육기관은 더 유능한 교사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2018년 8월 29일

출처 : <https://lararnastidning.se/mp-vill-satsa-miljarder-pa-likvardig-forskola/>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취학 전 교육기관 커리큘럼 제안에 대한 교원연합의 반응: “실망스러움”

현재의 취학 전 교육기관 커리큘럼은 1998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그 후로 일부 수정이 있었음. 그러나 2011년 발효된 새로운 교육법령에 의거한 개정은 이제야 이루어졌으며 이는 취학 전 교육기관이 교육(education)과 가르침(teaching)을 담당하고 있음을 성문화하였음.

교육부가 정부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교육과 가르침이라는 개념은 이제 취학 전 교육기관의 개정된 커리큘럼에 포함되었음. 이는 취학 전 교육기관이 학교체계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함. 교육부가 연말에 처음으로 제시했던 커리큘럼 개정 제안은 교원연합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음.

교원연합은 학교법에 오직 유자격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만이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함. 반면 교육부의 제안에서는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의 관리 하에 가르침이 행해진다.”라고 서술하고 있었음. 교육부는 비판을 받아들여 문구를 수정하였고 현재는 “가르침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의 책임”이라고 되었음.

피아 리젤은 “명백히 아닙니다. 우리는 커리큘럼이 학교법령, 즉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만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책임이라는 단어로 이러한 구분을 흐리고 있습니다.”라고 함. 왜 교육부는 교원연합과의 회의를 계획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커리큘럼을 현재 교사부족이라는 상황에 맞추려 하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가르침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면 누가 전공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취학 전 교육기관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 “우리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커리큘럼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제안에 나타난 다른 주요한 변화는 교육부가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것임.

교육부의 안나 웨스터홀름은 이 과제가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함. “우리가 이 이슈를 구체화하려고 하였음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심지어 현직 교사들도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정의내리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취학 전 교육기관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주제학습이나 강의수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 의하면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의 가르침은 계획된 창작활동과 같은 일상 활동/루틴과 같은 것도 해당되고 또한 자생적인 학습기회들도 해당됨. 안나 웨스터홀름은 “예를 들어, 교사가 아동과 바깥놀이를 하며 낙엽을 공중에 뿌리는 놀이를 한다면, 교사는 이 상황을 통해 왜 낙엽이 바닥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함.

하지만 가르침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정말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된 커리큘럼의 한 섹션 전부를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의 모든 상황(식사시간이나 현장학습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사들이 주의 깊게 인식하여 아동에게 자극을 주고 격려해 준다면 모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커리큘럼을 위한 제안에서 교육부는 아동의 상상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 또한 아동이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고 수화를 배우고(이민 아동의 경우)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2018년 3월 23일

출처 : <https://lararnastidning.se/lararforbundet-om-laroplansforslaget-for-forskolan-vi-ar-besvikna/>

2. 새로운 커리큘럼에 더욱 명확하게 제시된 역할분담

최근 교육부 장관 구스타브 프리돌린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개정판 커리큘럼을 선보임. 개정판 커리큘럼은 취학전 교육기관의 유자격 교사와 보조교사 간 역할분담에 대해 명확히 밝히며 특히 유자격 교사의 교육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교육부 장관은 “커리큘럼이 취학전 교육기관 내에서의 교육 및 일상 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안내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취학전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그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라

는 의견을 밝힘. 지난해 교육부에서 커리큘럼의 최종본 제안서를 발표했던 당시에 교원연합회는 교육과 관련한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커리큘럼이 학 교법령과 더 일치하기를 요구했음. 그 요구사항은 유자격 교사만이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교원연합회의 의장인 요한나 야라 오스트란드는 상기의 역할들이 더욱 명백해진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힘. 의장은 “예전에는 책임분담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어 취학전 교육기관의 기관장과 업무수행관련자들 모두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동의 교육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유자격 교사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라고 함. 유자격 교사의 책임 및 교육이라는 개념을 더 명확하게 밝힌 것 이외에도, 아동의 온전성,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평등과 같은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언급이 있었음.

2018년 8월 29일

출처 : <https://forskolan.se/tydligare-rollfordelning-i-nya-laroplanen/>

3.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슈가 커리큘럼에 반영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슈가 커리큘럼에 반영되려 함. 연구원 세실리아 카이만은 아동들이 함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음의 내용을 그와의 질의과정을 요약한 내용임.

Q.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A. 지구상의 살아있는 생물체나 장소와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방식을 통해서, 넓게 바라보고 주요한 이슈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함. 재미에 대한 탐구적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생물다양성과 다수의 에코시스템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동들이 더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습관들을 계획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취학전 교육기관에서는 아동들에게 발언권을 허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함. 이를 통해 아동들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음.

Q. 연구원은 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A. 지속가능성 이슈는 상당히 시사적이며 흥미진진한 도전이 있는 다학제적인 영역임.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가야 하는 대상은 바로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미 있는 일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필요가 있음.

Q. 현재 이 이슈를 커리큘럼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커리큘럼은 모든 교사들이 참조해야 하는 안내문건이며 따라서 강한 효과가 있음. 이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커리큘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함.

Q. 취학전 교육기관의 자연과학 교육 현황은 어떤지?

A. 취학전 교육기관에서의 자연과학 교육은 대체로 매우 창의적이고 흥미롭다 할 수 있음. 많은 취학전 교육기관이 프로젝트를 심화시키고 탐구적인 관점을 견지함. 예를 들어, 아동들은 곤충호텔이나 생물다양성 보호와 같은 것에 대한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냄. 교사들은 아동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따르고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관련주제의 지식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아동이 탐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음.

2018년 8월 20일

출처 : <https://forskolan.se/barnen-ska-leva-langst-pa-planeten/>

4. 명확한 커리큘럼이 취학전 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취학 전 교육기관의 모든 아동은 동등한 보살핌과 발달 그리고 학습을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정부는 20년이 된 커리큘럼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양질의 취학 전 교육기관은 동등한 학교 시스템의 기초임. 하지만 학교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취학 전 교육기관들 간의 교육의 질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정부는 20년 된 구 커리큘럼을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도전에 더 적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취학 전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기관의 질과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의 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함.

교육부 장관인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취학 전 교육기관은 목표 지향적이며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이는 커리큘럼이 기관장, 교사 및 돌보미들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합니다. 학습과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작은 수의 그룹별 아동 수, 리더십,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라고 함.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교육부의 커리큘럼 리뷰가 있었으며 리뷰는 연구자, 취학 전 교육기관의 기관장 및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 교육부의 제안과 관련하여 주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래와 같음.

- 읽기가 강조됨 : 개정된 커리큘럼에서 정부는 소리 내어 읽어주는 이야기 듣기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에 대한 대화를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의 기회 제공을 강조.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의 문해능력 및 언어발달 등은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정부의 각급 유치원의 서적관련 투자와 연계될 수 있음
- 돌보미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명료화 및 교사의 차별화된 책임부여 : 정부는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아동 돌보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그들의 교육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음. 동시에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에 대한 교사의 차별화된 책임도 강조함.
-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커리큘럼에 명시 : 아동의 신체적 그리고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처음으로 커리큘럼에 명시됨. 취학 전 교육기관의 목표에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인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음.
- 개정 커리큘럼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2018년 9월 20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18/08/en-fortydligad-laroplan-ska-hoja-kvaliteten-i-skolan/>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건강 악화에 시달리는 인원들로 인해 취학전 교육기관(förskola) 부담가중

교원연합회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정신건강은 악화되어왔음.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과 방과후 교사들은 모든 직업군 중에서 가장 크게 악화된 직업군임.

사회보장보험의 분석원인 올릭 린드왈은 오는 4월에 출판 예정인 보고서를 언급하며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정신건강 악화)은 지속적으로 높을 것입니다”라고 함. 현재 건강이 악화되는 인원들이 일정부분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경우임.

교원연합의 직장 옴부즈만은 전국의 많은 취학전 교육기관과 방과후 기관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가 가장 많은 스톡홀름의 경우, 작년엔 아동 그룹 사이즈가 증가했는데, 스톡홀름 교원연합회장인 요한 튀로스에 의하면 이는 부모가 양육휴가중인 경우에도 아동이 종일반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스톡홀름의 교원연합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수년간 우리는 여러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업무량을 줄이고 업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명백한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거나 매우 어렵듯한 답변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원연합의 요구는 교사증원, 그룹별 아동 수 감축, 관리자별 담당 교사 수 감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2년 전, 전직 스톡홀름시 인사담당관인 스텔라 텔리오스는 교원소식지와 인터뷰에서 교육 행정부처는 건강악화통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직업군을 위해 “분석을 실시하고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 교사들을 위해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교육행정부의 인력담당관인 아스트리드 가드만은 “우리는 분석에서, 예를 들어, 보모, 어시스턴트, 그리고 조리사 등이 더 높은 비율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았고 이들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라고 함.

스톡홀름시는 이제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과 보모들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이는 심층조사를 실시하려는 업무의 일환임.

“교원연합회는 취학전 교육기관 기관장들이 너무 많은 수의 교직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저는 많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취학전 교육기관 내에서의 더 집중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재편성 작업에 착수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출처 : <http://lararnastidning.se/sjuktaalen-pressar-forskolan/>

2. 취학 전 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가 되려는 인원 감소 추세

이번 가을 교육학과 지원자 비율이 5.4퍼센트 감소했음. 가장 큰 감소폭은 14퍼센트를 기록한 유아교육학과임. 고등교육위원회가 실시한 대학 신입생 지원현황 분석에 의하면 교육학과 지원은 줄어들고 있음. 교육학과 전체적으로는 5.4퍼센트의 감소가 나타났음. 1순위 지망 인원수

로는 3.2퍼센트의 감소를 보였음. 유아교육학과는 13.3퍼센트의 감소를 보였고 1순위 지방 인 원수로는 14퍼센트의 감소가 나타났음.

고등교육위원회의 디렉터인 카린 뢰딩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왜 나하면 스웨덴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더 많은 유자격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함. 또 다른 분석결과는 유아교육학과에 남학생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임. 카린 뢰딩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유아교육학과는 이미 여학생이 대다수로 1순위 지방의 93퍼센트가 여 학생입니다.”라며 우려함.

특정 교과목 교사나 초중등 교사가 되려는 인원도 각각 6%p, 7%p씩 감소하였음. 직업훈련 교사, 특수교사, 그리고 도시공학과 교육학을 접목시킨 학과의 경우에는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았음. 지원자 수는 각각 10%, 14%, 그리고 9% 증가했으며, 1순위 지방의 경우 17%의 증가를 보였음.

2018년 4월 25일

출처 : <https://lararnastidning.se/farre-vill-bli-forskollarare-och-larare/>

3.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 문서화 작업은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볼 여건은 안 됨

알메달렌(Almedalen)에서 열린 취학 전 교육기관 세미나에서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업무의 질에 대해 논의함.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이자, 교수, 그리고 옘살라 대학 기관장 프로그래밍의 학과장인 앤더스 안크비스트는 스웨덴 취학 전 교육기관의 업무의 질이 지난 수 십 년 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음.

교수는 취학 전 교육기관이 경험해 온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발달을 평가하고 교육업무를 문서화하고, 교육의 질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음을 강조함. 2011년부터 학교법안은 취학 전 교육기관의 업무가 연구와 검증된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함을 명시했지만 애매한 사항도 존재함.

앤더스는 “연구와 검증된 경험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명시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요구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함. “여러 보고에 의하면,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사 및 기관장들로 하여금 수많은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심화시킬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날 휴대전화 사용과 비

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진을 찍는 데에는 능숙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진들을 제대로 감상합니까?”

2018년 7월 3일

출처 : <https://lararnastidning.se/forskollarare-dokumenterar-men-hinner-inte-reflektera/>

4.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가 되기 위한 단축학위과정 개시

단축된 유아교육전공과정이 최초로 개설되며 이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돌보미 경력이 필요함.

- 2019년 가을, 린네 대학에서는 기존보다 1년이 단축된 유아교육전공과정이 시작됨. 전공 과정은 온라인이나 파트 타임으로도 수강이 가능하여 일과 병행하는 것도 수월함.
- 교육대학학장인 스테판 룬드는 “기존 교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 매우 필요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돌보미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함.
- 일반 정규 유아교육학과와 동등하게 대우받는지?
- 스테판 룬드는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해 1년 반에 걸쳐 조사를 했고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는 교육을 마치면 유자격 교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적으로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현장경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함.
- 또한 그는 “학생들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실습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교육적 운영에 대해 실습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현재 직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다수의 취학전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함.

2018년 12월 13일

출처 : <https://lararnastidning.se/snabbutbildning-till-forskollarare-lanseras/>

❖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논문 등)

1. 학교의 디지털화에 있어 지속교육(fortbildning)이 중요함

정부와 지방자치의회는 학교의 디지털화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지속교육과 재원마련이 두 가지 중요한 이슈임. 지방자치의회의 교육부문장인 마리아 카릴은 수 주 안에 합의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작년 10월, 정부는 학교의 디지털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함. 정부의 목표는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임. 학교 교사,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 그리고 기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

지방자치의회(이자 고용주 연합)는 정부와 함께 정부가 수립한 세 가지 중점영역(아래 참조)을 실현시키는 업무를 부여받음.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음.

지방자치의회 교육부문장인 마리아 카릴은 “저는 수 주 내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한 재원에 대한 논의도 되었으나,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급을 아끼고자 합니다.”라고 말함. 그녀는 정부의 전략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인 선물상자들에 비유하며, 선물상자에 내용물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풀어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함.

지방자치의회는 이미 정부의 목표를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함. 그들은 관련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그들의 기대사항이나 관심사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였음.

마리아 카릴은 “초창기인 지금은 우리는 되도록 말을 하기 보다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진행시켜서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해당사자들은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힘.

원연합의 부회장인 마리아 뤼은 지난 주 지방자치의회에서 진행한 원탁토론에 참가하였음. 그녀는 “저는 교직원들의 역량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순리에 맞게 실행 계획이 세워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한 스케줄과 함께 마련되어 다양한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함. 그녀는 또한 모든 관련 인원들이 교육을 받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음. 또한 적절한 장비 및 교육/기술 지원도 중요한 요소임.

디지털화 전략에 있어 정부는 취학전 교육기관 기관장 및 학교 교장들이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교육을 안내하고 이끌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그들은

아동의 욕구에 기반을 둔 적절한 해결책을 평가하고 올바른 장비를 선택하며 교육/기술 지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국회와 디지털화 위원회는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해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함. 이는 장비 및 교육 리소스와 관련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화 계획은 아동 및 교사 모두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스웨덴 교육부 역시 정부로부터 교육기관들을 디지털화하고 관련 인원들을 참여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음. 그들은 이와 관련한 보고를 오는 3월 정부에 실시할 예정임.

2018년 1월 19일

출처 : <http://lararnastidning.se/fortbildning-avgorande-for-att-forverkliga-skolans-digitaliseringen/>

2. 신체는 존중할 가치가 있음

아동의 신체적 자율성(bodily integrity)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커리큘럼에 포함되었음. 이미 많은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아동에게 원하지 않는 접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Stop! My body!”라는 핸드북이 쓰이고 있음.

지난 가을 미투(metoo) 캠페인을 따라, 어떻게 하면 성추행이 취학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부터 예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제안들이 생겨남.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인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아동의 신체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

어떻게 하면 아동에게 신체와 그 경계(boundary)에 대해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체에 대한 존중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그 상대를 존중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라고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인 크리스텔 멜베리는 말함. 간단히 말해 “Stop! My body!”는 신체의 가치에 대해 전달하고, 신체의 일부는 사적인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아동이 “No”라고 말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있음. 또한 핸드북은 아동이 학대경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좋은 비밀과 나쁜 비밀을 모두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음.

크리스텔 멜베리는 작은 손인형인 플리파가 이 주제에 대해 말하도록 함. 그녀는 손인형이 아동의 친구가 되는 이러한 방식이 활동을 덜 드라마틱하게 해준다고 생각함. 크리스텔 멜베리

는 “손인형은 자신이 장난스레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놀이터로 달려갔고, 거기에서 약간 이상한, 자신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소년이 그네에서 자신의 다리에 손을 댄다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고 아동들은 모두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고 하며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동들이 스스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되돌아보고, 각자 무엇을 느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라고 함.

크리스텔 멜베리는 “아동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리에 손을 대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룹 활동에서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함.

“Stop! My body!”는 교직원들 사이에서 그들이 얼마나 아동과 신체적인 접촉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불러일으킴. 크리스텔 멜베리는 다른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이 핸드북을 사용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음. 크리스텔 멜베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이 아동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안아주고 보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는 중요한 토론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토론 이후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인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더 사려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스톡홀름의 교수이자 젠더 연구자인 크리스티안 에이데발드는 취학전 교육기관 교직원들 사이에서 각자가 신체적 자율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말함. 그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 교직원, 그리고 기관장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그는 “물론 모두가 성추행을 종결시켜야 함에 대해 명백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듬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주로 허용된다고 믿는 반면에, 일부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을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 역시도 아동의 신체적 자율성을 확립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음.

크리스티안 에이데발드는 “대화만으로도 인식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에게 질문을 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함. 이는 어떻게 아동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에 대한 당신은 생각은 어떠한가? 그냥 가서 갈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지 들어볼 것인가, 혹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닐까? 그는 아동의 신체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보살핌의 업무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

적함. 예를 들어, (아동이 다른 사람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원할 경우라 했을 때) 기저귀를 갈아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

크리스티안 에이데발드는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성추행 예방을 위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성평등을 포함하는 여러 부문을 관장하는 복잡한 업무임을 강조함. “미투는 이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며 취학전 교육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해 무엇인가를 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중요한 이슈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에게 주어진 전반적인 보살핌이라는 임무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슈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모든 취학전 교육기관의 업무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Stop! My body!”가 아동에게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함.

그는 “저는 아이들에게 ‘stop’이라는 말을 하도록 가르친다고 해서 학대를 온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추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된다면, 조금 더 빨리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함.

2018년 2월 19일

출처 : <http://forskolan.se/kroppen-ar-var-d-respekt/>

3. 신규 데이터 법령과 관련한 우려

기저귀 목록, 연락망, 아동의 식습관 등 최근 몇 년간 스웨덴의 유치원에서는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컴퓨터로 처리해 왔음. 워드나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기가 간단하며,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그리고 그 규정은 곧 더욱 강화될 것임. 5월 25일부로 현재의 개인정보 법규는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규정으로 대체될 것임.

아직 정부가 입법발의를 하지 않아서 세부내용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알려짐. 가장 주목을 받는 변화는 고액의 벌금임: 사기업의 경우 2억 크로나(한화 250억 상당) 그리고 공적 영역의 경우 1000만 크로나(한화 12.5억 상당)의 벌금이 부과됨.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등록데이터에 대한 의무사항에 관한 것임. 이에 의하면 기업이나 자치 단체는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는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른 것임. 스웨덴 자치단체연합의 학교 디지털화 프로그램 매니저인 요한나 칼렌은 유럽 연합 데이터 보호 규정이 정보저장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그보다는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IT 환경(그리고 관련 서비스 및 사용되는 저장장치)을 조정하는 것임.

“근로자로서 어떠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저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언제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도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은 취학 전 교육기관의 평교사나 주임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기관장의 책임임. 그러나 개별 교직원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될 수 있음.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이자 교원연합 의장단의 일원인 피아 리젤은 이러한 일들이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함. 만약 고용주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로 하여금 이전 문서나 리스트 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절차를 수립하도록 한다면, 교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보장받아야 함.

“요즘 많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은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한다면, 그들에게(대신) 어떤 다른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피아 리젤은 많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이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우려한다고 전함. “아직 이에 대한 무지가 팽배하며,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화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시다. 이제 곧 5월 25일이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이 많습시다.” 피아 리젤은 취학 전 교육기관 교사들에게 직속 상사와 이야기를 나눌 것을 권유함. “대부분의 취학 전 교육기관 기관장들은 교육부와 자치단체연합으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이는 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2018년 3월 26일

출처 : <https://forskolan.se/ny-datalag-vacker-oro/>

4.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지원

마텔레인 회만의 논문은 특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함.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아동의 상태 악화 및 학교 시작의 어려움이라는 위기가 증가함.

Q: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A: 6개 자치단체의 92개 학급, 280명의 교사에게 질문지를 돌려 아동의 참여, 행동문제 그리고 상호작용을 평가하도록 했음. 연구는 2년간 지속되었고 대략 800여명의 1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함. 연구목적은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이 아동들의 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특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상호작용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음.

Q: 질문지의 내용은?

A: 교직원들은 아동들이 어떻게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답함. 예를 들어, 아동이 장시간 소요되는 활동을 마무리 지었는지, 아동의 주위가 산만하거나 혹은 충동적인지, 아동의 상호작용, 협동놀이에서 아동의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교직원의 능력에 관한 것들도 포함됨. 또한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지원을 받는지도 포함.

Q: “참여”가 논문의 키워드 중 하나인데, 참여적인 아동의 특성은?

A: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하고, 언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함. 과제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음.

Q: 주요 결론은?

A: 긍정적 상호작용과 세심한 교직원이 아동에게 유익함. 동시에 63%에 달하는 특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조사위원회의 보고와 일치하는 내용임. 이러한 아동에게 시의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동이 소외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웰빙, 학습능력을 감소시키며 이는 이후 학교에서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음.

Q: 1세 아의 경우 행동문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A: 아동이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1세 아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집중을 하지 못함. 이들의 참여

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이 더 세심하게 반응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이 협동놀이에 호기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Q: 취학 전 교육기관의 교직원들이 이러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A: 아동이 활동이나 놀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임. 많은 응답에서 교직원들은 아동의 곁에서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아동이 집단 활동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 어려워하는지를 살피는 것. 이에 비해 교사가 어떻게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매우 소수의 전략만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교사가 과잉활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도 그룹에서 잘 놀고 있는 경우에는 방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아동이 어떻게 협동놀이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이러한 협동놀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려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아동이 행동문제를 보이는 경우를 감소시킴. 중요한 것은 장점을 강화시키는 것.

Q: 많은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아동이 4~5세가 될 때까지 개입을 하지 않는데, 왜 이리 늦는 것인지?

A: 4~5세경이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임. 그 이전에는 비록 교사들도 아동의 행동문제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직접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또 다른 이유는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식별하는 전략이 부재하거나 개별 아동의 요구를 판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Q: 어떠한 전문적 지원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A: 교육훈련 및 지원팀과의 더 많은 협업. 그들은 개별 아동의 어려움이나 어떻게 아동의 의사소통을 돕는가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음.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어떠한 종류의 노력이 필요할지를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효과적임.

Q: 많은 사람들이 아동이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설문에 참여했던 많은 인원들이 부모로부터 어떻게 본인들이 그들의 자녀를 대했으면 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듣기를 원했는데 이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지나치게 이러한 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음. 건설적인 방법은 귀가시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아동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잘 되고 무엇을 잘 안되는지를 부모와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임.

Q: 연구의 함의는?

A: 어떠한 지원이 취학 전 교육기관 아동들에게 보다 더 일찍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룹 수준의 노력이 충분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일부 아동은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함. 만약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이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일상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다른 아동과 같은 수준의 발달과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임.

2018년 4월 30일

출처 : <https://forskolan.se/battre-stod-at-barn-med-svarigheter/>

5. 놀이는 유능한 성인과 함께 해야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인 로타는 이 문제로 고민하던 중, 놀이 전문가인 일바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구함.

- 로타: 일부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자 함. 일례로, 어떤 아이는 혼자만 놀게 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다른 모든 아이들과 놀고 싶어 하지는 않을 수 있음. 때론 한 아이가 같이 놀아도 되냐는 질문에 다른 아이가 “아니, 너 나랑 친구가 아니잖아”라고 하기도 함. 어떻게 해야 할지?
- 답변: 이러한 상황은 성인들이 아동의 놀이에 더 많이 함께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함. 많은 경우 성인들이 이러한 책임을 아동에게 넘기고 있다고 생각함.

아동이 놀이를 할 때, 우리 성인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만연함. 실제로 ‘자유 놀이’는 성인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지칭함. 자유놀이는 자생적으로 일어나며, 놀이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놀이를 고안하는 것임. 그러나 자유놀이도 차례 지키기, 합의나 상호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함.

아이들마다 놀이에서의 유능성 그리고 놀이의 규칙을 이해함에 있어 차이를 보임. 따라서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어떻게 놀이를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됨. 이러한 책임은 아동이 스스로 놀이를 해 나가고, 다른 놀이를 찾고 또한 다른 아동의 놀이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함. 이러한 기관의(놀이)문화는 아동의 책임이 아닌 성인들의 책임임. 모든 아동은 유능한 성인(그리고 다른 연령의 아동들)과 함께 그들의 놀이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됨. 이는 수월한 또래관계로 연계됨. 만약 이러한 좋은 놀이 문화를 배양한다면, 일부 아동이 놀이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

2018년 4월 25일

출처 : <https://forskolan.se/lek-kraver-kunniga-vuxna/>

6. 상급 학년(유아학급)으로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위한 조언

아이패드, 프로젝터, 페이스타임, 동영상, 그리고 창의적인 과제를 통해 한 지역 내의 서로 다른 취학전 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5세 아동들이 유아학급(취학전 교육기관과 학교와의 중간)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알게 됨.

Q: 페이스타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서로 알게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A: “이 지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유아학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른 아동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치원의 교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유아학급으로의) 전환을 수월하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Q: 두 유치원의 아이들이 페이스타임을 통해 만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A: “날짜를 정하고 아이패드를 삼각대에 고정시킨 후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모든 아동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아동들은 상대방의 아동들에게 자신들의 유치원을 보여주고 또(서로에게) 과제를 부여합니다. 교사는 아동들이 과제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반대편의 아동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Q: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려는 동료들에게 노하우를 전해준다면?

A: “같은 유아학급에 진학할 다른 유치원의 아동들에게 연락을 취하세요. 우리는 관련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과감히 시도해 볼 것을 권합니다.”

2018년 5월 4일

출처 : <https://forskolan.se/sa-blir-overgangen-till-forskoleklassen-battre/>

7. 방과후 학교(fridis)와 취학전 교육기관(förskola)은 아동의 읽기능력을 신장시켜야 합니다.

읽기위원회는 취학전 교육기관 및 방과후 학교에서 아동의 읽기능력을 향상을 위해 교직원들이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제안함. 정부는 읽기위원회에 모든 아동들이 최대한의 읽기 능력을 배양하고 즐거운 읽기 경험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안을 검토할 것을 위임함.

읽기위원회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는 “아동의 읽기를 고무시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안함.

- 방과후 학교의 교직원들은 읽기 관련 업무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가질 것.
- 커리큘럼에 방과후 학교가 아동의 읽기를 고무시킨다는 것을 명시할 것.
-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의 교직원들이 어떻게 아동의 전반적인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및 읽기능력 발달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지에 관한 팁들을 포함하는 지원 교재를 제공함.

읽기위원회는 취학전 교육기관에도 이와 유사한 제안들을 제안함.

- 취학전 교육기관 커리큘럼에 아동의 문학에 대한 흥미를 발달시키는 것을 지향할 것을 명시해야 함.
- 교육부는 취학전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문학관련 업무를 수행할 지에 대한 지원 교재를 해당 기관에 제공함.
- 또한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직원들에게 읽기관련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현재보다 더 많이 제공해야 함.

읽기위원회는 학교 도서관을 강화하고자 함.

- 현재 법률은 모든 학교들이 학교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도서관에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할 필요는 없음. 이러한 법망의 허술함에 기대어 많은 학교들이 실제로 무인도서관을 선택하고 있음. 현재 위원회는 학교조사위원회가 유인도서관에 관한 이슈, 아동의 학교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를 원하고 있음.

학교에서의 읽기와 관련한 제안들은 대체로 일반적이었음.

- 위원회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체계적으로 읽기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교사가 읽기와 관련하여 아동의 롤모델이 될 것을 주장함.

2018년 6월 9일

출처 : <https://lararnastidning.se/fritids-och-forskolan-ska-lyfta-ungas-lasning/>

8. “아이들은 실생활보다 놀이에서 더 많은 것을 해냅니다.”

모니카 닐슨은 아동의 상상력을 연구하는 연구자임. 그녀는 최근 놀이 세상에 관한 책을 출판함.

Q: ‘놀이세상이란 무엇인지?’

A: “이는 아동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내는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역할을 통해 만나고 동화, 문학, 그리고 다른 문화적·심미적 형태의 것들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놀이세상은 아동이 상상력을 펼치도록 하고, 아동이 게임 안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동은 언제나 놀이를 하는 반면, 교사는 놀이에 아동만큼 능숙하지 않습니다. 아동은 이야기에서 펼쳐지는 선과 악 혹은 안도감과 두려움 같은 갈등구조에 매우 흥미 있어 합니다.”

Q: 놀이와 학습을 구분하자면?

A: “놀이는 자기 충족적이며 특정 목표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닙니다. 놀이에는 지켜나가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아동은 규칙을 지켜 나가며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가만히 서있기 어려워하는 아동들도 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맡게 되면 이를 해냅니다. 아동은 실생활보다 놀이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냅니다. 따라서 놀이는 아동의 가장 근접한 발달영역인 것입니다.”

Q: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 얻었으면 하는 바가 있다면?

A: “저는 이 책이 어떻게 업무를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관련 연구는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아동의 놀이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놀이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아동의 놀이에 개입해서 방해하면 안 된다는 기존 관점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놀이가 교육활동에 비해 그 가치가 낮다는 관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Q: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취학전 교육기관의 교직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무엇을 보았는지?

A: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식수준이 높고, 양질의 업무와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취학전 교육기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는 더 많은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존 지식과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경험을 간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들의 업무를 존중하는 동시에 개선의 가능성을 고려한 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8년 9월 26일

출처 : <https://forskolan.se/barn-klarar-ofta-mer-i-leken-an-i-vanliga-livet/>

9.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신체활동과 바깥놀이가 질병 결석을 줄일 것인가?

역학 및 공중의학 센터에서 취학 전 교육기관의 아동 및 교사의 신체활동에 대한 연구를 개시함.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가능하면 질병 결석을 줄일 수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다니엘 베리린드는, “신체활동이 아동을 건강하게 하고, 또한 활동적인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취학 전 교육기관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거의 모든 아동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한 아동들이 더 많이 움직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함.

바깥놀이는 질병 결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짐. 전반적인 목표는 취학 전 교육기관의 환경과 신체활동 및 바깥놀이에 할애되는 시간이 아동과 교사의 신체활동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 교사의 신체활동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고자 함. 또한 아동의 바깥놀이 시간과 질병결석 횟수가 관계가 있는지도 조사함. 다니엘 베리린드는, “아동이 바깥놀이를 많이 할수록 감염률도 낮고 아동, 교사, 그리고 심지어 보호자 간의 질병 확산도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질병결석 및 부모의 아동간호를 위한 휴가를 줄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라고 함.

취학 전 교육기관들은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을 것임. 쇠터말름 지역의 27개 취학 전 교육기관이 연구에 참여함. 500여명의 아동과 100여명의 교사는 7일 연속으로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작은 장비를 착용하게 되고, 신체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후 6개월간 그들의 질병 빈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심리적 건강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며 아동의

보호자도 참가하게 될 것임. 연구는 2019년 여름까지 진행될 것이며 목표는 취학 전 교육기관의 활동 중 조정을 통해 아동과 교사의 신체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임.

2018년 9월 20일

출처 : <http://ces.sll.se/aktuellt/ger-fysisk-aktivitet-och-utomhustid-i-forskolan-mindre-sjukfranvaro/>

10. 정부지원과 벤치마크 제공이 그룹별 아동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스웨덴 교육부의 정부지원평가에 따르면, 정부지원과 벤치마크 제공이 그룹별 아동수를 줄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립 및 사립 취학전 교육기관의 77%가 생각함.

- 그룹별 아동 수 감소: 전국 수준에서 취합했을 때, 그룹별 아동 수는 2014년에는 평균 16.9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5.3명으로 줄어들었음.
- 아동 그룹별 교직원 수 감소: 전국 수준에서 그룹별 아동 수가 감소한 것과 동시에, 그룹별 교직원 수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에는 한 아동 그룹을 담당하는 교직원은 평균 3.2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평균 3명으로 감소하였음.
- 대부분 정부지원이 질적 향상을 가져옴: 교육부의 미카엘 엘블롬은 “인터뷰에 응한 많은 기관장들은 정부지원이 기관의 질적 향상,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교육을 위한 더 많은 시간확보에 공헌했다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일부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응답했는데 매년 정부지원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함.
- 정부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2015년부터 교육부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공립 및 사립 취학전 교육기관에 그룹별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실시해 왔음. 현재까지 매년 총액 8.28억 크로나(한화 1,040억원 상당)가 지원되었음.
- 그룹별 아동 수에 관한 벤치마크: 교육부의 취학전 교육기관 목표성취를 위한 조언에 그룹별 아동수에 대한 벤치마크가 코멘트로 남겨져 있음. 벤치마크는 1-3세 아동의 경우 그룹별 6-12명, 4-5세 아동의 경우 그룹별 9-15명을 적정선으로 지정하고 있음.

2018년 12월 3일

출처 :

<https://www.skolverket.se/om-oss/press/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18-12-03-ansvariga-for-forskolor-bidrag-och-riktmarken-har-paverkat-barngruppernas-storlek>

영국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새로운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6천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웨일즈 정부	143p
2	잉글랜드 교육부, 취약계층 유아 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 공개 입찰 공고	143p
3	30시간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보육시설 재정적 타격	145p
4	영국 노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보육 정책 방향	145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관리		
1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사립 어린이집	146p
2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핵심적 특징들	147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영유아 야외 낮잠을 장려하는 과거 보육 실천으로의 회귀	149p
2	야외 활동의 가치에 주목하는 스코틀랜드의 유아교육	150p
3	어린이집에서의 ICT 활용에 관한 유아교육 종사자들의 견해는?	151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스코틀랜드 보육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152p
2	남성 교원 확보를 위해 스코틀랜드 50,000파운드 재정 지원	152p
3	보육 제공 및 점검에 관한 잉글랜드 교육기준청 공식 통계	153p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논문 등)		
1	중국 투자자들로 인해 10% 이상 증가한 영국 보육 산업의 비용	155p
2	2018 잉글랜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156p
3	2018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잉글랜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158p
4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의 2017/18 연례보고서	159p
5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보육 관계자들	160p
6	교사와 전문가들의 비판에 직면한 잉글랜드 유아 기초학력평가(Reception Baseline Assessment)	161p
7	잉글랜드 유아교육과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The Study of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SEED)	162p
8	2018년도 잉글랜드 '영유아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 성취 결과	163p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새로운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6천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웨일즈 정부

웨일즈 정부는 2020년부터 맞벌이 부모의 3~4세 자녀에게 현재 등록된 보육 기관에서 10시간 제공하는 현행 체제에서 20시간 더 보완하여, 연 48주까지 주당3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웨일즈 정부는 특정 지역 혹은 취약계층 지역과 같이 현재 보육 제공이 부족한 지역에 신규 보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충분한 보육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이를 통해 웨일즈 전역의 부모들에게 보육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Huw Irranca-Davies 아동부 장관은 웨일즈 전역의 새로운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6천만 파운드 투자함으로써 부모들이 양질의 정부 지원 보육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이는 단지 유아들에게 최선의 출발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을 줄이고 보육이 부모들에게 취업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웨일즈 지방당국은 30시간 무상보육에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보육시설들을 보수하거나 새로운 보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향후 3년(2018~2021)동안 요구되는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을 하고 있음. 이 재정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보육 영역을 지원할 것임. 이를테면, 보육 영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육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 SEND)와 추가 학습 요구(Additional Learning Needs, ALN)를 지닌 유아들을 위한 교육 제공을 지원할 것임.

2018년 7월 13일

출처 : <https://www.daynurseries.co.uk/news/article.cfm/id/1597841/Welsh-Government-invests>

2. 잉글랜드 교육부, 취약계층 유아 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 공개 입찰 공고

전국 자발적 지역사회 단체들(National voluntary and community groups)은 취약계층 유아의 격차를 줄이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SEND)를 가진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650만 파운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 입찰 대상으로 초청 받음. 이 입찰의 목적은 초등학교 입학 시 읽기와 언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 유아 및 추가적인 교육적 요구를 가진 유아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임.

취약계층 유아들은 또래와 비교해 볼 때 일명 ‘단어 격차(word gap)’라고 하는 의사소통 기술에서의 차이가 있음이 연구에 의해 증명됨. 이는 이후 아동의 교육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관련 프로젝트들에 재정 지원을 한다고 공고함.

취약한 상황에 놓인 유아들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The Early Years Disadvantage VCS grant programme 2018-20’은 두 가지 특정 영역, 즉 a) 5세 취약계층 유아의 격차 해소, b) 유아 조기 특수교육(Early Years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EYSEND)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교육부는 입찰에 선정된 기관들과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약 18개월 동안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기관들은 최소 25만 파운드를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함.

교육부는 훈련된 유아 교육 전문가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부모가 ‘읽기’와 ‘어린이집 라임(rhymes)부르기’, 혹은 ‘온라인 교구 활용’ 등을 통해 자녀의 새로운 단어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기관들은 또한 취약계층 가정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입찰에 지원할 수 있음.

이전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National Literacy Trust(NLT)의 프로젝트 ‘Early Years Together at 2’의 경우, 부모 및 양육자들을 어린이집에 초대하여 어떻게 아이들이 학습하는지를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가도록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음.

NLT의 프로젝트를 통해 130명의 부모들이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언어 발달을 돕도록 지원을 받았으며, 또한 20여 곳의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 실무자 훈련을 실시함. 이 지원을 받은 부모들에게서 자신감의 향상이 나타남. 또 다른 입찰 성공사례인 ‘Home-Start’ 프로젝트는 ‘단어 계수(word pedometer)’ 프로그램으로 40만 파운드를 지원 받음.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영아들의 단어 사용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훈련된 방문 봉사자들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함.

2018년 7월 2일

출처 :

<https://www.nurseryworld.co.uk/nursery-world/news/1164891/dfe-opens-bids-for-funding-to-support-disadvantaged-children-in-the-early-years>

3. 30시간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보육시설 재정적 타격

유아보육 및 교육 전문가 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 PACEY)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Building Blocks'에 의하면, 40% 이상의 보육시설이 지난해 동안 '30시간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64%는 지역 당국에서 지원하는 시간당 금액이 너무 적다고 응답하였음.

상당수의 보육 제공자들은 현재 재원 중인 부모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3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3분의 1가량은 앞으로 정책 지속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수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함.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보육제공자들은 과도한 규제와 서류작업이 주요한 어려움이라고 보고함. 또한 지자체에 의해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특정한 훈련을 받거나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함.

이에 대해 PACEY의 최고책임자인 Liz Bayram는, 정부가 시급히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는 서류 작업을 간소화시키고 불필요한 추가 문서제출이나 훈련에 대한 요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함.

2018년 8월 7일

출처 :

<https://www.daynurseries.co.uk/news/article.cfm/id/1598824/nearly-half-nurseries-30-hours-childcare>

4. 영국 노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보육 정책 방향

최근 개최된 노동당(The Labour Party) 전당대회에서의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현 노동당 당수)의 연설 가운데 '보육'이 핵심 내용으로 등장함. 특히 2, 3, 4세 유아에 대한 보육 혜택과 유아교육 및 보육 영역에서의 노동력 확장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음.

- 노동당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보육 관련 핵심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 현재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향후 일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까지로 확장
 - 모든 2세 유아에게 15시간 무상보육 제공
 - 보육비용 지원을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수입이 16,200파운드 이하 가정의 유아는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66,000파운드 이상인 가정의 유아는 시간당 4파운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

- 무상보육 및 보육 지원 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로 48억 파운드 편성.
- 보육 제공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간당 7.35파운드로 인상.
- 4급 자격(유아교육 전문가 수준)을 갖춘 교직원의 비율을 2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증원.
- 충분한 자격을 갖춘 대졸 인력 중심으로 교원 확충. 모든 교원이 3급 자격(level 3 EYFS staff)을 갖추거나 동등 자격을 갖추도록 점진적으로 요구.
- 대학 졸업자 교원을 3배 증원하여 교사들이 근무 시간의 80퍼센트를 아이들과 보낼 수 있도록 함.
- 유아 100명 당 한 명의 특수교육 전문가 SENCO(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 배치.
- 유아에 대한 교사 비율을 높이기 위해 7년에 걸쳐 150,000명의 추가 교사 인력 확충.
- 모든 유아교육 및 보육 교사를 위한 국가 단위 급여 기준 확립.
- 국가 온라인 보육 포털을 개발하여 보육 지원금이 정부에서 보육제공자에게 바로 지불되도록 시스템 보완.

2018년 9월 26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labour-reveals-plans-to-expand-30-hours/>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관리

1.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사립 어린이집

전국 주간 어린이집 연합(National Day Nurseries Association, NDNA)에서 실시한 2018년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코틀랜드의 사립 어린이집 46퍼센트가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18년 3~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스코틀랜드 사립 어린이집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대상이 응답하였음.

대학 졸업자의 사립 어린이집 취업에 대한 정부의 장려 계획에도 불구하고, 평균 교사 채용은 2명에 불과함. 연평균 3명의 교사가 더 나은 급여와 근무 환경을 이유로 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공보육 영역으로 이동함. 이러한 결과는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지난겨울 발간한 교사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스코틀랜드 어린이집 교사의 수가 1,543명에서 921명으로 40퍼센트 감소함.

문제는 스코틀랜드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1,140시간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0년까지 한 해 1,14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 이는 3-4세 유아를 자녀로 둔 직장인 부모에게 해당하는 60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현행 정책의 두 배에 달함. 무상보육 시간의 확대에 따른 비용의 증가와 자질을 갖춘 교사의 공공부문으로의 이동은 사립 어린이집이 1,140시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야기할 것임.

설문조사에 응답한 226개 어린이집의 46퍼센트는 아마도 3-4세 유아에 대한 1,14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단지 7퍼센트만이 새로운 무상보육 계획을 현재 보조금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는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사립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1,140시간 무상보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와 대조를 이룸.

특히 설문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79퍼센트가 현재 보조금으로는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으며, 현재 그들은 유아 한 명에 대하여 평균 시간당 1.98파운드, 연간 1,188파운드의 재정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함. 현행 보조금 비율의 상향을 위한 긴급한 현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수많은 어린이집이 2020년까지 운영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2018년 6월 12일

출처 :

<https://www.daynurseries.co.uk/news/article.cfm/id/1596635/Almost-half-of-Scotlands-private-nurseries-have-no-teachers>

2.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핵심적 특징들

교육정책연구원(Education Policy Institute, EPI)과 조기개입재단(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EIF)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의 핵심적 요소들을 구조적 질(structural quality)과 과정적 질(process quality)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EPI 보고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서, '철의 삼각지대(iron triangle)'라고 일컫는 세 가지 요소, 즉 교직원 훈련과 전문성 발달, 교사 대 아동 비율, 그리고 학급 크기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 질에 대해 다루고 있음.

- 1) 교직원 훈련 및 전문성 발달 관련: 유아교육과 아동발달에 관한 전문화된 훈련을 포함하는 학위는 최적의 교사행동을 지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유용함. 그러나

교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변화 가능한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을 도모할 명확한 전략이 필요함.

- 2)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교사 당 아동의 수를 줄이면 더 나은 교육적 성과를 볼 수 있음. 담당 아동의 수를 줄이는 것은 교사로 하여금 아동 개개인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교사와 아동간 상호작용에 도움이 됨.
- 3) 학급 크기 관련: 그룹 규모가 작을수록 아동의 교육적 성과가 더 높아짐. 잉글랜드에서 0-4세 유아의 그룹 규모에 관한 규제는 없음. 그러나 보통 유치원 1학년(reception year)의 경우, 국제적으로 평균 최대 20명을 적절한 수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잉글랜드에서는 교실 당 유아의 수를 30명이 적절한 것으로 봄.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음.

EIF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실시된 108개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언어, 문해, 수리, 인지, 사회정서, 신체 영역에서의 교육적 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이번 리뷰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과정적 질의 향상을 도모할 가장 효과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어려운 약점들을 발견함.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그 연구 결과들을 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상황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이 연구들에서 평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술이 부족함.

대부분의 교육적 개입들은 다양한 요소들 - 교육 환경, 훈련, 선택, 교육과정 설계, 자료 등 - 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실행됨. 따라서 개개의 요소들이 단독으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어떠한 요소들이 교육 효과의 향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음.

특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결과가 부족함. 또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집단에 대한 교육적 영향들을 평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음. 이는 기존 연구의 리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EIF 보고서가 유아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보육의 실천에 관한 제안을 내놓기 어려움을 의미함.

2018년 8월 8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what-does-high-quality-early-years-provision-look>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영유아 야외 낮잠을 장려하는 과거 보육 실천으로의 회귀

아이들의 야외 낮잠이 여전히 보편적인 스칸디나비아 반도 나라들의 ‘숲 학교(forest schools)’ 운동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경험이 풍부한 아이돌보미인 Hannah Rosalie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야외 낮잠을 적용하였고, 현재는 그녀가 돌보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도 실시하고 있다고 함.

그녀는 자신의 자녀가 생후 6주되었을 때 아이를 야외에서 재우는 것을 시작하였고 덴마크 숲 학교 방법(Danish Forest School method)에서 영향을 받음. 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채워진 인위적으로 조성된 실내 공간이 아닌, 매우 실제적이고 건강한 전원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임. 숲 학교(Forest Schools)는 1950년대 이래로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에서 주된 교육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영유아들에게 놀이, 식사, 취침과 같은 활동을 야외에서 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잉글랜드 남서부의 서머셋(Somerset)에 위치한 브릿지워터 컬리지(Bridgewater College)의 보육 전문가들이 1990년대에 덴마크에 있는 숲 유치원을 방문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숲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영국에 강화시키는 출발점이 됨. 샬롯 숲 학교(Charlotte’s Forest School)의 교장인 Charlotte Atkinson은 영아들을 야외에서 재우는 것은 과거 영국에서 한 때 아주 흔한 보육 유형이었다고 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을 자고 노는 것은 컴퓨터와 TV 화면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생활 형태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지난 해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어린이들의 74%가 수감자들보다도 더 적은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왕립보건의소아과학회(the 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의 Rahul Chodhari 박사는 비가 오지 않고 동물의 접근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면 야외에서 낮잠을 재우는 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함. 심지어 추운 날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야외 낮잠 시간의 기온은 영하일 수 있다고 하면서 기온은 영유아들의 안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함.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의 문화에서 1920년대부터 보편적이었던 보육 실천이었고, 이러한 나라들에서의 유아 사망률은 영국보다 수년간 현저하게 낮은 상태를 지속함.

2018년 2월 3일

출처 :

<http://www.telegraph.co.uk/news/2018/02/03/return-old-habits-babies-encouraged-sleep-outside-fresh-air/>

2. 야외 활동의 가치에 주목하는 스코틀랜드의 유아교육

스코틀랜드의 교사와 교육정책가들은 교실 밖 야외 활동이 유아의 건강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에 주목하고 있음. 에딘버러의 북서쪽 숲에서는 야외 수업이 이뤄지는데 방수 옷을 입은 유아들이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나무 아래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특히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이 야외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으로 이어지기도 함.

아이들이 야외에서는 더 창의적이 될 수 있고, 어른들이 그들을 이끌 필요가 없음. 이것이 바로 아동 중심(child-centred), 아동 주도(child-led)의 유아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교사와 정책가, 그리고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야외 놀이가 유아의 시력에서부터 위기 대처 능력, 회복탄력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적 신념은 스코틀랜드의 증가하는 아동 비만률, 특히 5세 유아의 4분의 1이 미만 위험군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더 강조되고 있음. 스코틀랜드 교육과정에서는 5세 미만 유아에게 하루 3시간의 활동(야외 놀이 포함)을 권장함.

지난 2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야외 활동을 스코틀랜드 교육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850,000파운드의 재정을 투자한다고 밝힘. 영국 전역에서 숲 유치원과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퍼져 나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웨일즈는 이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 잉글랜드의 경우 야외 활동 관련 정책은 2010년에 중단되었음.

로리스턴 성 유치원(The Lauriston Castle kindergarten)은 에딘버러 시 의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600시간은 어린이집에서, 500시간은 숲에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며 훈련 받은 숲 지도자 100명이 함께 함.

글라스고 의회 보육 담당자인 Heather Douglass는 “야외활동은 모두 걸을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통비가 필요 없고, 크고 비싼 건물이 아닌 그저 쉼터 하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자본이 요구되지 않는다. 아이들과 교사에게 제공될 따뜻한 방수 옷에 대한 투자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자연 세계가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고급스런 장난감이나 준비물 또한 필요 없다”고 강조함.

2018년 4월 2일

출처 :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8/apr/02/forest-schools-grow-in-scotland-as-grasp-of-benefits-takes-root>

3. 어린이집에서의 ICT 활용에 관한 유아교육 종사자들의 견해는?

영국 내 주요 유아교육 관련 사이트(daynurseries.co.uk)가 어린이집 운영자, 관리자, 교직원 1,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1퍼센트가 어린이집에서 태블릿이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임.

부모들은 현재 아이들이 처한 디지털 시대의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기기의 사용이 유아의 운동기술과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상상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는 의견으로 양분됨. 어린이집 또한 두 그룹으로 나뉘어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가 하면, 또 다른 그룹은 ICT 활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야외 활동 운영을 통한 광범위한 숲학교 교육(forest school approach)을 채택함.

설문에 참여한 유아교육 종사자들의 90퍼센트는 정부가 5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스크린 타임에 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영국에는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사용이 현재 어린 유아들 사이에서도 일상이 됨. 버벡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Birkbeck)와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12~18개월 유아 중에는 하루 5시간까지 터치스크린 기기 앞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1세 미만의 영아 중 일부는 2시간 30분을 보내는 경우도 발견됨. 6~11개월 영아는 하루 평균 9분이하였고, 26~36개월 유아는 44분까지 증가함.

전자기기에서의 노출이 유아에게 해로운가에 대해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심함. 지난해 북아일랜드 스트랜밀리스 대학(Stranmillis University College) 연구진은 아이패드와 태블릿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가 아동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교실에서의 아이패드 사용이 유아의 문해, 수리, 의사소통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of London) 연구진에 의해 지난해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영아가 전자기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당 16분 수면이 감소하여 스크린 타임이 영아의 수면에 영향을 끼치고 뇌 발달에 해로울 수 있음을 보고함. 연구진은 스크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가 체내 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함.

2018년 5월 9일

출처 :

<https://www.daynurseries.co.uk/news/article.cfm/id/1595482/growth-forest-schools-backlash-world-technology>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스코틀랜드 보육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스코틀랜드에서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함. 이 웹사이트는 Scottish Social Services Council, Skills Development Scotland, Care Inspectorate and Smarter Scotland(Scottish Government)의 협력체계 안에서 개발되었음. 웹사이트는 보육 분야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며,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Learning and Childcare, ELC), 학교 밖 돌봄, 아이돌보미, 그리고 아동의 주간 돌봄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영역들에 대해 모두 다루고 있음.

-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재정지원을 받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의 증가가 어떻게 현재부터 2020년 사이에 11,000개 이상의 구직 기회를 창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
 - 현장 보육 전문가들의 직장 경험 이야기를 통한 다양한 직업 경로
 - 보육 현장에서의 경험과 자격증 획득을 위한 여러 유형의 방법들
 - 보육 종사자들을 위한 훈련 및 교육 자료와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보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이 웹사이트는 그들이 이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것임. 한편 이미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그들의 다음 단계에 대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2018년 5월 8일

출처 :

<https://www.careappointments.co.uk/care-news/scotland/item/44037-new-childcare-careers-website-aims-to-boost-workforce-numbers-in-scotland>
웹사이트 : <http://learn.sssc.uk.com/childcarecareers>

2. 남성 교원 확보를 위해 스코틀랜드 50,000파운드 재정 지원

현재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영유아 보육 부문 남성 교원의 비율은 약 4퍼센트임. 스코틀랜드 정부가 새롭게 출범시킨 'Men in Early Years Challenge Fund'는 남성 보육 교원 확보를 위해 25,000파운드씩 2회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고 두 곳의 칼리지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함.

이러한 재정 지원은 국가자격과정(National certificate, NC)과 고급 국가자격과정(Higher National Certificate, HNC) 영유아 보육 부문에 등록하는 남학생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게 됨. 2016-17학년도 HNC 과정에 등록된 전체 1,793명의 학생 중 4.18퍼센트만이 남학생이었음.

마리 토드(Maree Todd) 스코틀랜드 아동 청소년 장관(Children and Young People Minister)은 포토벨로(Portobello)에 위치한 하일랜드 플링 어린이집(Highland Fling Nursery)에서 남성 교원과의 만남의 시간에 이러한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함.

남성 교원 확보를 위한 이러한 재정 지원은 영유아 보육 영역에서의 다양성의 증진과 질적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또한 남성 교원의 증가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게 하며 남성 롤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영유아 보육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교원의 수적 불균형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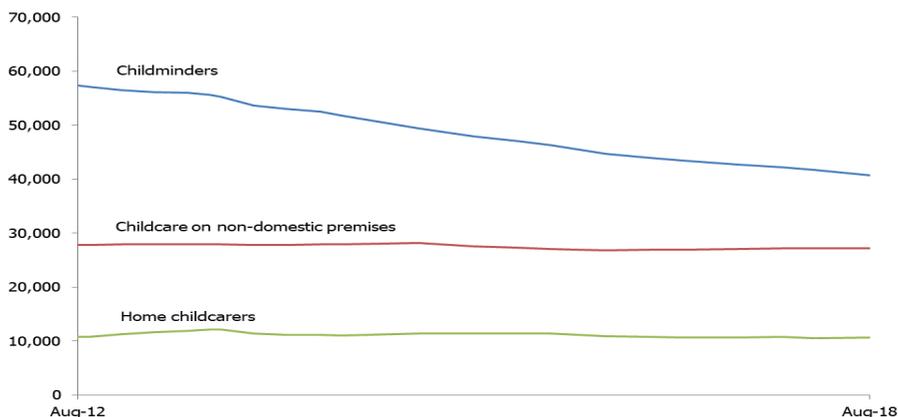
2018년 10월 24일

출처 : <https://www.belfasttelegraph.co.uk/news/uk/50000-fund-to-attract-male-childcare-workers-37453770.html>

3. 보육 제공 및 점검에 관한 잉글랜드 교육기준청 공식 통계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은 2018 보육 제공과 점검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를 최근 발간함. 이 자료에는 올 해 3월 31일부터 8월 31일 까지 보육 제공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들이 수록되어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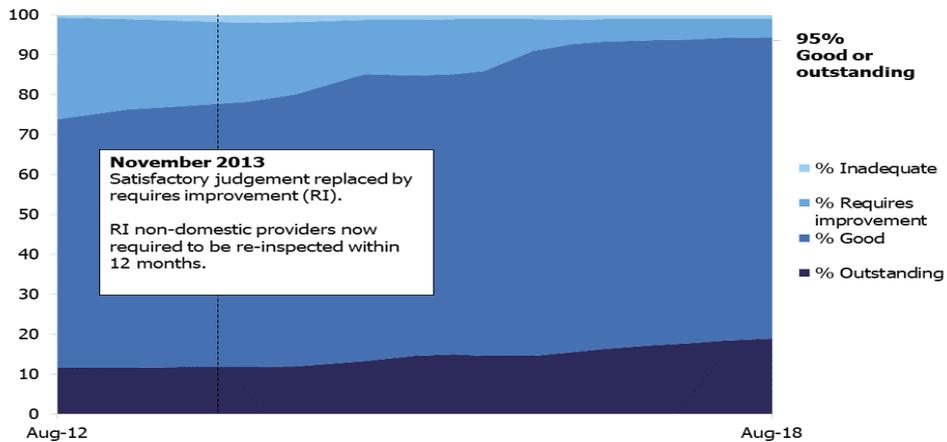
Ofsted에 등록된 아이돌보미(childminders)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음. 8월 현재 40,800명의 아이돌보미가 잉글랜드 교육기준청에 등록되어 있음. 이는 지난 3월 이후 900명(2%)이, 2012년 8월 이후 16,600명(29%)이 감소한 수치임.



[그림 4] 보육 유형에 따른 Ofsted에 등록된 보육 제공 수의 변화

비가정 보육 제공(non-domestic providers)의 수는 약간 증가하였음. 8월 현재 27,300개의 비가정 보육 제공이 등록되어 있고, 3월과 8월 사이에 Ofsted에 등록된 비가정 보육 제공의 수가 탈퇴한 수보다 많았음. Early Years Register(EYR)에 등록된 보육 제공의 95%가 ‘우수(good)’ 혹은 ‘뛰어남(outstanding)’의 평가를 받았음. 이 수치는 지난 3월과 거의 비슷하나, 2012년 8월과 비교하면 21% 증가하였음⁷⁾. 아이돌보미와 비가정 보육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2018년 8월 현재 아이돌보미는 94%, 비가정 보육은 95%가 ‘우수’ 혹은 ‘뛰어남’ 평가를 받음.

다음 그림과 같이 전반적으로 보육 제공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추세임.



[그림 5] 전반적인 보육 제공에 대한 평가의 변화

2018년 11월 27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care-providers-and-inspections-as-at-31-august-2018/childcare-providers-and-inspections-as-at-31-august-2018-main-findings>

7) 참고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제공은 유형에 따라 Early Years Register(EYR) 혹은 Childcare Register (CR)에 등록됨.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nurseries), 유치원(pre-schools), 홀리데이클럽(holiday clubs), 기타 사설 보육 기관은 일반적으로 EYR에 등록되어 있음

❖ 기타(육아정책 현황, 법안, 논문 등)

1. 중국 투자자들로 인해 10% 이상 증가한 영국 보육 산업의 비용

영국 어린이집(Nurseries)을 구입하기 원하는 중국 투자자들의 증가하는 요구는 2017년 한 해 보육 산업의 평균 비용을 10.8%까지 오르게 함. 조기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비교적 낮은 영국 파운드의 가치는 영국 보육 산업에 관심을 갖는 아시아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감.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한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영국은 외국 자본의 증가를 환영하고 있음.

Christie & Co 의 보육 및 교육 분야 담당인 Courteney Donaldson은 관련 비용과 등록 된 아이돌보미의 감소한 수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양질의 형식적 보육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였다고 함. 중국과 같이 프리미엄 조기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국가들에게 유럽, 미국, 영국은 매우 잠재적인 투자 국가들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2018년에 들어서면서 유치원 학급(pre-school class)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며, 숲 학교(Forest Schools)와 수직 통합형 학급(vertically integrated classrooms)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가 영국 보육 분야에 들어옴으로써 보육 영역을 재구성하게 될 것임.

중국의 보육 산업은 2015년 1,930억 파운드의 가치로 추정되나, 이는 2020년까지 3,700억 파운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영국 국제통상부(the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는 지난 해 중국으로 유아교육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영국 어린이집 종사자 14명의 대표단은 700명의 중국 보육 제공자들과 함께 그들의 전문성을 공유함.

2017년에는 영국 회사인 British Early Education이 장쑤성(Jiangsu) 이싱(Yixing)에 국제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해 중국 투자자들과 협력을 맺음. 영국의 보육 산업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이러한 신흥 시장의 확장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 회사들을 모으는 결과로 이어짐.

2018년 1월 19일

출처 :

<https://www.daynurseries.co.uk/news/article.cfm/id/1591628/UK-nursery-prices-soar-by-over-10-per-cent-as-Chinese-investors-move-in>

2. 2018 잉글랜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는 2018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이번 설문에서는 처음으로 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함.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교직원(Staff): 2018년 봄 기준으로 430,500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역에서 일하고 있음. 이는 2016년 452,100명에서 감소한 숫자임.
 - 아이돌보미의 12%가 최소 1인 도우미를 두고 있다고 보고함. 이는 2016년 대비 14% 감소한 것
- 2) 보육 제공(Providers): 보육 제공의 전체 수는 2016년 90,300개에서 2018년 81,500개로 감소함.
 - 그룹 기반 보육(group-based providers)은 25,700개에서 23,600개로 감소하였고, 학교 기반 보육(school-based providers)은 17,900개에서 16,900으로 감소함. 아이돌보미(childminders)의 수는 46,600명에서 40,900명으로 감소함.
- 3) 장소(Places): 잉글랜드에서 보육 제공 장소의 전반적인 수는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감소함. 2018년 기준, 전 유형의 보육 제공 장소는 2,841,300 곳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6년 3,093,000 곳에 비해 감소한 것임.
 - 등록된 모든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장소의 54%가 학교로 나타남.
- 4) 추가 수용력(Spare Capacity): 대다수의 보육 제공이 최소한의 추가 수용력을 갖추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약 68%는 추가 수용이 가능함을 보고하였고, 평균적으로 그들의 보육 장소의 42%가 공간적인 여유를 지니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 학교 기반 어린이집(school-based nurseries)은 그룹 기반 보육과 아이돌보미에 비해 추가 수용력을 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 자격(Qualifications): 대다수의 교사가 최소 3급(level3)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 학교 기반 어린이집 교사의 40%, 학교 유치원반(reception classes) 교사의 54%가 6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 이는 그룹 기반 보육(13%) 교사와 아이돌보미(9%)에 비해 높은 비율임.
 - 이번 설문에서 처음으로 아이돌보미 도우미(childminder assistants)를 설문에 포함함. 이들의 31%가 3급, 3%가 6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
- 6) 급여(Pay): 설문 당시, 25세 이상인 그룹 기반 보육 교사의 약 11%가 국가생활임금

(National Living Wage)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음.

- 7) 비용(Costs): 비용의 대부분은 교직원 임금과 관련됨. 그룹 기반 보육에서 발생한 비용의 약 73%, 학교 기반 어린이집에서는 약 84%가 임금, 국가보험, 연금 납부 등 교직원과 관련된 비용임.
 - 아이돌보미 보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식사와 간식에 관한 것임. 평균적으로 식비가 전체 비용의 약 35%를 차지함.
- 8) 30시간 무상보육(30hours): 그룹 기반 보육의 90%, 학교 기반 어린이집의 67%, 아이돌보미의 77%가 3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음.
- 9) 비과세 보육(Tax-Free Childcare): 그룹 기반 보육의 82%, 학교 기반 어린이집의 43%, 아이돌보미의 62%가 비과세 보육에 관한 지불금을 받기 위해 신청함.
- 10)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 학교 기반 어린이집(77%)이 그룹 기반 보육(72%)과 아이돌보미(19%)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 아동 수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1) 평균 시간당 보육료: 2018년 봄 기준으로, 잉글랜드에서 보육 제공자들에 의해 부과된 전반적인 평균 시간당 보육료는 2세 미만의 경우 5.02파운드, 2세 5.01파운드, 3-4세 4.92파운드임.
- 12) 증가하는 보육비용: 지난 12개월 동안 그룹 기반 보육에서의 비용이 학교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 보육료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룹 보육 제공의 53%가 최소 한 개 이상의 연령 그룹에서 비용의 증가를 보임. 반면 학교 어린이집의 28%, 아이돌보미의 25%에서 비용의 증가를 보임.

2018년 11월 1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childcare-and-early-years-provider-fees-survey>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원문 :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care-and-early-years-providers-survey-2018?utm_source=b31f08bf-c15a-478a-9ff2-c56bbf2a3a37&utm_medium=email&utm_campaign=govuk-notifications&utm_content=immediate

3. 2018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잉글랜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잉글랜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한 해, 0-14세까지의 자녀를 둔 잉글랜드 가정의 75퍼센트가 일정한 형태의 보육 제공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남.
- 형식적 보육(formal childcare)에 대한 이용은 전년도 66퍼센트에서 올 해 62퍼센트로 감소함. 이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 사이에서 방과후 활동(after-school clubs and activities)의 이용에 대한 감소가 있었기 때문임. 구체적으로 2017년 41%에서 2018년 35%로 감소함.
- 유치원 연령의 자녀를 둔 가정 중 형식적 보육에 대한 이용 비율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71%로 동일하게 나타남.
- 41%의 학부모가 지역 보육의 비용 적절성에 대해 매우 혹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답변 반면, 30%는 매우 혹은 상당히 안 좋은 편이라고 응답함. 이는 2017년 39%, 33%였던 수치와 비슷함.
- 보육 비용을 지불하는 학부모 중 52%가 보육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혹은 매우 용이하다고 응답한 반면, 19%는 보육 비용 충당이 어렵거나 혹은 매우 어렵다고 대답함. 이러한 비율은 2017년 52%, 21%와 비슷한 수치임.
- 이번 설문조사에서 0-14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70%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 68%에서 증가한 수치임. 특히 일하는 어머니들의 44%가 신뢰할만한 보육 제공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함.
- 지난 2년 사이 직장에 들어간 어머니들 중, 21%가 자신들이 직장을 떠난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유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함.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27%만이 비과세보육(Tax-Free Childcare)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이는 전년도 21%에서 증가한 수치임.
- 0-4세 자녀를 둔 부모 중 78%가 30시간 무상보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연간 45,000 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모의 89%, 10,000파운드 이하의 경우 68%가 30시간 무상

보육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 즉, 가정의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무상보육에 대한 인지가 높게 나타남.

2018년 12월 30일

출처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66498/Childcare_and_Early_Years_Survey_of_Parents_in_England_2018.pdf

4.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의 2017/18 연례보고서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은 잉글랜드 교육 전반(영유아 보육 및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 사회적 돌봄 등)에 관한 연례보고서 <The Annual Report of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2017/18>를 발간함. 영유아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EYR(Early Years Register)에 등록된 보육 제공에 대한 점검 결과 95%가 '우수' 혹은 '매우 우수'의 평가를 받음.(p.3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제공의 수적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감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보다 아이돌보미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 제공의 전체 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EYR에 등록된 아이돌보미 제공의 수는 30% 감소한 반면, 장소 제공의 수는 12% 감소함. 이는 평균적으로 1인 아이돌보미가 1개 이상의 보육 제공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함. 2018년 8월 현재, EYR에 등록된 아이돌보미는 평균 6.4개의 보육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p.34)

이 연례보고서는 앞으로 진행될 보육 점검과 등록 정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2013년 11월 이후, 교육기준청은 '향상을 요함' 평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12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음. 이는 이러한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잦은 점검과 관찰을 통해 더 빨리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을 의미함.(p.33)

마찬가지로, 2016년 8월 이후, 교육기준청은 전년도에 '향상을 요함' 평가를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음.

단일 등록 하에 있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운영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이 홀로 운영되는 기관들에 비해 '우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보육 제공의 질은 지역 수준에 따라 격차가 있었음.

2018년 12월 4일

출처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61606/29523_Ofsted_Annual_Report_2017-18_041218.pdf

5.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보육 관계자들

유아교육 관련 훈련 기관인 NEECO는 최근 소셜 미디어상에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시작함. 캠페인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독려하고, UK 정부와 의회는 잉글랜드에서 아이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청원에 사인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NEECO는 영국에서 현재 관련법은 매우 모호하다고 언급함. 왜냐하면 아동법(the Children's Act 2004) 58항에 의하면 부모 혹은 양육자가 그들의 아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처벌(reasonable punishment)'로 볼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는 예외 항목이 있음.

스코틀랜드는 영국 내에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될 예정임. 지난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 법률 안에서 정당한 폭행(justifiable assault)에 대한 법적 방어를 제거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영국 내에서 아동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Children's right to equal protection)를 이행하는 첫 지역이 됨.

웨일즈 의회는 최근 12주간 이 이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는 이달 초 종료됨. 2015년 UN이 부모들에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5개 국가 중 하나임.

NEECO는 이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임을 지적함. 인도의 Swati Popat Vats 박사(the director of Polar Jumbo Kids chain of pre-schools)는 최근 인도에서의 한 설문조사를 통해 4분의 3이상의 부모가 자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함. NEECO 캠페인은 Popat Vats 박사의 해

시태그 #Iwillnot을 사용하여 캠페인을 하고 있음. 자세한 관련 정보는 캠페인 사이트 <https://www.facebook.com/NeytcoIwillnot/>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18년 4월 18일

출처 :

<https://www.nurseryworld.co.uk/nursery-world/news/1164171/early-years-group-calls-for-smacking-ban>

6. 교사와 전문가들의 비판에 직면한 잉글랜드 유아 기초학력평가(Reception Baseline Assessment)

4세 유아가 초등학교 유치원반(pre-school)에 처음 입학하는 시기에 치르게 될 기초학력평가(Reception Baseline Assessment, RBA)가 교사와 유아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큰 비판을 받고 있음.⁸⁾

정부는 현재의 평가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지침서를 통해 유치원반(reception classes)을 가진 모든 학교는 2019-2020학년도에 실시될 시범 평가에 참여하도록 권고함. 이 평가는 학교에 입학한 유아가 초등학교 6학년(Year 6)을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진취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측정하는 출발점으로서, 2020년 가을부터 잉글랜드 전역에 도입될 예정임.

지침서에 의하면, 이 기초학력평가는 언어, 의사소통, 기초수학, 자기조절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약 20여 분간 상호작용과 실제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임. 유아들은 평가에 통과했느냐에 대한 여부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며, 이 평가는 학교 유치원반에 입학한 대다수의 유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임.

그러나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이 평가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냄. 비록 효과적인 평가가 유아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이 기초학력평가는 매우 좁은 관점에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영역들만 다루고 있고,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정부 지침서 가운데, ‘대부분의 유아들이 자신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과, ‘특수한 교육적 요구나 장애(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8) 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이 단계를 Reception이라 지칭하고 5세부터 Year 1(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이 시작됨. 북아일랜드에서는 학교 유치원반 시기를 Year 1이라 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P1으로 부름.

Disabilities, SEND)를 가진 유아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아들도 이 평가에 포함된다.’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전국교원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 또한 지난 4월 이 평가에 대한 반대투표를 실시함. 아동은 점수 그 이상이며, 교육의 매 단계에서 아동을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자신감과 정서적 안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함. 유아교육 기관들 또한 이 평가가 신뢰할만하지 못하고 유아들이 학교 유치원반에서 잘 정착하도록 이끄는 교사의 역할을 방해할 것이라며 비판함.

반면 두 개의 전국 학교장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Headteachers(NAHT) & 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ASCL)에 속한 학교장들은 교사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에 의견을 달리하며 정부의 새로운 평가 체계를 지지함. 유아 기초학력평가에 반대하는 청원을 위한 웹사이트인 ‘More than a Score’가 개설되었고 이미 25,000명 이상이 서명을 완료한 상태임.

2018년 6월 6일

출처 :

<https://www.daynurseries.co.uk/news/article.cfm/id/1596444/reception-baseline-assessment-children>
<https://morethanascore.org.uk/>

7. 잉글랜드 유아교육과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The Study of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SEED)

잉글랜드 유아교육과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The Study of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SEED)⁹⁾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부는 최근 2세에서 4세 사이의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과 질이 4세 유아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여기에는 유아기 가정교육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결과도 포함됨.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세부터 4세 사이에 제공되는 유아기 교육 및 보육의 양과 유형은 4세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지발달 및 사회정서발달 결과와 연관이 있음.

9) SEED 관련 참고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tudy-of-early-education-and-development-seed>

- 비언어적 추론 능력과 사회정서적 발달의 향상된 결과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예: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아반, 플레이그룹 등) 이용 시간과 관련이 있음.
- 반면, 아이돌보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낮은 수준의 감정적 증상과 연관을 보임.
- 비행식적인 개인 보육 환경(예: 친척, 친구, 이웃 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유아들이 4세에 더 나은 언어 발달 결과를 보임.
-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유아가 속한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대체로 언어발달과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아가 2세에서 4세 사이 동안 더 나은 양질의 보육 환경에 속한 경우, 4세가 되었을 때 측정된 특정 부문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기회 제공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며, 아동의 향상된 발달 결과를 위해서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음. 4세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서, 몇 가지 영역과 관련해서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질, 어머니의 자질, 가정 학습 환경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 유아가 더 나은 가정 학습 환경에 속하더라도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으로부터 얻는 특정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2018년 9월

출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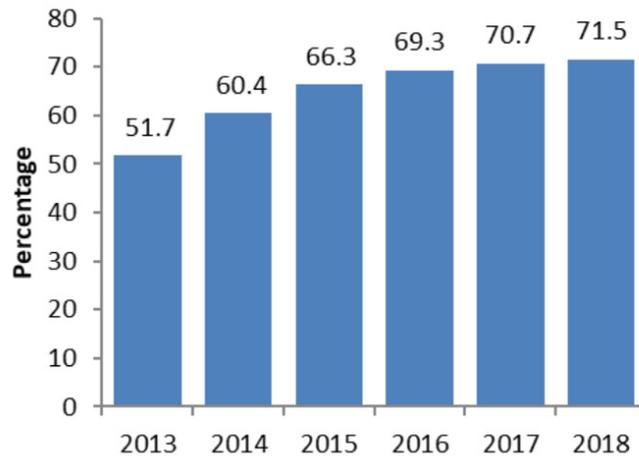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education-and-outcomes-to-age-4?utm_source=f6e53703-dd87-49d2-9cf7-ae0d1425e2dd&utm_medium=email&utm_campaign=govuk-notifications&utm_content=immediate

8. 2018년도 잉글랜드 '영유아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 성취 결과

영국 교육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는 2018 잉글랜드 영유아 기초단계¹⁰⁾ 개요(Early Years Foundation Stage Profile, EYFSP)를 발간함. 이 개요서에는 영유아 기초단계 실행 결과와 아동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 요약 기술되어 있음.

10) 영유아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의 학습, 발달, 보육에 관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임. 모든 학교(유치원반)와 영국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임. EYFS는 잉글랜드에서만 적용이 되며,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다른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출처 <https://www.gov.uk/early-years-foundation-stage>)

- 2018년 영유아 기초단계 실행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좋은 수준의 발달(a good level of development)을 성취한 아동의 비율이 71.5퍼센트로, 이는 2013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수치이며 전년도에 비해 0.8퍼센트 향상된 결과임.



[그림 6] '좋은 수준의 발달'을 성취한 아동의 연도별 비율

- 총 17개 학습 영역¹¹⁾에서 최소한의 기대 수준의 성취를 보인 아동이 70.2퍼센트로 나타남. 올해 평균 점수는 34.6점으로 전년도 34.5점에서 약간 상승함.
- 17개 학습 영역 중 기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취를 보인 아동의 퍼센트가 가장 낮은 영역은 읽기, 쓰기, 수 영역임.
- 발달의 성취에 대한 성차에 있어서는 약간의 감소가 있음. 전년도 13.7퍼센트에서 올해 13.5퍼센트로 감소하였는데,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남아와 여아 모두 3대 핵심 평가 영역¹²⁾에서 2017년 이후 향상된 결과를 보임. 남아가 더 빠른 향상을 보이는

11) 17개 학습 영역: 듣기와 주의 집중(Listening and attention), 이해(Understanding), 말하기(Speaking), 운동 및 조절(Moving and handling), 건강과 자기관리(Health and self-care), 자신감과 자기인식(Self-confidence and self-awareness), 감정과 행동조절(Managing feelings and behavior), 관계형성(Making relationships),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수(Numbers), 도형 및 공간과 측정(Shape, space and measure), 사람과 공동체(People and community), 세계(The world), 기술(Technology), 미디어와 자료의 탐구 및 사용(Exploring and using media and materials), 창의력(Being imaginative)

12) 3대 핵심 평가 영역: a) 좋은 수준의 발달 성취(a good level of development); b) 17개 학습 영역에

데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줄고 있다는 의미임.

- 모든 영유아와 가장 낮은 수준의 성취를 보인 그룹 간의 격차를 줄이기에 관해서는 향상된 결과가 없었음. 하위 20퍼센트의 성취 점수 평균은 23.2점으로 이는 2017년도와 같은 결과임.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방 교육당국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임. 교육당국의 수행 수준에 관하여는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그룹에도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

2018년 10월 18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early-years-foundation-stage-profile-results-2017-to-2018>

대한 최소 기대 수준의 발달 성취(at least the expected level in all learning goals); c) 평균 점수 (average point score)

2018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발행일 2019년 1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018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398 7700 팩스 02-398-7798